CDP
DISCLOSURE INSIGHT ACTION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3

CDP, ESG공시 시대의 생존 플랫폼

March 2024

CDP Korea Report 2023

Korean partner to CDP and Report Author

KOSIF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Report Sponsor

신한금융그룹 HYOSUNG

Korean Partner to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이하 KoSIF)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CDP
DISCLOSURE INSIGHT ACTION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3

Writer: 이다연, 김정석, 김현정, 서승연, 남나현, 정병하, 김태한, 이종오, 정유민
Research Assistant: 곽민수, 이진주
Design & Publication: 화소

Contents

03 **발간사** – 장지인, 위원장 / CDP한국위원회
Foreword – Sherry Madera, CEO / CDP

05 **CDP Disclosure Platform**
기후공시 대응: CDP
Scope 3와 공급망 관리

17 **Climate Change**
국내 기업의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수준
넷제로 이행수단, 재생에너지 사용
국내 RE100 기업 브리프
환경정보데이터의 신뢰성: 제3자 검증

33 **Water Security**
물 리스크의 현실화
물 기회: 비즈니스 이익 창출
물 경영 요구 강화와 CDP 정보공개
플라스틱 리스크

53 **Korea Leaders**
수상기업 명단
CDP 평가시스템

59 **Fact Sheet**
Climate Change 주요 통계
Water Security 주요 통계
2023 CDP Climate Change 한국 기업별 현황
2023 CDP Water Security 한국 기업별 현황

Important Notice
본 보고서 내의 자료는 CDP Worldwide(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매 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CDP 2023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KoSIF 또는 CDP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KoSIF 및 CDP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KoSIF 및/또는 CDP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SIF, CDP, 협력기관, 제휴 회원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 및 'CDP Worldwide'는 자선단체(no. 1122330)와 보증책임회사(no. 05013650)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를 지칭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너로서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습니다.

© 2023 CDP Worldwide. All rights reserved.

장지인

위원장, CDP 한국위원회

CDP는 공시를 위한 쇄빙선, 예인선 역할을 해 왔습니다. CDP 대응은 곧 기후 등 환경 관련 공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4년은 ESG 공시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외 지속가능성 공시는 1년 유예된 상황이지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유럽도 올해부터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대상 기업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를 시행합니다. 비록 완화되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규칙이 올해 3월 초 승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 중 ISSB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SG 공시 중에서도 ISSB의 S2, ESRS의 E1, SEC의 기후공시 기준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가치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후공시 기준은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의 프레임워크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 TCFD는 CDP의 역사적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CDP는 기후뿐만 아니라 수자원,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를 국제적 차원에서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공시를 위한 쇄빙선, 예인선 역할을 해 왔습니다.

CDP는 올해 정보공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등 주요 환경 이슈 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한 번에 보고할 수 있도록 통합합니다.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CDP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ISSB의 S2와 일치화를 완료했고, 유럽연합의 ESRS 및 미국 SEC의 기후공시지침과의 일치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CDP 대응은 곧 기후 등 환경 관련 공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CDP에 기후정보를 공개한 기업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글로벌의 경우 2023년에는 23,293개로 전년 대비 4,533개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확연합니다. CDP Climate Change는 179개에서 211개로 증가했으며, CDP Supply Chain까지 합치면 875개 기업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DP Water Security도 공급망을 포함하여 104개에서 135개로 증가했습니다. CDP는 명실공히 기후 등 환경 관련 정보 및 기업가치 IR을 위한 최대 플랫폼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주체의 의지와 행동으로 개척해 나가야만 비로소 보이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고 연대하여 거대한 행동을 시급히 만들어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CDP 한국위원회는 그 험난한 여정에서 든든한 곁이 되겠습니다.

Sherry Madera

Chief Executive Officer, CDP

2023년, CDP플랫폼을 통해 23,000개 기업과 1,100개 기관이 환경 정보 공개에 참여했으며, 한국은 202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COP28 폐막은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행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기업 및 기관들은 기후변화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자연파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OP28 이후 우리는 과연 현재의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우리 스스로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CDP는 기업, 자본시장, 도시 및 전 세계 정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앙적인 기후변화와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조치가 지연되면 21세기말 전 세계 기온은 2.8°C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와 자연에 재앙을 초래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들이 제출한 배출감축목표와 정책은 충분하지 못하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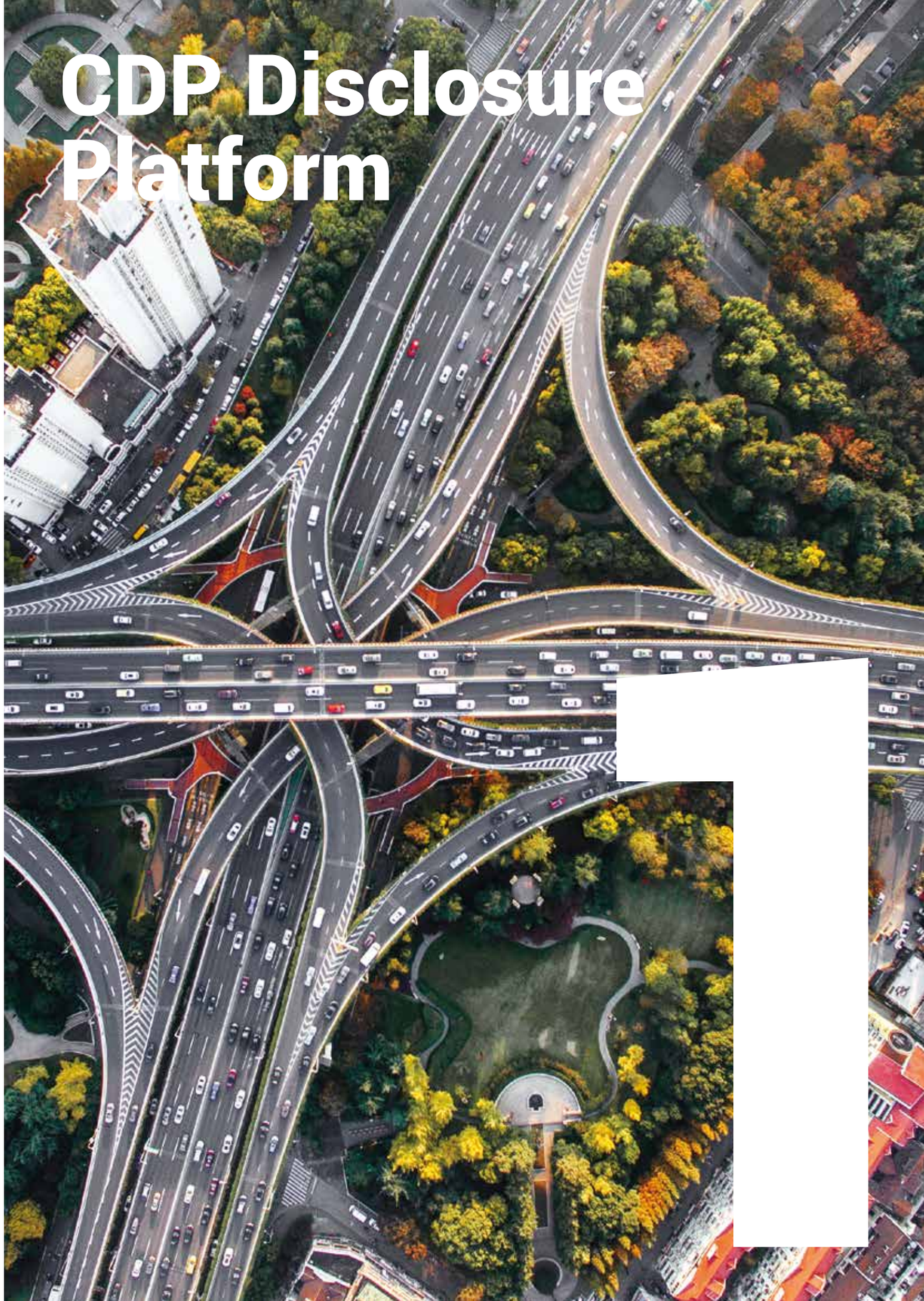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은 기후영향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정보공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규제는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 시장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2년 이후 기후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지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많은 주요 경제국들은 이미 환경정보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거나 도입 과정에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환경 영향을 추적하고 감축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CDP 글로벌 정보공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근 기후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가속화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ISSB기준을 한국형으로 개발 중이며, 2026년 이후 기후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CDP를 통한 환경정보공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업 수가 23,000개 이상으로 2022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100여 개 이상의 도시, 주 및 지역 기관도 정보공개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공개 참여 기업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15년 전부터 시작된 KoSIF와 CDP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진 눈에 띄는 결과입니다.

CDP는 앞으로도 종합적인 환경보고를 위해 해양,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폐기물 등 추가적인 지구 경계를 포함하도록 데이터 수집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 및 전 세계 정부와 협력하여 최고 수준의 정보공개 의무화 및 집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통찰력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자본시장과 정책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선도적인 경제국 중 하나인 한국은 회복력 있는 저탄소 경제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다른 지역 국가들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정보공개 참여 증가는 넷제로 달성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기후공시 대응: CDP

기업의 자발적 기후공시, 여전히 활발

ESG위기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발적 기후정보공개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23,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기후정보를 공개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국내기업의 CDP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년 대비 105% 늘어난 875개 기업이 CDP에 응답했다.

현재 도입 중인 기후공시의무화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CDP를 기반으로 마련되었다. CDP의 주요 내용이 기후관련재무공개태스크포스(TCFD) 권고안의 토대가 되었고, TCFD권고안은 다시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공시기준, EU의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지침(안)에 반영되었다. 이에 CDP를 통해 기업의 기후공시 대응 수준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875개 응답 기업 가운데 CDP 공급망 프로그램에만 응답한 기업[1]을 제외한 183개 기업[2]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 **85%(155개)**의 기업이 이사회에 기후변화관련 의사결정 책임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 기후변화 전문성을 가진 이사 보유 비율은 **63%(116개)**로 나타났다. **63%(115개)**는 동기부여를 위한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진(C-레벨) 대상 기후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전 략 | **70%(129개)**의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잠재적 재무영향, 대응방법 및 비용 등을 보고했다. **64%(118개)**의 기업은 사업전략 수립에 기후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했으며, **59%(108개)**는 사업전략 전반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반영한 '기후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위험 관리 | **84%(154개)**의 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77%(141개)** 기업은 이를 전사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지표 및 목표 | **68%(125개)**의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산정 및 보고했다 (Scope 1+2는 91%). Scope 3 배출량 산정에 포함한 평균 카테고리 수는 7.4개 였다. 가장 많이 산정한 카테고리는 출장(106개), 사업장 발생 폐기물(103개), 구매한 상품/서비스(102개) 순이었다. **20%(36개)**의 기업은 과학기반감축목표를 수립했으며, Scope 3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26%(48개)**였다. **30%(55개)**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했다.

1. CDP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대상기업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기업은 주로 상장기업임. CDP 공급망 프로그램은 요청 주체가 고객사이며, 대상기업은 고객사의 협력사임. CDP 응답기업 가운데 투자자와 고객사로부터 동시에 정보공개를 요청 받은 국내 기업은 110개임
2. 투자자 요청을 받은 기업 가운데 Full version으로 응답하고 데이터를 공개한 기업 수

CDP 시스템 변화

CDP는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프로그램 질의서 통합

- 기후변화뿐만아니라 주요 환경 이슈 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한 번에 보고할 수 있도록 통합
- 이슈별 세부 내용은 기후변화, 산림, 수자원, 플라스틱, 생물다양성의 5개 모듈로 구분하여 기업이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추진
- 평가는 현행과 같이 이슈별로 분리하여 진행되며,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은 평가하지 않음

■ 의무 ESG 공시 제도와의 일관성 강화

- CDP 문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 기준 일치화 완료: 2024년부터 기업의 CDP 응답을 통해, 원칙 기반의 IFRS 지속가능공시기준이 도입될 경우 이를 적용한 기업의 실제 기후공시보고서의 모양과 내용 등을 미리 확인 가능.
- EU의 ESRS 및 미국 SEC 기후공시지침과 일치화 작업 지속: EU분류체계 부합 매출액 등 ESRS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정보를 CDP 문항에 일부 반영했으며, 지속적으로 일치성 강화 작업 예정. 미국 SEC 기후공시지침(안)과는 이미 상당한 일치성을 가지고 있으나, SEC 기후공시지침(안)이 확정될 경우 추가 반영 예정.
- 환경관련 이니셔티브와의 통합성 강화: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프레임워크[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일부 항목 또한 질의서에 부분적으로 통합. SBTi, RE100, NZAM 등 기후관련 이니셔티브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보고 플랫폼 역할 강화.

CDP와 기후공시의무화

기업의 ESG활동

CDP 질의서

거버넌스

기후 관련 위험/기회 감독 책임 있는 이사회 설명	IFRS S2 – 6 (1)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평가, 관리하는 경영진 역할 설명	IFRS S2 – 6 (2)
기후 관련 이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 설명	IFRS S2 – 6 (1) IFRS S2 – 29 (7)

전략

단/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물리적 or 전환)위험/기회 설명	IFRS S2 – 10–14
기업의 사업, 전략, 재무계획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설명	IFRS S2 – 15–21
2°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 및 사업모형의 회복탄력성 설명	IFRS S2 – 22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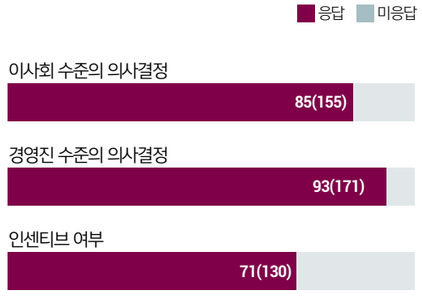
기후 관련 위험/기회 식별, 평가하는 프로세스 설명	IFRS S2 – 25 (1)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기회 관리하는 프로세스 설명	IFRS S2 – 25 (2)
기후 관련 위험/기회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전사적으로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	IFRS S2 – 25 (3)

지표 및 목표

기후관련 위험/기회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 공개	IFRS S2 – 29
Scope 1, Scope 2 및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IFRS S2 – 29
기후 관련 위험/기회 목표 설정, 검토 및 목표대비 성과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목표 설명	IFRS S2 – 3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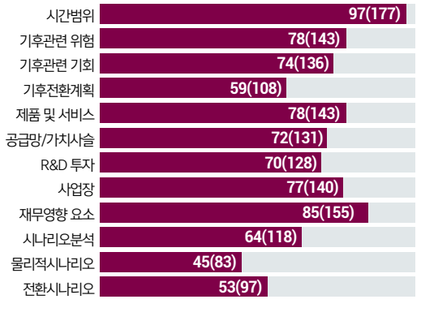
2023 CDP 응답한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관련 응답 현황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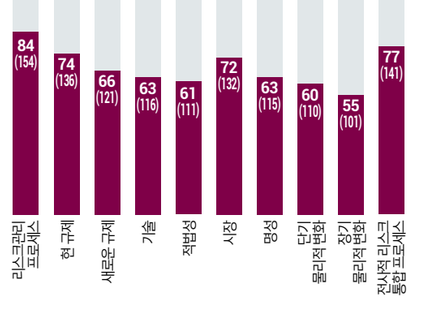
2023 CDP 응답한 국내 기업의 전략 관련 응답 현황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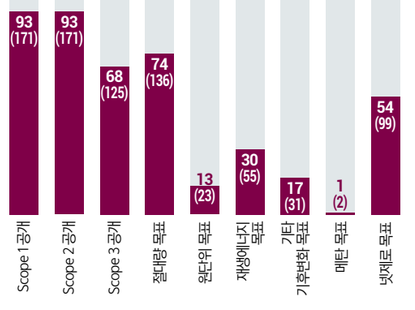
2023 CDP 응답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관리 관련 응답 현황

단위: % (기업 수)



2023 CDP 응답한 국내 기업의 지표 및 목표 관련 응답 현황

단위: % (기업 수)



수자원Water Security, 산림Forests, 플라스틱Plastics, 생물다양성Biodiversity,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program + α

기후 공시 기준

ISSB – IFRS S2
기후관련 공시 기준

EU CSRD –
EU지속가능성보고기준
(ESRS)

미국 SEC – 기후공시
지침(안)

:
:

CDP와 ESG 공시 제도와의 관계

1.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

- 2024 CDP 기후변화 질의서: IFRS S2 기후관련 공시 기준과 일치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 주요 내용 :
  1)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를 포함한 기업의 보고 의무 명시
  2) Scope 1, 2, 및 3 배출량을 포함한 위험 및 기회, 지표 및 목표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 보고

CDP 질의서 = TCFD권고안 = IFRS S2 기후 공시 기준

2. EU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 EU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과의 연계 방안 검토
- 기존 CDP 질의서와 ESRS 항목 일부 일치
- EU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주요 내용: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대기업 및 일부 예외를 제외한 상장기업은 ESRS 적용하여 ESG 정보 공개

3.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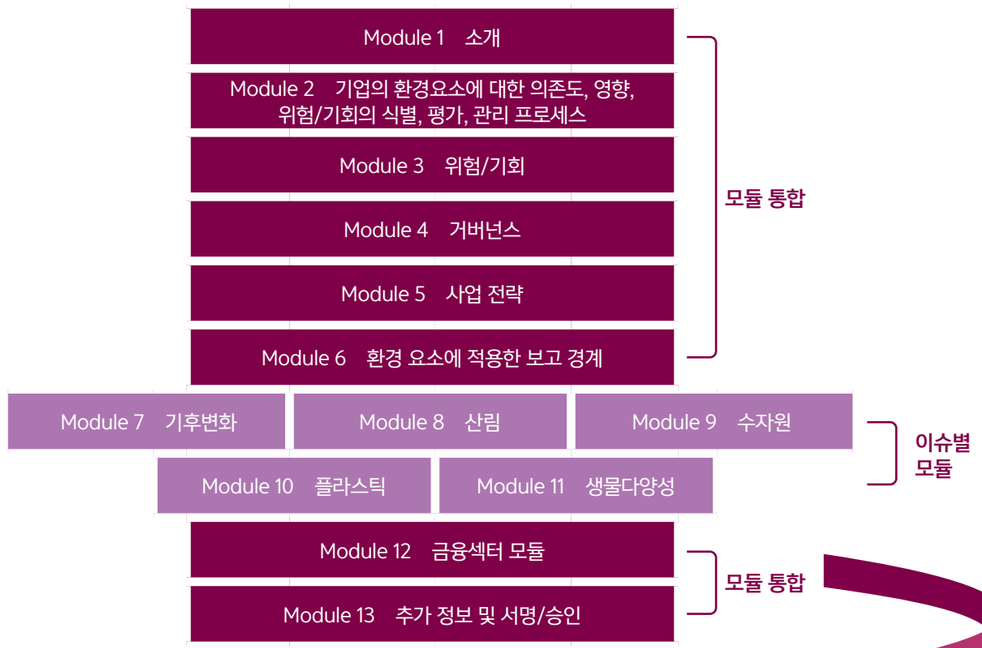
-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NFD)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예정
- 기존 CDP 질의서와 TNFD 프레임워크 항목 일부 일치
- TNFD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
  1) 자연 관련 위험/기회, 자연/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 및 영향
  2)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영향관리, 지표 및 목표
  3) 의사결정 시,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접근법

(기반) TCFD권고안 ➡ TNFD 프레임워크 ➡ (부분 일치) CDP 질의서

4. 미국 SEC의 기후 공시 지침(안)

- 미국 SEC의 기후공시지침(안)과의 일치여부 검토
- 미국 SEC, 기후공시지침 2024년 3월 최종 통과
- 기후공시지침(안) 주요 내용:
  1) 기후 리스크 관리를 이사회 및 경영진의 중요 책임으로 규정
  2)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위험 식별하고, 사업전략 및 재무계획에 반영 요구
  3) 연결 종속회사까지 Scope 1, 2 배출량 공시·검증 및 제한적으로 Scope 3 배출량 공시 요구(Scope 3 배출량 공시는 최종 기후공시 지침에서 제외됨)

2024 CDP 질의서 레이아웃 및 구조



Scope 3와 공급망 관리

Scope 3 배출량 현황[1]

글로벌/국내 Scope 3 배출량 비율

국내기업의 Scope 3 배출량은 Scope 1+2보다 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평균인 7배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국내 모두 전체 배출량에서 Scope 3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Scope 3 배출량은 기업이 구매한 원자재나 서비스 등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방 가치사슬 배출량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이후 발생하는 후방 가치사슬 배출량으로 나눈다. 전자는 공급망 기업의 배출량, 후자는 소비자의 제품 사용 단계 배출량이 대표적이다.

공급망의 규모가 클수록, 제품의 판매량이 많을수록 Scope 3 배출량도 따라서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생산하는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이 에너지 사용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Scope 3 배출량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크다. Scope 3 배출은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공급망이나 소비자 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소유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Scope 1이나 2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도 낮다.

그렇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리스크 수준도 낮은 것은 아니다. 탄소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공급망을 통한 Scope 3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구매비용이 올라간다. 반대로 사용단계 Scope 3 배출량이 높은 기업은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높아진 탄소가격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은 사용단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제품의 구매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의 환경 책임보다는 미래 재무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투자자들이 Scope 3 배출량의 산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 기업들이 응답한 각 Scope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유틸리티 섹터는 산업 특성상 제조업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어 제외하였음

주요 지역별 배출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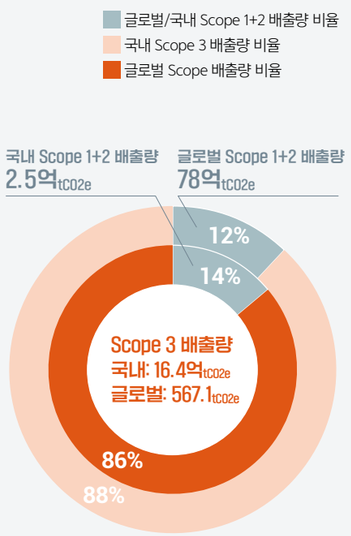
아시아는 Scope 1+2, 유럽은 Scope 3 배출량

주요 지역별 배출량 현황을 보면, 운영배출량(Scope 1+2)은 아시아가 28.9억 tCO2e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북미 24.7억 tCO2e, 유럽 15.6억 tCO2e 순이었다. Scope 3 배출량은 반대로, 유럽이 252.2억 tCO2e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 141.3억 tCO2e 그리고 북미 139.5억 tCO2e 이었다.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에게로 향하는 글로벌 무역 흐름과 유사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의 운영배출량이 10.2억 tCO2e이었고, 다음으로는 일본(5.9억 tCO2e), 인도(3.9억 tCO2e), 대한민국(2.5억 tCO2e)순이었다. Scope 3 배출량은 대한민국이 16.4억 tCO2e으로 일본의 91.2억 tCO2e에 이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Scope 3 배출량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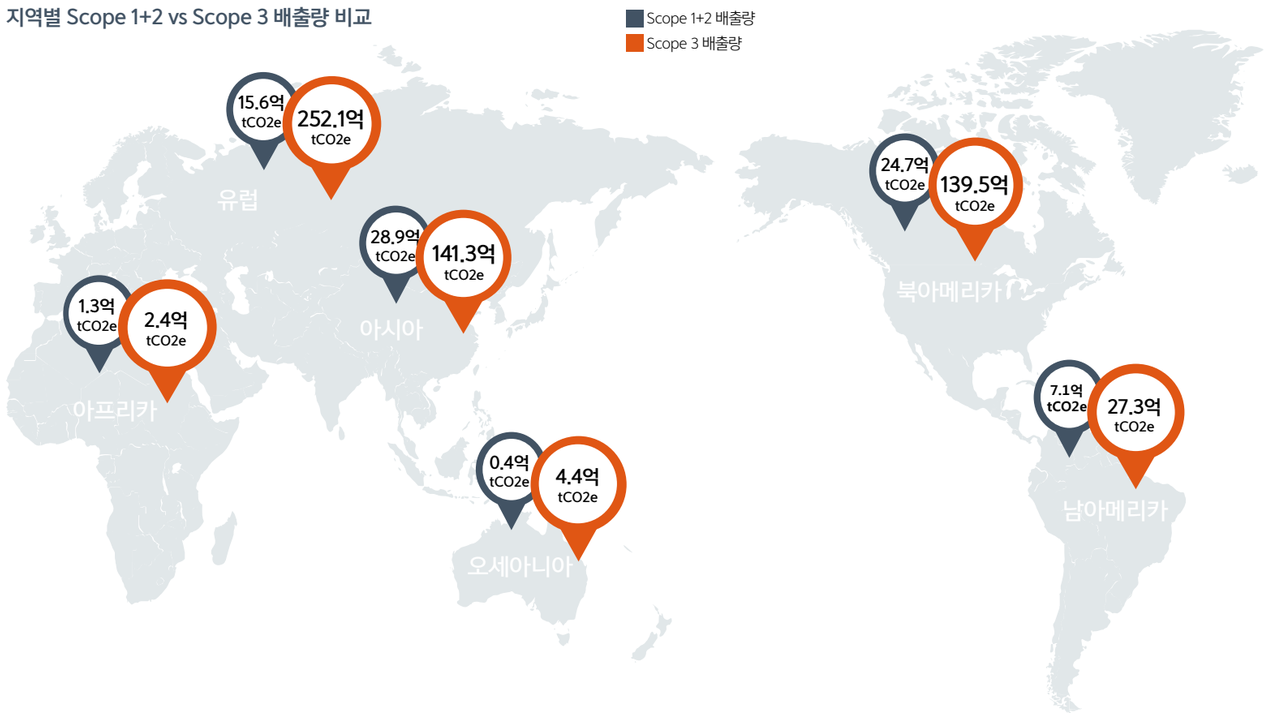
국내 산업별 Scope 3 배출량 비율

국내 Scope 3 배출량 비율을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금융 섹터가 99.8%로 가장 높은 Scope 3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선택소비재, 산업재 섹터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원자재 섹터는 36.5%로 가장 낮은 Scope 3 배출량 비율을 보였다. 다만 이들 섹터의 경우도, 절대적인 Scope 3 배출량의 규모가 낮은 것이 아니라, 금융이나 선택소비재 섹터에 비해 Scope 1+2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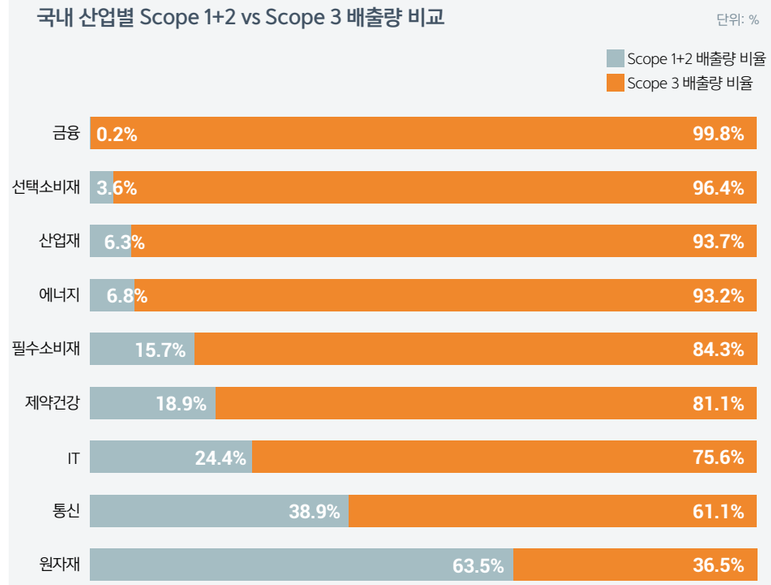
Scope 1+2 vs Scope 3 배출량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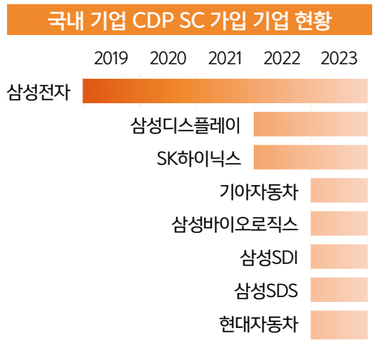


지역별 Scope 1+2 vs Scope 3 배출량 비교



국내 산업별 Scope 1+2 vs Scope 3 배출량 비교





Scope 3 관리의 핵심 – 공급망 관리

국내 산업별 업스트림 배출량[1]과 공급망 관리 트렌드

2023년 국내 업스트림 배출량은 2.3억 tCO2e이었고, 섹터별로 산업재(24%), 선택소비재(23%) 순이었다[2]. 제조업 기반인 국내 산업 특성이 업스트림 배출량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업스트림 배출량이 높다는 것은 향후 탄소가격이 올라갈 경우, 공급망 전반에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망 관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리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궁극적으로 협력사(공급망 기업)에게 공급받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CSDD에서도 규제 대상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인권 위험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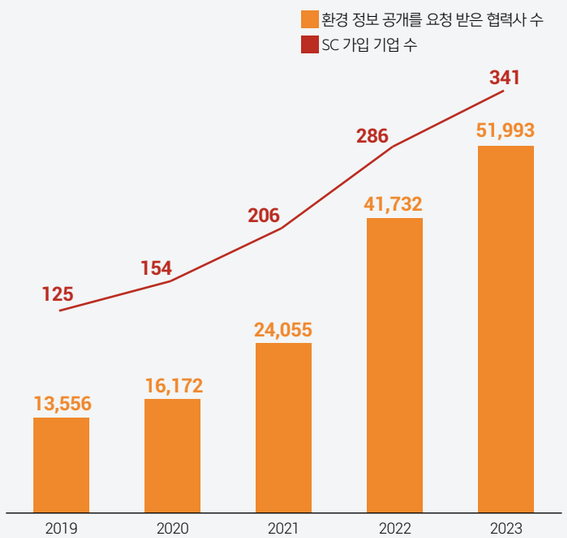
최근 CDP의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인 CDP Supply Chain(SC) 가입 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CDP SC에 가입한 회원사 수는 341개 사로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CDP SC 회원사로부터 환경정보 공개 요청을 받고 있는 협력사의 수도 2023년 5만 개를 넘어섰다.

국내 기업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5개 기업이 신규로 CDP SC 플랫폼을 통해 공급망 관리를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관리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국내 CDP SC 가입 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Scope 3 카테고리 15개 가운데 공급망과 관련된 1번부터 8번까지의 Scope 3 카테고리의 배출량을 의미
2. 유틸리티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어 총 업스트림 배출량에서 제외

국내 산업별 Scope 3 업스트림 배출량 규모[2]

글로벌 SC 멤버 기업 및 정보공개 대상 협력사



국내 기업의 Scope 3 업스트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현황

Scope 3의 전체 카테고리 가운데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8개 카테고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현황을 보면, 1번 카테고리인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업스트림 온실가스 배출량[1] 2.3억 tCO2e 가운데 약 7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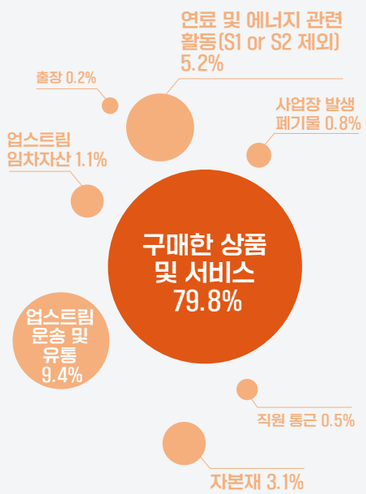
Scope 3 배출량은 구매한 상품의 수량과 제품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해서 계산한다.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자료에 기반해서 만든 평균배출계수(2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과 협력사로부터 직접 확보한 배출량 데이터(1차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Scope 3의 1번 카테고리 배출량 산정시 협력사로부터 직접 확보한 1차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한 기업은 24.3% 수준으로, 대다수 기업은 2차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데이터 확보는 기업이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공급망 관련 규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협력사가 위치한 지역, 생산 제품(고탄소 제품) 등에 따라 노출된 환경 리스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사별 적합한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균데이터의 사용보다는 협력사로부터 직접 받은 1차 데이터 사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기후공시기준(S2)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할 때, 1차 데이터 사용여부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가치사슬 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잘 대변하는 1차 데이터의 사용을 우선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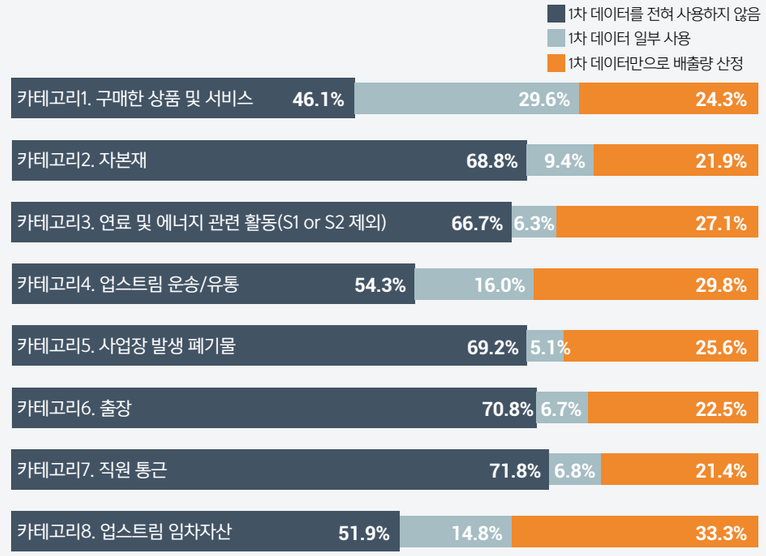
1. 유틸리티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어 Scope 3 업스트림 배출량에서 제외
2. IFRS S2 한국회계기준원(국문번역) 부록B. 적용지침

국내 기업의 Scope 3 업스트림 배출량 중 카테고리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국내 기업의 Scope 3 업스트림 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 시 1차 데이터 활용 비율

단위: %



국내 기업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1] 현황

2023년 CDP에 응답한 국내 기업의 55%[2]가 공급망 관련 인게이지먼트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유형은 크게 협력사로부터 기후관련 '정보수집', 협력사의 변화를 유도하는 '인게이지먼트&인센티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협력' 3가지 유형[3]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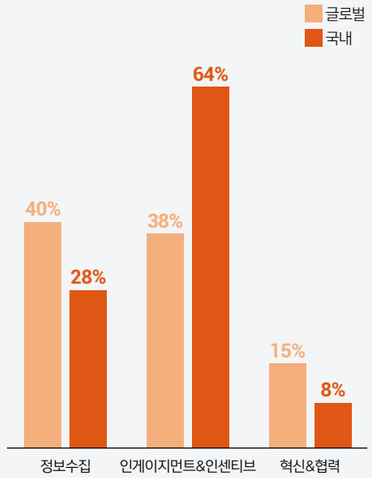
3가지 인게이지먼트 유형은 각각을 개별적인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유형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로 볼 수 있다. 공급망 기업으로부터 1차 데이터를 확보(정보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별 효율적인 목표를 수립 및 이행(인게이지먼트&인센티브)하고 최종적으로 협력사와 협업하여 혁신(혁신&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저탄소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단계별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프로세스이다.

2023년 CDP에 응답한 글로벌과 국내기업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응답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공급망 기업의 행동변화를 위한 '인게이지먼트&인센티브' 유형이 '정보수집'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의 비율이 높은 것 자체는 협력사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고객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 유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고객사의 '인게이지먼트&인센티브' 전략이 협력사의 구체적인 환경 영향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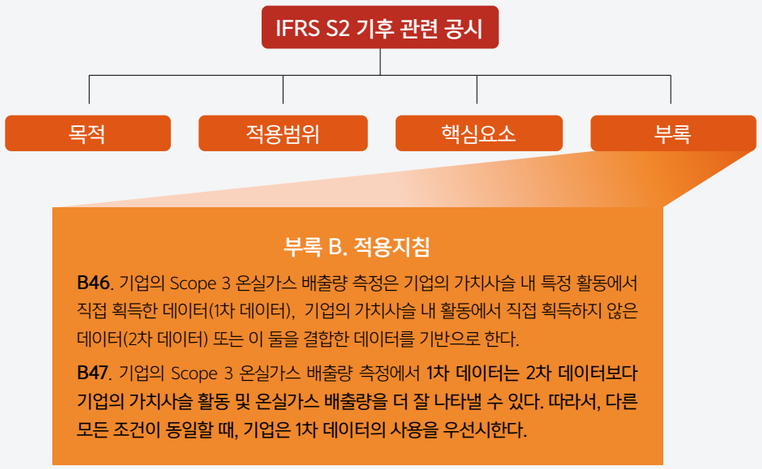
공급망 기업의 환경 영향 개선 전략 수립의 첫 단계는 협력사의 직접 데이터 확보이다. 협력사로부터 직접 획득한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야 인게이지먼트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1. 공급망 인게이지먼트는 고객사가 공급망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관여활동을 의미
2. 2023년 CDP에 응답한 고객사 데이터 사용
3. 인게이지먼트 유형 응답 시 중복 선택 가능, 기타항목 제외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유형[3]



IFRS S2 한국회계기준원(국문 번역) 부록 B. 적용지침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Tool

CDP Supply Chain(SC) 프로그램

CDP SC 프로그램은 기업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궁극적으로 고객사와 협력사의 협업을 통한 저탄소 경제 체제 전환을 목표로 만들어진 CDP의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이다. CDP SC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사는 CDP의 환경 정보 공개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력사에게 환경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고객사의 요청으로 협력사가 CDP SC에 응답하게 되면, 고객사는 협력사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및 고객사향(向) 배출량[1], 환경영향 개선목표 및 이행현황 등 협력사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1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CDP SC 프로그램은 협력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한다. 고객사는 이를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전략 및 목표수립과 더불어 이행 현황에 대한 트랙킹(Tracking) 등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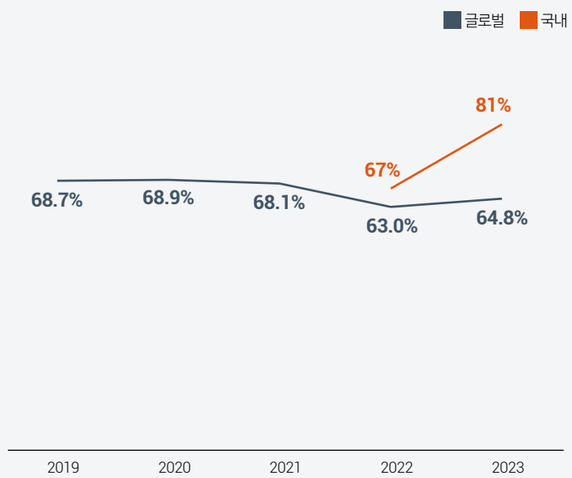
협력사 평균 응답률[2]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황

국내 CDP SC에 가입한 고객사들의 협력사 평균 응답률은 81%였다. 전년의 67% 대비 14% 상승했다. 글로벌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5개 국내 기업이 신규로 CDP SC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CDP 응답 요청을 받은 협력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상승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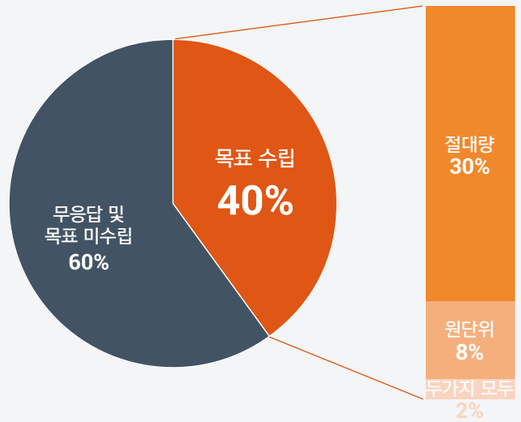
2023년 CDP SC에 응답한 국내 협력사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비율은 40%였다. 공급망 기업에 중견,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고객사의 우려와 달리 CDP SC를 통해 응답 요청을 받은 공급망 기업들은 고객사의 인게이지먼트 활동으로 온실가스 및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협력사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CDP SC프록램에 가입한 고객사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분하여 응답한 데이터
2. CDP SC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사로부터 CDP SC 응답요청을 받은 협력사 가운데 응답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한 협력사 비율의 평균
3. 2023 CDP 응답한 국내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국내외 SC 멤버 기업의 협력사 평균 응답률[2]



국내 공급망 기업의 감축목표 수립 비율[3]



공급망 관리 주요 이슈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해당 지침은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및 인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에 관한 실사를 진행하여, 관련 위험을 식별·예방·완화·제거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사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보고(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사 범위에는 기업의 조직경계 외부에 있는 공급망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인권 위험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2023년 12월 14일 EU 의회와 이사회는 지침에 대하여 잠정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지침을 구성할 최종 문안을 승인하기 위한 기술 회의가 올해 3월경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의 적용 대상 기업에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대부분의 대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중소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인권 관련 문제보다는 환경 영향 개선에 대한 것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역내보다 탄소배출 비용을 적게 지불하는 지역에서 물품을 들여온 수입업자는 탄소세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인증서의 가격은 EU 탄소배출권 시장(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수입품 원산지의 배출권 가격의 차액이 될 예정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일수록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이다. 복합재의 경우, 모든 원재료 및 중간재 등 생산에 투입된 물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 전 단계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수반되어야 수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시범 운영 중이며, 시범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실제 비용이 부과된다. 또한, 현재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가 초기 대상 품목이지만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2026년	2026년 – 2034년
전환 기간	**전환 기간 종료 이후**	**완전 시행**
◥ 수출기업의 분기별 탄소배출량 정보 보고의무만 존재 ◥ 제한적인 대상 품목	◥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의무 발생 ◥ 대상 품목의 점진적 확대 ◥ EU ETS 무상할당 점진적 폐지	◥ 적용 대상 품목을 EU ETS 전체로 확대 ◥ EU ETS 무상할당 폐지

국내 기업의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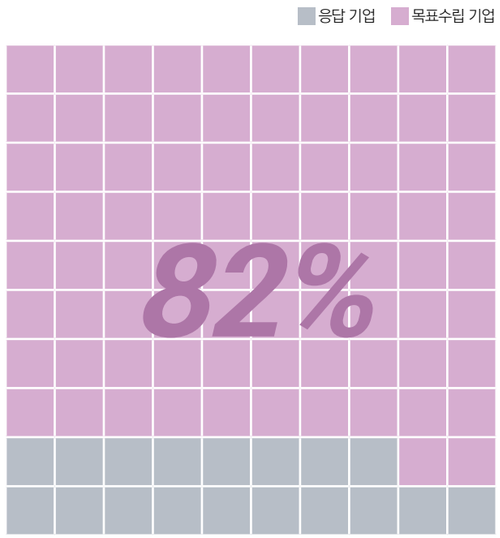
감축목표 수립 수준

국내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다고 보고한 기업은 150개(82%)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기업의 감축목표는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기업은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를 모두 수립하거나 둘 중 하나의 목표만을 수립할 수 있다. 목표 유형별로 보면, 절대량 목표만 수립한 기업은 127개, 원단위 목표만 수립한 기업은 14개이며,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를 모두 수립한 기업은 9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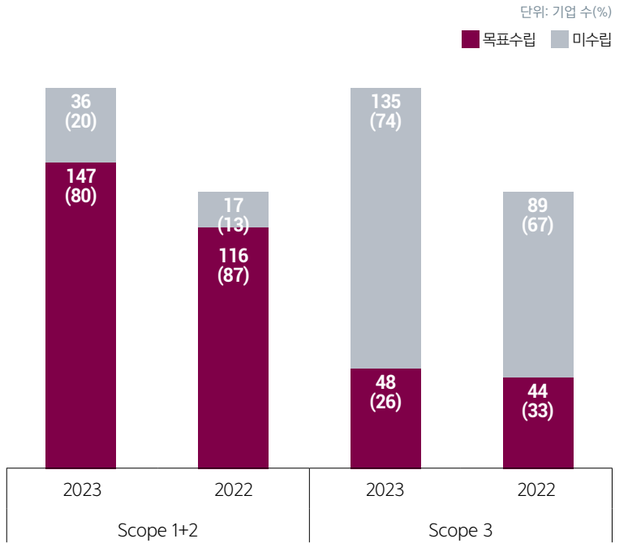
Scope 1+2 배출량을 산정한 기업은 167개이며, 그 가운데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88% (147개)이다. 전년 대비 27%(31개) 증가했다. 배출량을 산정한 기업 가운데 80%(134개)가 절대량 감축목표를 보고했다. 한국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달성을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배출 허용량 할당과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Scope 1+2 감축목표를 수립한 국내 기업 가운데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은 81%(108개)로 나타났다. Scope 1+2 원단위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21개이며, 그 중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를 모두 수립한 기업은 8개이다.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한 125개 기업 가운데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48개(38%)이다. 배출량 산정 기업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으나,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9%(4개) 증가했다. 목표유형별로 보면, 절대량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45개이며, 원단위 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4개이다. Scope 3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Scope 1+2에 비해 약 3배가량 적다. 이는 Scope 3는 Scope 1+2와는 달리 배출량 산정과 목표설정 및 달성 방법 등과 같은 어려움 때문에 아직 Scope 3 목표를 수립하는 기업들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응답기업 대비 목표수립 기업 비중



연도별 응답기업 대비 Scope 1+2 vs Scope 3 감축목표 수립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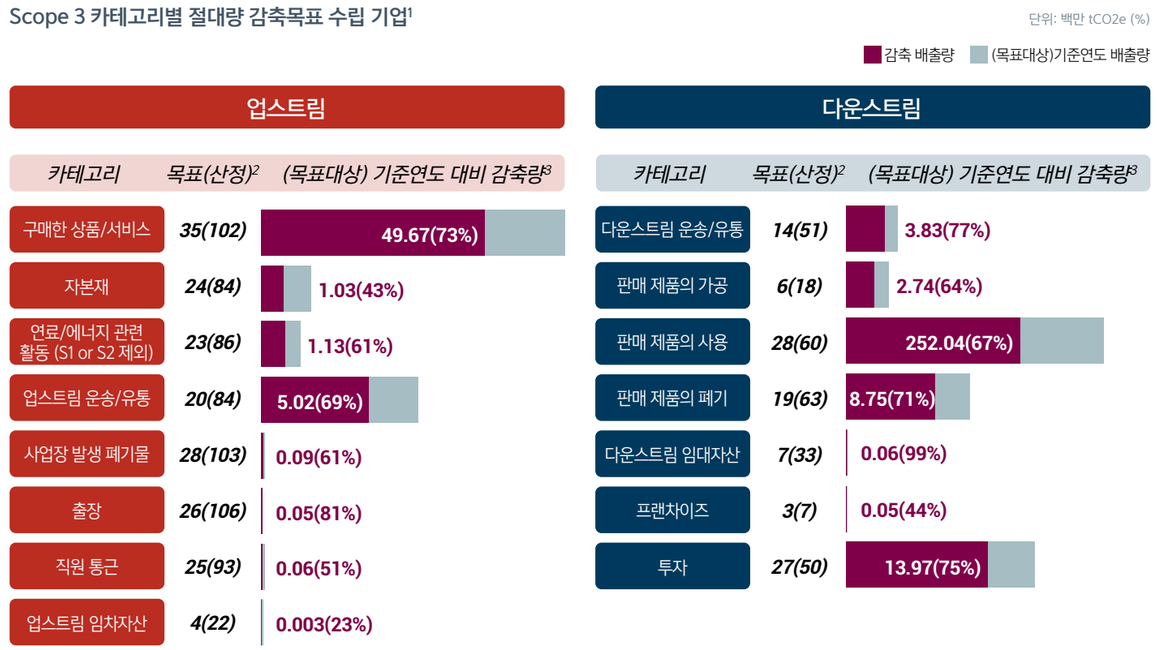
Scope 3의 15개 카테고리 가운데 기업이 감축목표를 수립하는데 사용한 카테고리 수는 평균 7.2개로 나타났다. 그 중 목표 수립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카테고리는 구매한 상품/서비스(35개), 사업장 발생 폐기물(28개), 판매 제품의 사용(28개) 순이었다. 다운스트림의 판매 제품의 사용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Scope 3 배출량의 감축목표는 산정과 마찬가지로 공급망과 관련된 업스트림 카테고리에 대한 목표 수립 비중(64%)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보고한 Scope 3 절대량 감축목표의 감축 배출량은 전체 Scope 3 배출량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연도 배출량에서 목표연도까지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이 많은 카테고리는 판매 제품의 사용(74%, 252백만 tCO2e), 구매한 상품/서비스(15%, 50백만 tCO2e)), 투자(4%, 14백만 tCO2e))이다. 목표를 포함한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보고연도에 감축량이 많은 카테고리는 판매 제품의 사용(55%), 투자(9%), 다운스트림 운송/유통(9%)이다. 배출량 산정과 목표수립과는 달리 감축량에 대해서는 다운스트림이 비중이 전체의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목표 기간을 비교하게 되면, 2030년 이전까지의 목표를 단기목표로, 2050년 이전까지의 목표를 장기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Scope 1+2 절대량 감축목표에서 단기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110개, 장기 목표는 78개 기업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Scope 3의 경우, 단기와 장기목표 모두 각각 26개의 기업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Scope 3 원단위 감축목표 수립기업은 4개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2. 감축목표 수립 기업 수 (배출량 산정 기업 수)
3. 감축목표가 포함된 기준연도 배출량 규모 대비 기업이 기준연도 대비 감축하기로 한 배출량 규모

Scope 3 카테고리별 절대량 감축목표 수립 기업[1]



감축목표 이행 수준

기업이 수립한 Scope 1+2 절대량 감축목표는 전체 Scope 1+2 배출량의 69%를 차지한다. 기업의 절대량 감축목표의 평균 감축률은 단기 목표 31%, 장기 목표는 99%이다. 단기 목표 감축률의 경우, 국내의 NDC 감축목표(40%) 보다 낮게 나타났다. Scope 3 감축목표는 단기 평균 감축률은 34%인 반면, 장기는 74%이다.

2023 CDP를 통해 절대량 감축목표를 수립한 국내 기업의 Scope 1+2 감축목표의 이행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단기목표 이행률: 80.3%, 장기목표 이행률: 25.3%). 이 중 유틸리티 섹터의 감축률과 이행률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이행률 평균값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틸리티 섹터 기업을 제외한 Scope 1+2 배출량의 감축률은 단기 목표는 20%, 장기목표는 99%로 나타났다. 기준연도 대비 목표 달성률을 보면 Scope 1+2 단기 이행률은 47.8%로 나타났으며, 장기목표는 10.9%이다. 기업별 이행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이행 수준이 20% 이하인 기업이 장/단기 모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단기: 57%, 장기: 79%).

2030년 이전까지 Scope 3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의 기준연도 대비 목표 이행률은 14.38%이며, 2050년 이전까지는 9.24%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20% 이하로 이행률을 달성한 기업은 전체의 65%이다. Scope 3는 Scope 1+2와는 달리 아직 준비 단계로 이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1. 유틸리티 섹터 기업의 감축목표 제외

Scope 1+2 절대량 감축목표 이행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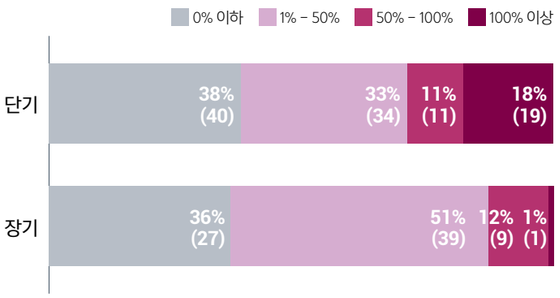
	목표수립 기업	기준연도 대비 평균 감축률	기준연도 대비 평균 이행률
단기 목표	104	19.6%	47.84%
장기 목표	76	98.6%	10.92%

Scope 3 절대량 감축목표 이행 현황

	목표수립 기업	기준연도 대비 평균 감축률	기준연도 대비 평균 이행률
단기 목표	26	34.3%	14.38%
장기 목표	26	74.4%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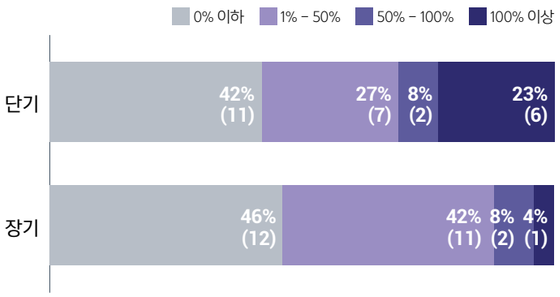
기업별 Scope 1+2 절대량 감축목표 이행 현황[1]

단위 : %(기업수)



기업별 Scope 3 절대량 감축목표 이행 현황

단위 : %(기업수)



SBTi 넷제로 기준

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BTi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달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이다. SBTi는 기업의 과학기반 목표 설정을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SBTi 기준:** 기업의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 **SBTi 넷제로 기준:** SBTi 기준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SBTi 넷제로 기준은 SBTi 기준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SBTi 넷제로 기준을 수립하면 자동으로 SBTi 기준도 수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SBTi 넷제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구적으로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목표를 통해 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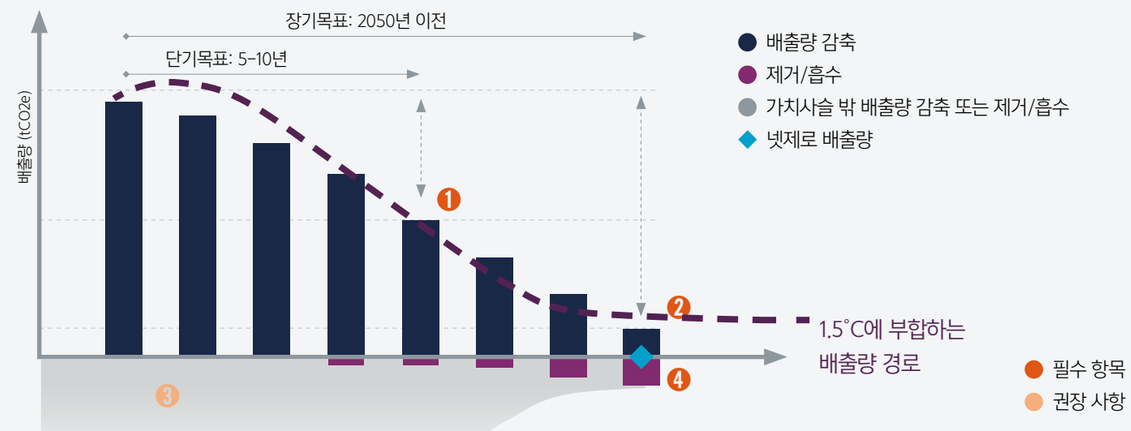
- **단기 목표:** 5~10년 후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감축 (2030년 목표)
- **장기 목표:** 2050년 이전에 넷제로 달성

SBTi 넷제로 목표는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잔여 배출량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거나 흡수하여 중립화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Scope 별 감축 목표:

- **Scope 1, Scope 2, Scope 3:** 기준연도 배출량의 95% 또는 90% 감축
- **Scope 3:** –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 기준연도 배출량의 67% 단기 감축목표,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below 2°C 감축
  – 섹터별 감축 잠재량 고려, 평균 연간 4% 이상 감축 요구

SBTi 넷제로 목표



❶ **단기목표 설정:** 2030년까지 Scope 1,2,3 배출량 절반 감축목표 설정 (2020년 대비 50% 감축)
❷ **장기목표 설정:** 2050년까지 잔여 배출량 영구 제거/흡수하여 넷제로 달성 (2020년 대비 90% 이상 감축)
❸ **가치사슬 밖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흡수:** 2050년까지 Scope 2 배출량 2°C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감축. 공급망 협력, 고객 인게이지먼트 감축
❹ **잔여 배출량 중립화:** 넷제로 달성을 위해 감축(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저탄소 기술 도입, 공급망 협력 등) 및 상쇄(탄소 배출권 거래, 녹색 프리미엄, 산림 재생, 바이오매스 활용 등) 노력

SBTi 넷제로 기준 요소:

-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 저탄소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배출량 감축
- **제거/흡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산림 재생,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통해 잔여 배출량 제거하거나 흡수
- **상쇄:** 탄소 배출권 거래, 녹색 프리미엄 제품 판매 등을 통해 배출량 상쇄

감축목표 설정 방법:

- **절대량 감축 목표:** 기준연도 대비 목표연도 배출량 감축
- **원단위 감축 목표:** 매출액/생산량 대비 배출량 감축
- **재생 전력 감축 목표:** 재생 전력 사용 비율 증가
- **공급망/고객 인게이지먼트 목표:** 공급망/고객과 협력하여 배출량 감축

SBTi 참여 현황(2024년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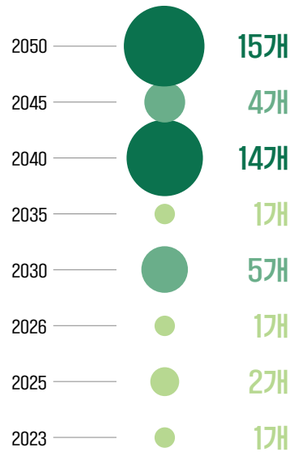
- **참여 기업:** 7,705개
- **목표 승인 기업:** 4,601개
- **참여/승인 기업 순위**
  - **참여:** 영국(1,155개), 미국 (957개), 일본(943개)
  - **승인:** 일본 (853개), 영국 (750개), 미국 (501개)
- **국내 기업 참여/승인 현황**
  - **참여:** 64개
  - **승인:** 33개 (넷제로 승인 4개 기업)

SBTi 넷제로 목표 기준

구분	배출량 범위	목표 범위	목표 수준	목표 기간	목표 설정 방법
단기 과학기반 감축목표	Scope 1 & 2	95%	1.5˚C	5-10 년	• (공통/섹터별) 절대량 감축 • (섹터별) 원단위 수렴 • 재생 전력
	Scope 3	총 배출량의 40% 이상인 경우, 67% 범위 적용	Well-below 2˚C		• (공통/섹터별) 절대량 감축 • (섹터별) 원단위 수렴 • 공급망/고객 인게이지먼트 • Scope 3 경제적 원단위 감축 • Scope 3 물리적 원단위 감축
장기 과학기반 감축목표	Scope 1 & 2	95%	1.5˚C	2050년 이전 (2040년: 전력 & 해상운송 섹터)	• (공통/섹터별) 절대량 감축 • (섹터별) 원단위 수렴 • 재생 전력
	Scope 3	90%			• (공통/섹터별) 절대량 감축 • (섹터별) 원단위 수렴 • Scope 3 경제적 원단위 감축 • Scope 3 물리적 원단위 감축

넷제로 이행수단, 재생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기업 목표연도 분포



넷제로 달성의 동력, 재생에너지 사용

2021년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9%[1]에 달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분야 배출량 감축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업들은 CDP 응답을 통해 에너지 사용 내역(총 전력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매년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이니셔티브의 연간 이행 보고도 CDP를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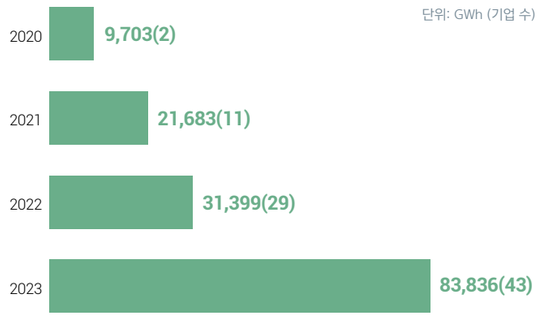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의 현주소 – 목표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수립했다고 응답한 국내 기업은 작년 29개에서 올해 43개로 늘어났다. 다만, 목표 수립 기업의 약 77%가 목표연도를 다소 늦은 편인 2040년 이후로 설정하였다.[2] 2023 CDP 응답 기업 중 재생에너지 100% 목표가 있는 기업이 보고한 전력사용량 합계는 작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83.8TWh에 달했다.[3] 이는 작년에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수립한 기업의 전력사용량이 약 28TWh 증가하고, 신규로 목표를 수립한 기업의 전력사용량 24.6TWh가 더해지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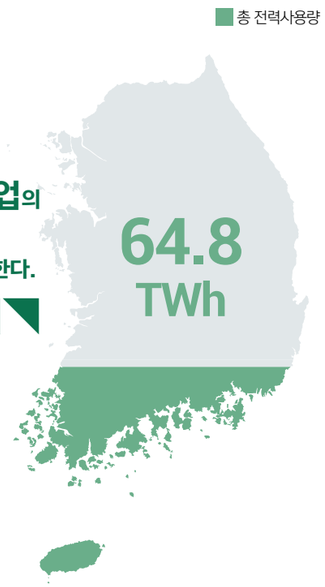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100% 목표 수립 기업의 총 전력사용량 중 약 77%에 달하는 64.8TWh가 국내 전력사용량에 해당된다. 이는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총 전력사용량 합계(568TWh)[4]의 약 11.4%에 달하는 수준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약속되었음을 의미한다.

1.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21), 2023.12.29.
2. 본 파트는 2023 CDP Climate Change 응답에 대해 투자자 요청을 받은 기업 가운데 Full version으로 응답하고 데이터를 공개한 국내 기업 대상으로 분석함
3. 본 파트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 열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 중 주로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지칭함
4. Statista, Electricity consumption worldwide in 2022, by leading country, 2024.2.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보유 기업의 총 전력사용량 (국내+해외사업장)



2023년 CDP에 응답한 국내 기업 중 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보유 기업의 연간 국내 전력소비량은 전체의 약 11.4%에 달한다.



글로벌 RE100 회원사 75개는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목표수립을 필수조건으로 제시

최근 재생에너지 사용 필요성은 공급망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사용 목표 수립을 계약 시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에서도 Scope 3 배출량 관리 등의 목적을 위해 국내 기업이 국내외 협력사에 요청하는 형태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내 협력사의 전력 수요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크게 증가해야 할 것이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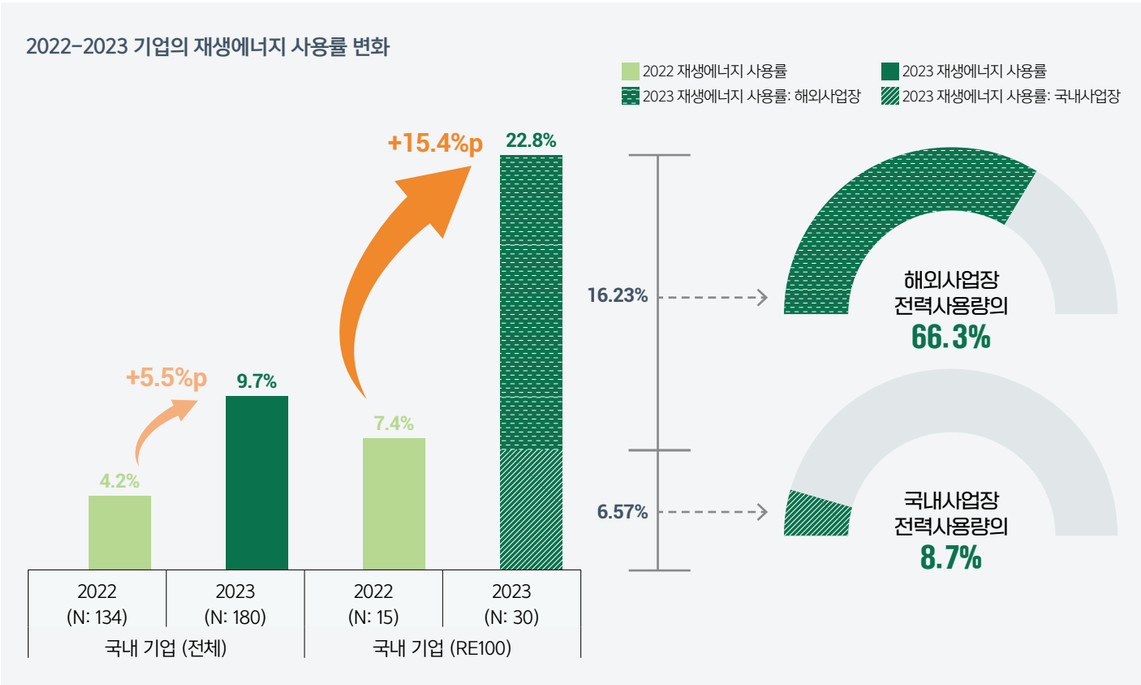
국내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의 현주소 – 이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고객사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023 CDP 응답에서는 작년 대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작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국내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5.5%p, 국내 응답 기업 중 RE100 기업의 경우 15.4%p 늘어났다.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는 고무적이나, 증가분의 대부분이 해외사업장에 집중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 CDP 응답에서 국내 RE100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해외사업장은 66.3%인 반면 국내사업장은 8.7%에 불과했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 추세는 해외 기업에 비하면 다소 느린 편이다. 동 기간 글로벌 RE100 회원사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50%에 달했다.[2] 국내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주로 국내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환은 국내사업장보다 해외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 확대와 함께 국내사업장의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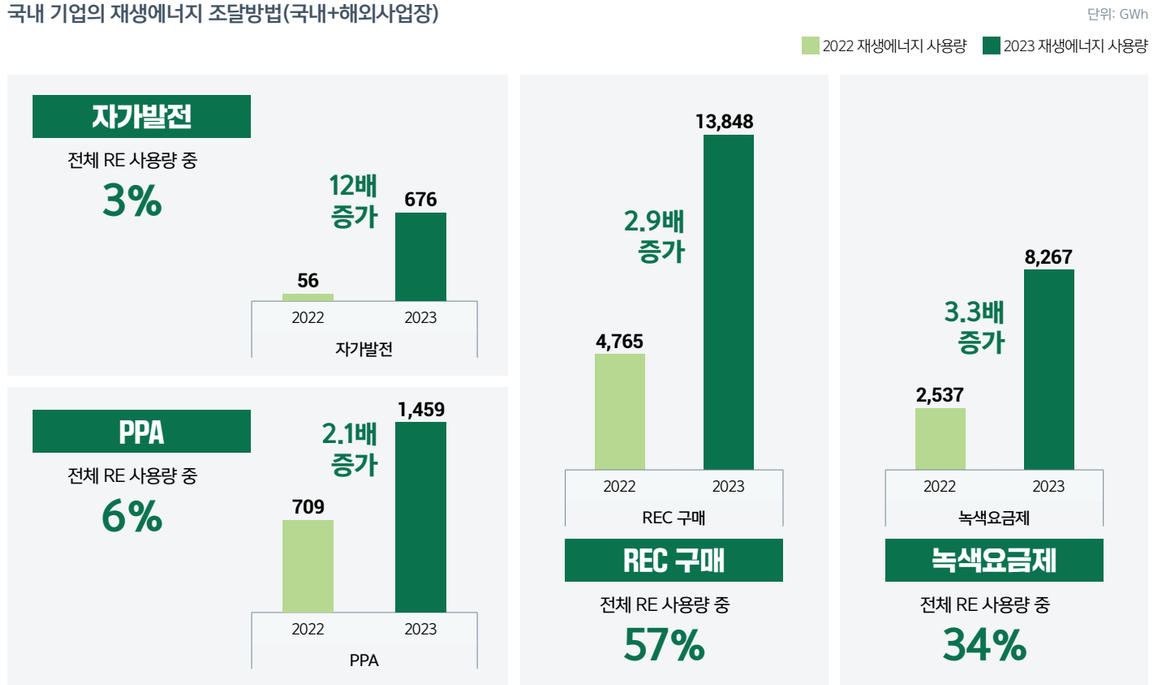
1. RE100 회원사인 현대자동차, 기아는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을 통해 약 360여 개의 협력사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2023 CDP 응답을 요청함
2.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자세히 보기: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

국내에서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국내 조달 제도에는 녹색요금제(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PPA(전력구매계약), 자가발전이 있으며, 모두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녹색요금제는 소비자가 기존 요금에 자발적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로 국내 녹색프리미엄이 이에 해당된다. REC 구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권리 소유를 의미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전력과 별도로 구매하여 조달하는 방법이다. PPA는 소비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접 PPA와 한국전력공사가 두 거래 주체 사이를 중개하는 제3자 PPA로 나뉜다. 자가발전은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2023 CDP 국내 응답 기업에 따르면 국내외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은 REC 구매(57%), 녹색요금제(3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사용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조달 방법은 자가발전(12배), 녹색요금제(3.3배)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 CDP 응답 중 주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인 '자가발전', 'PPA', 'REC 구매', '녹색요금제'를 기준으로 분석

국내 RE100 기업 브리프

* 본 브리프는 2023 CDP에 응답한 국내 RE100 기업을 기준으로 분석함.

2022-2023 국내 기업의 재생전력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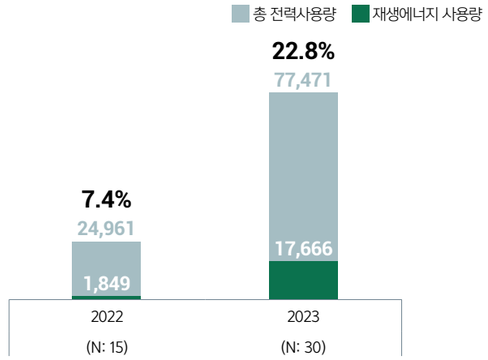
단위: GWh

응답연도	구분		CDP 응답 기업 (전체)		CDP 응답 기업 (RE100)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2022	기업수		134		15	
	총 전력사용량		152,241	40,469	20,068	4,892
	재생전력 사용량	자가발전	56		11	0
		PPA	0	709	0	230
		REC 구매	15	4,751	15	10
		녹색요금제	1,311	1,226	541	1,043
		소계	8,067		566	1,283
2023	기업수		180		30	
	총 전력사용량		223,535	27,180	58,505	18,966
	재생전력 사용량	자가발전	676		32	25
		PPA	16	1,443	16	123
		REC 구매	1,344	12,504	1,082	10,339
		녹색요금제	5,209	3,058	3,964	2,085
		소계	24,250		5,093	12,573

* '재생전력 사용량'은 2023 CDP 응답 중 주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인 '자가발전', 'PPA', 'REC 구매', '녹색요금제'를 기준으로 분석

국내 RE100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률 (국내+해외사업장)

단위: G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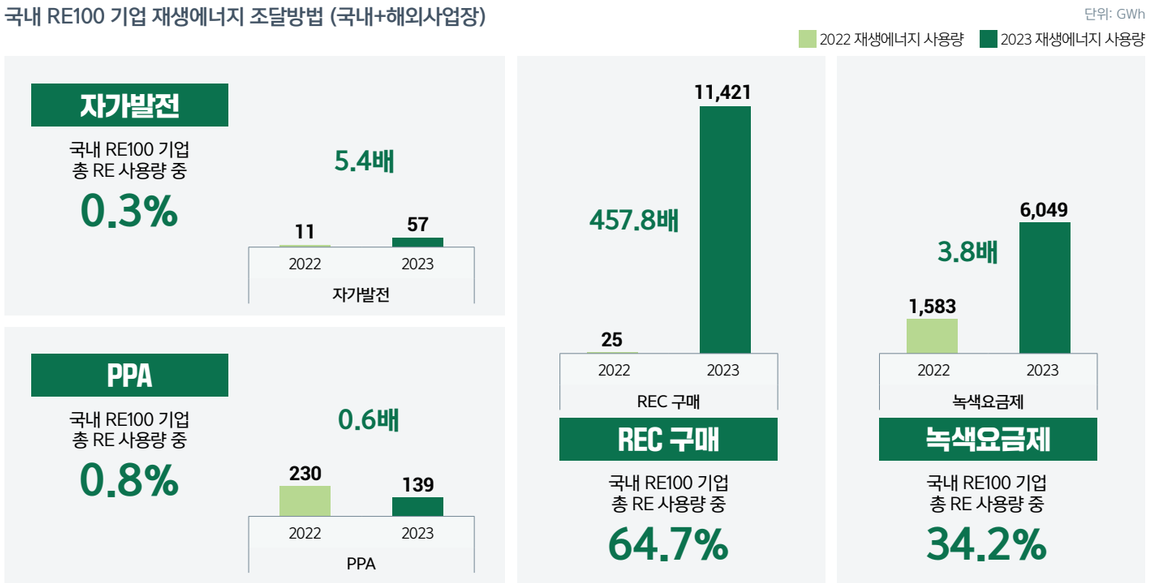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목표로 하는 기업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영국의 Climate Group, CDP가 2014년 발족하였다. 2023 CDP 응답에 따르면,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7.4%에서 22.8%로 약 15.4%p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RE100 기업의 해외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작년 대비 2023년에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 CDP 응답에서 국내 RE100 기업의 조달 방법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조달 방법은 REC 구매(64.7%), 녹색요금제(3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REC 구매는 457.8배, 녹색요금제는 3.8배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 RE100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방법 (국내+해외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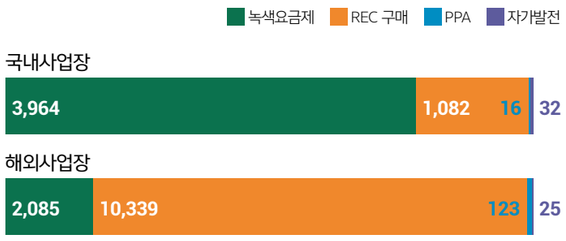
단위: GWh



*2023 CDP 응답 중 주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인 '자가발전', 'PPA', 'REC 구매', '녹색요금제'를 기준으로 분석

국내 RE100 기업 사업장별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

단위: GWh



*2023 CDP 응답 중 주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인 '자가발전', 'PPA', 'REC 구매', '녹색요금제'를 기준으로 분석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작년 대비 증가하며, 각 조달 방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RE100 기업이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사업장에서는 녹색요금제(3,964GWh)가 가장 많이 사용된 반면 해외사업장에서는 REC 구매(10,339GWh)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녹색프리미엄과 REC 구매의 경우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이를 고려할 때, 주로 전기요금 및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PPA를 통한 조달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RE100 기업 브리프

RE100 회원사 목표 이행 현황

	기업명	가입연월	목표연도	RE 이행률 (self-reported)	국내사업장 RE 이행률	해외사업장 RE 이행률
1	SK스페셜티	2020/12	2030	12%	5%	56%
2	SK(주)	2020/12	2040	10%	10%	해당없음
3	SKC	2020/12	2040	1%	산정불가	해당없음
4	SK실트론	2020/12	2040	20%	24%	해당없음
5	SK텔레콤	2020/12	2050	5%	5%	해당없음
6	SK하이닉스	2020/12	2050	30%	11%	100%
7	아모레퍼시픽	2021/3	2025	34%	29%	79%
8	LG에너지솔루션	2021/4	2030	57%	33%	62%
9	한국수자원공사	2021/4	2050	50%	50%	해당없음
10	미래에셋증권	2021/9	2025	0%	0%	0%
11	SK아이이테크놀로지	2021/9	2030	56%	100%	29%
12	KB금융그룹	2021/9	2040	1%	1%	해당없음
13	고려아연	2021/9	2050	0%	0%	해당없음
14	롯데칠성	2021/12	2040	0%	0%	해당없음
15	인천국제공항공사	2022/2	2040	미응답		
16	기아	2022/4	2040	4%	0%	20%
17	현대모비스	2022/4	2040	5%	0%	12%
18	현대위아	2022/4	2045	1%	0%	2%
19	현대자동차	2022/4	2045	7%	0%	19%
20	KT	2022/6	2050	0%	0%	해당없음
21	LG이노텍	2022/7	2030	22%	27%	0%
22	네이버	2022/8	2040	3%	3%	해당없음
23	삼성전자	2022/9	2050	31%	9%	97%
24	삼성SDS	2022/9	2050	0%	0%	해당없음
25	삼성디스플레이	2022/10	2050	21%	7%	100%
26	삼성SDI	2022/10	2050	9%	0%	15%
27	삼성바이오로직스	2022/11	2050	8%	8%	0%
28	삼성전기	2022/11	2050	0%	0%	1%
29	삼성생명	2023/3	2040	0%	0%	해당없음
30	삼성화재	2023/3	2040	1%	1%	해당없음
31	롯데웰푸드 (구 롯데제과)	2023/4	2040	0%	0%	해당없음
32	신한금융그룹	2023/5	2040	비대상		
33	카카오	2023/5	2040	비대상		
34	LG전자	2023/6	2050	비대상		
35	롯데케미칼	2023/7	2050	비대상		
36	HD현대사이트솔루션	2023/11	2040	비대상		
37	LS일렉트릭	2023/12	2040	비대상		

미응답: 2023년 RE100 이행보고 미응답 기업
비대상: 2023년 4월 이후 가입하여 2023년 RE100 이행보고 대상 아닌 기업
산정불가: 해당 사업장 전력사용량이 존재하나 필요 응답 데이터 부족으로 산정 불가한 기업
해당없음: 해당 사업장 전력사용량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

환경정보데이터의 신뢰성: 제3자 검증

CDP를 통해 Scope 1+2 배출량을 보고한 국내 171개 기업 가운데 제 3자 검증을 받은 기업으로는 Scope 1 배출량은 80%(136개), Scope 2 배출량은 76%(130개)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 21%, 18%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배출량 검증 의무가 있는 115개 기업 이외에도 52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검증을 받았다. 국내 기업의 Scope 1+2 검증 비율은 글로벌 평균 68%보다 10% 이상 높았다. 특히 Scope 2 배출량 검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EU나 중국과 달리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Scope 1뿐만 아니라 Scope 2 배출량을 포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cope 3 배출량 검증 현황

Scope 3 배출량을 산정・보고한 기업(125개) 중 제3자 검증을 받은 기업은 108개(86%)였다.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cope 3 15개 카테고리 가운데 검증을 받은 평균 카테고리 수는 7.6개였으며, 가장 많이 검증받은 카테고리는 구매한 상품/서비스(93개), 출장(91개), 사업장 발생 폐기물(86개), 직원 통근(80개) 순이었다. 배출량을 산정한 카테고리(평균 8.4개) 중 검증받은 비율은 74%였으며, 전체 Scope 3 배출량 대비 검증받은 배출량 비율은 68%였다.

Scope 3 배출량 산정과 마찬가지로 공급망과 관련된 업스트림 카테고리의 검증 비중이 높았다. 아직 Scope 3 배출량 산정 시스템이 고도화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용이한 공급망 관련 배출량을 우선적으로 산정 및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다운스트림 카테고리, 특히 평균 배출량이 높은 판매된 제품의 사용 카테고리의 배출량 산정과 검증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1. 데이터에서는 배출량을 산정한 기업 대비 검증한 기업을 분석함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비 제3자 검증 기업[1]

단위: 기업 수 (%)

	국내							글로벌					
	Scope 1		Scope 2		Scope 3			Scope 1		Scope 2		Scope 3	
	산정	검증	산정	검증	산정	검증		산정	검증	산정	검증	산정	검증
	130	112	128	110	102	79	2022	3,303	2,304	3,319	2,224	2,799	1,842
	83	79	82	75	76	57	2021	2,507	1,880	2,501	1,774	2,251	1,450

카테고리 15 투자의 산정 대비 검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자' 카테고리는 '금융배출량' 또는 '포트폴리오 배출량'으로도 불리는데,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수준을 확인하는 척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Stress Test)에 금융배출량을 반영하기도 했으며,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에서도 금융기관은 금융배출량을 세분화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넷제로은행연합, 넷제로보험연합 등 금융관련 넷제로 이니셔티브에서도 금융배출량을 포함한 넷제로 선언과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배출량의 신뢰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산정과 검증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DP에 보고한 국내 금융기관(12개) 가운데 금융배출량을 산정한 기관은 9개였으며, 이 가운데 검증을 받은 기관은 6개로 산정 대비 검증비율은 '투자' 배출량을 보고한 다른 섹터 기업에 비해서도 낮았다. 해외도 마찬가지였다. CDP에 응답한 405개 글로벌 금융기관 중 금융배출량 보고 기관은 257개(63%), 검증 진행 기관은 84개(33%)로 오히려 국내보다 낮았다.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농협과 우리금융그룹은 CDP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은 금융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모두 받았고, 하나금융그룹은 산정은 했으나 검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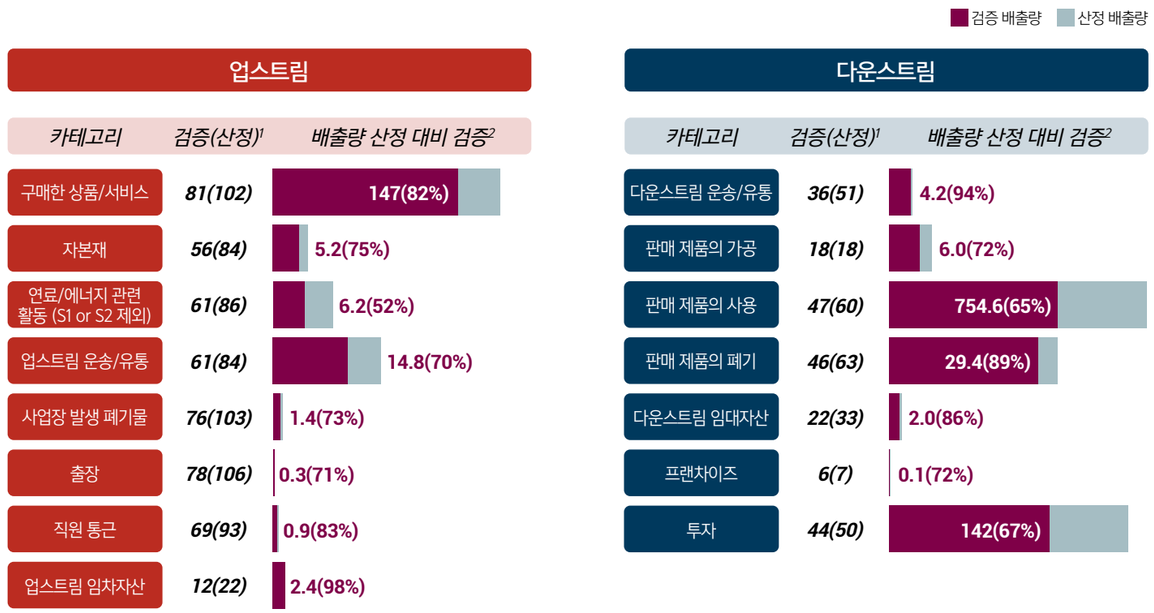
Scope별 검증 수준

검증 수준은 검증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IASE3000과 ISO14064-3과 같은 기준은 '합리적(Reasonable)'과 '제한적(Limited)'으로, AA1000과 AT105는 '높은(High)'과 '적절한(Moderate)'으로 검증 수준을 구분한다.

1. Scope 3 배출량 검증받은 기업 수 (Scope 3 배출량 산정 기업 수)
2. Scope 3 배출량 산정 규모 대비 검증한 Scope 3 배출량 규모

Scope 3 카테고리별 검증 기업 및 규모

단위: 백만 tCO2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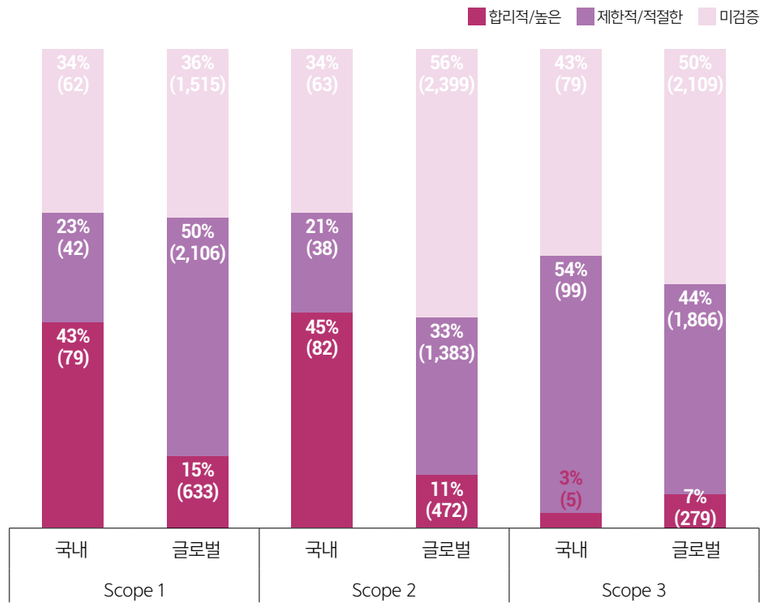
제한적/적절한 수준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합리적/높은 수준은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 가운데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지까지 추가로 확인한 후 적합성을 판단한다. 합리적/높은 수준은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해당 수준으로 진행할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검증받은 국내 기업은 각 66%로 전반적으로 글로벌(각 64%, 44%)보다 검증받은 기업 비율이 높으며, 합리적으로 검증한 기업 비율도 높다. 이는 검증한 기업의 62%가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기 때문이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법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기업 가운데 합리적 수준으로 검증받은 기업은 8%(6개), 제한적 수준은 64%(25개)였다. 국내는 Scope 1과 Scope 2 합리적 검증 비율이 비슷했으나, 글로벌은 Scope 2 배출량 검증받은 기업 수도 적었으며, 합리적 수준으로 검증받은 기업은 더 낮게 나타났다. 미국 EPA는 Scope 1과 Scope 2 배출량을 모두 보고해야 하지만 검증 자체는 의무가 아니다. 또한, EU 배출권거래제에서는 Scope 2 배출량을 보고 및 검증에 미포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Scope 3 배출량 검증은 국내외 모두 제한적 수준으로 진행했다(국내: 54%, 글로벌: 44%). Scope 3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진행하기에는 기업과 검증기관 모두 부담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vs 글로벌, Scope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수준 비율

단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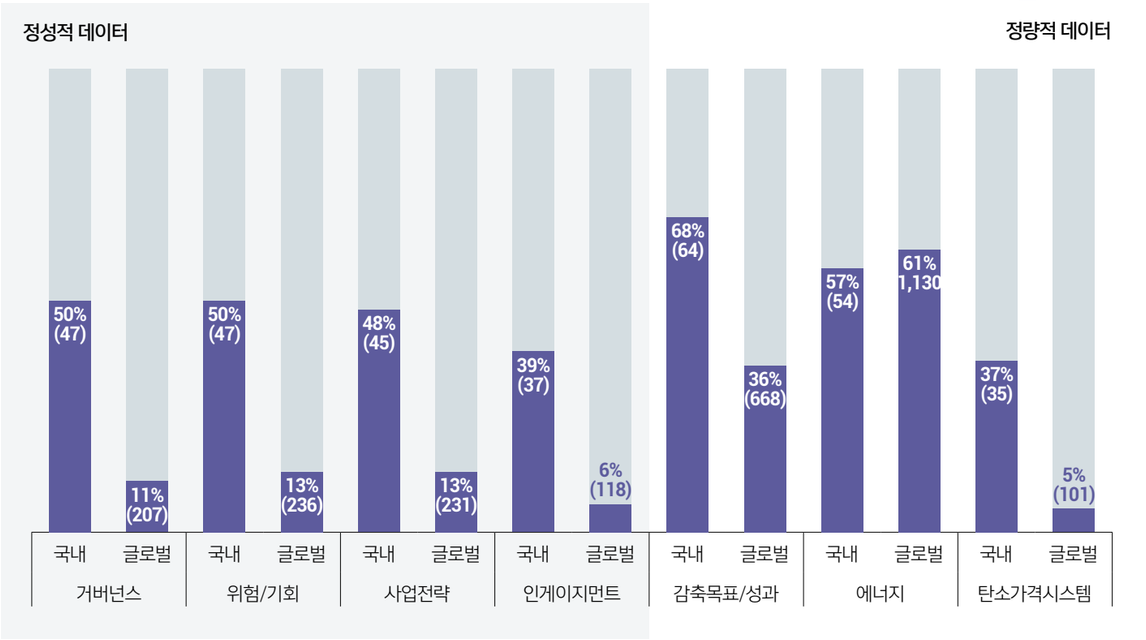
기타 데이터 검증

투자자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가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다. 누군가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 기업이 과거에 걸어온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계획 및 전략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이 기업의 과거와 현 상황을 보여준다면, 거버넌스 및 인센티브 체계,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략과 목표 등은 기업이 향후에 기후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이 때문에 최근 투자자들은 배출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공시체계에도 이러한 정성지표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94개(51%) 국내 기업은 Scope 1, 2 또는 3 배출량 이외에도 최소 하나 이상의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68%는 감축목표 및 이행성과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진행했으며,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사용량 관련 데이터를 검증한 기업도 57%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성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다. 응답 기업 중 절반가량이 거버넌스, 기후위험 및 기회 그리고 사업전략 관련 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했다. 글로벌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검증 부분에서는 글로벌 기업보다 앞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후공시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해외와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공시 준비 미흡을 이유로 기후공시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기후공시의무화 추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느린 수준이다.

배출량 이외 기타 기후관련 데이터 검증

단위: %(기업 수)



Water Security

KEY FINDINGS

105개
물 리스크 현실화

2023년 국내 기업이 식별한 물 리스크는 105개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다.

51%
숨겨진 물 리스크

CDP 응답 기업 중 물 리스크 평가를 진행한 기업은
전체의 51%에 지나지 않으며, 이중에서도 협력사의 물 리스크까지
파악한 기업은 51%에 지나지 않았다.

1조 2,605억
물 기회의 재무이익

국내 기업은 물 기회를 통해 최대 1조 2,605억 원의
잠재적 재무 이익이 있다고 보고했다.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물 정보공시 요구 증가

협력사가 물 관련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요구가
공급망 인게이지먼트에 포함됨에 따라
물 정보공시 부담이 공급망을 따라 확대되고 있다.

신규문항
CDP Water Security

2023년부터 CDP Water Security 질의서에
'수질' 문항이 추가되었다. 기업 내 유해물질 대응 및 관리를 위한
유관부서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물 리스크의 현실화

**수자원의 수량 및 수질은
기업의 직접 사업장, 공급망, 제품 사용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의류, 제약, 광업, 반도체 산업 물 영향 높아

수자원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CDP Water Watch에 따르면, 여러 산업 가운데서도 의류, 제약, 농산업, 광업, 반도체 등이 물과 관련된 영향이 가장 '결정적(Critical)'인 산업군으로 나타났다.[1]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태풍,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비는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넘어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 리스크는 기업의 직접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제품 사용단계를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제조공정에서 초순수 사용이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높은 수준의 수질과 안정적 물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대만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생산설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공급망을 통한 물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광업은 모든 공정에서 물이 필수적인데, 전 세계 주요 광산 및 매장지의 최소 16%가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적절한 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급망을 통해 전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은 기업의 물과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한정된 수자원의 분배를 두고 다른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물 관리 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모두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 CDP Water Watch는 13개의 산업 부문에서 200개 이상의 산업 사업활동을 수자원의 수량과 수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따라 순위를 매긴 툴임
https://www.cdp.net/en/investor/water-watch-cdp-water-impact-index
2. https://www.wri.org/insights/critical-minerals-mining-water-impacts

CDP Water Watch – 물 집약 산업 리스트

※ 산업 대분류가 아닌 세부 사업활동에 따라 'Water Impact'가 구분되며, 본 데이터는 물 영향이 '매우 결정적(Critical)' 산업의 사업활동만 수합하였음

1조
3,822억 원
국내 기업이 실제 경험한 물 부정적 재무영향

105개
국내 기업의 식별된 물 리스크

국내 기업의 물 리스크 증가

물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보고한 물 관련 피해액은 1조 3,8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50% 증가했다. 주된 이유는 포스코 힌남노 침수 피해였다. 물 리스크가 실제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물 공급 중단이나 침수 등은 곧바로 제조 설비의 가동 중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백년에 한 번 발생한다는 홍수와 가뭄 소식을 뉴스에서 듣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기업이 보고한 물 리스크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식별한 미래 물 리스크는 105개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88개, 공급망이나 고객 등 그 외 가치사슬 관련 리스크는 17개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장기 또는 단기 물리적 리스크가 가장 많았으며(각 38%, 33%), 규제(23%), 명성&시장(5%), 기술(1%)이 뒤를 이었다.

리스크의 세부 예측 전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 수준이 '크다(≥4)'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보고의 64%로 실제 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미치는 재무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발생 예측 시점은 '6년 이후(35%)'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나, '3년 이내' 응답이 38%에 달해 기업의 단기 리스크 대비가 시급해보인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66%)'으로 응답한 데이터가 전체의 51%를 차지해 국내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예측된다.

51%
국내 기업 중
물 리스크 평가 진행 기업

실제 물 리스크가 보고된 리스크보다 클 가능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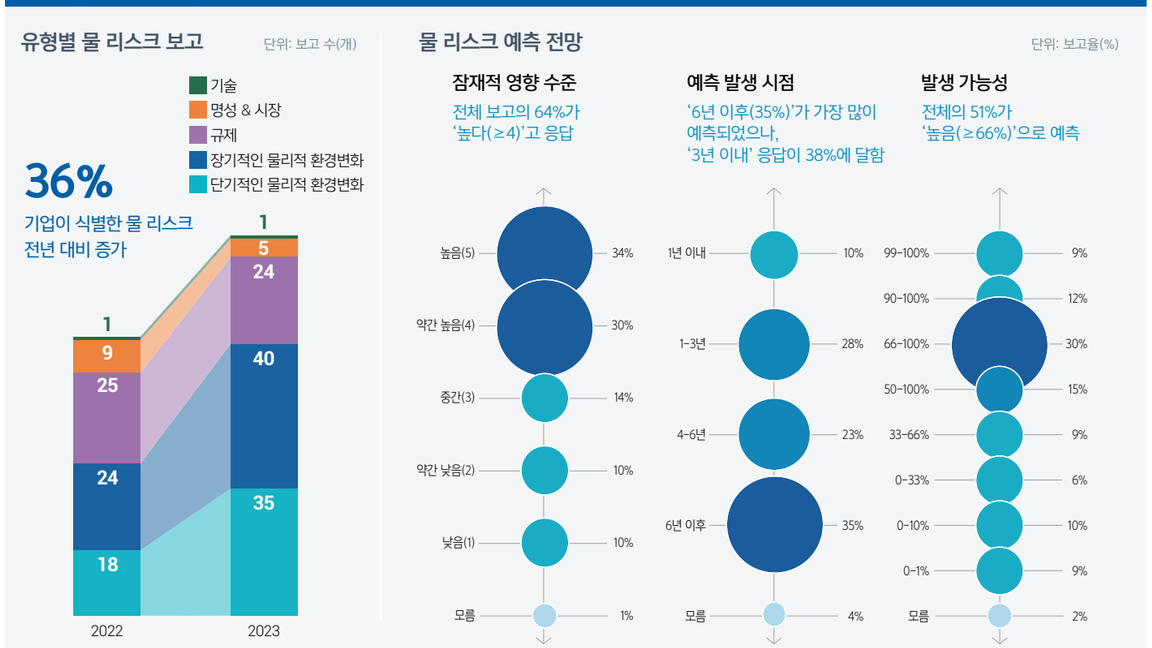
국내 기업의 물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관리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업의 물 리스크 노출 수준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물 리스크 파악을 위해 평가를 진행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51%)에 불과했다. 리스크 평가를 하지 않은 기업은 주된 이유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님,' '내부 자원 부족,' '사업장 관련 데이터 불충분' 등으로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를 진행한 기업 가운데 전후방 가치사슬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 기업은 하나밖에 없었으며, 전방 가치사슬(협력사)를 포함한 기업도 35개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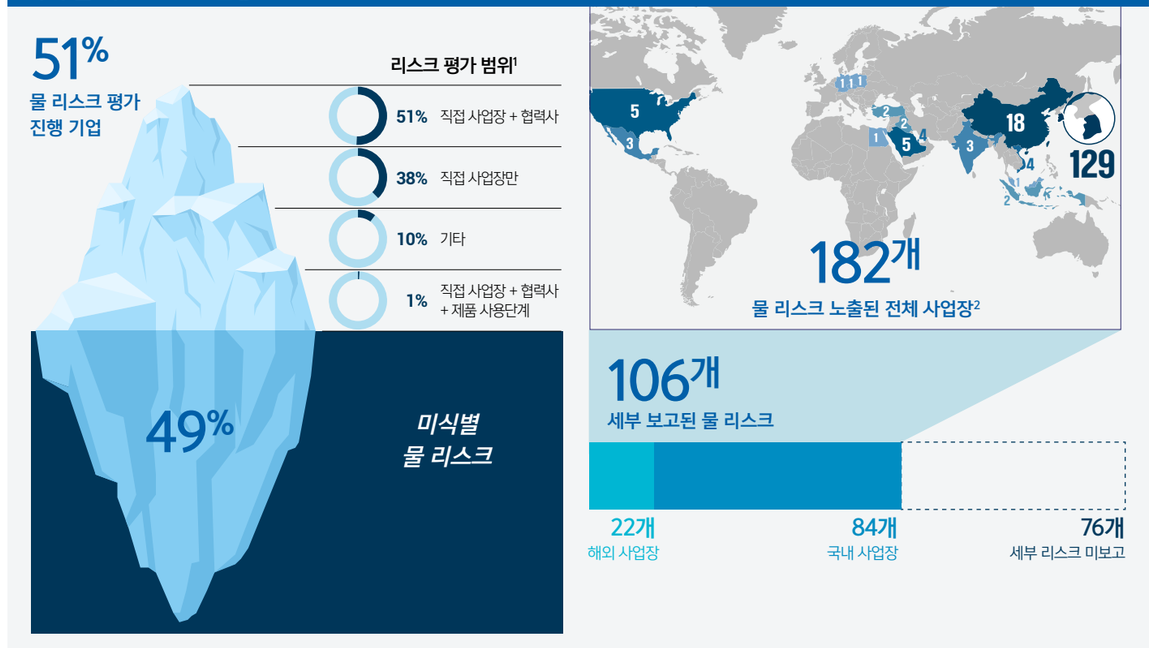
또한 물 리스크에 노출된 사업장 수는 전체 18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 가운데 보고된 세부 리스크는 106개로, 나머지 76개에 대해서는 리스크 유형, 잠재적 재무 영향 및 대응 비용을 포함한 세부 리스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 리스크 평가를 미진행한 기업의 리스크, 전사적인 가치사슬 단계의 리스크 그리고 물 리스크에 노출된 모든 사업장의 리스크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실제 물 리스크는 현재 보고된 물 리스크의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산업의 원료나 연료를 물 스트레스가 높은 호주, 중남미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공급망 물 리스크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물 리스크 전망



국내 물 리스크 보고 현황



1. 물 리스크 평가 진행 기업 중, 리스크 평가 범위별 비율
2. 물 리스크 평가 진행 기업 중, 식별된 물 리스크 노출 사업장

물 리스크 대응 시나리오 분석 프로세스

물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후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물 리스크를 식별하고 잠재적인 재무 영향 및 대응 비용을 파악하여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 6 STEPS

1. 시나리오 선택 및 기업 물 사용 확인
2. 미래 물 사용 모델링 및 물 리스크 식별
3. 물 리스크 평가 및 재무 모델링
4. 대응 전략 비용 및 기회 도출
5. 보고 및 전략 수립
6.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

물 리스크 재무 영향 도출

물 리스크 식별

물리적
- 단기(Acute)
  - 기상 이벤트, 가뭄, 홍수, 폭우, 폭풍, 토네이도, 오염 사건 등
- 장기(Chronic)
  - 토지이용 변화, 강수패턴 변화, 수온 상승, 수질 악화, 지하수 고갈, 물 스트레스 증가, 해양 산성화, 담수 취수원 오염 등

전환
- 규제
  - 수도 요금 상승, 공급업체 소송, 방류 수질/수량 규제, 유역 관리 시스템 부재, 취수/운영권 허가권 규제 강화 등
- 명성 & 시장
  - 소비자 선호도 변화, 지역사회 반대, 이해관계자 부정적 피드백 증가, 물 관련 소송, 부정적 언론 보도 등
- 기술
  - 데이터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저하, 물 영향 낮은 제품 대체 실패, 물 효율성 높은 제품 전환 실패, 신기술 투자 실패 등

물 리스크 잠재적 재무 영향 모델링

주요 잠재적 영향
- 브랜드 이미지 훼손
- 매출 구성 및 매출원 변화
- 성장 제약과 사업장 폐쇄
- 온실가스 감축 능력 하락
- 벌금 및 제재로 인한 영향
- 자산에 대한 영향
- 인력 관리 차질
- 보험료 인상
- 자본 비용 증가
- 규제 준수 비용 증가
- 운영비 상승
- 생산비 상승
-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소송 위험
- 운영 허가 상실
- 생산 능력 저하
- 공급망 차질과 수요 감소

잠재적 재무영향

매출 감소

운영비 및 생산비 증가

소송 및 벌금/제재로 인한 지출

생산 능력 저하와 수요 감소로 인한 손실

물 리스크 대응 비용 도출

주요 대응 활동
- 물 효용/재사용/재활용/복원 활동 도입
- 가뭄 및 홍수 대비 비상계획 수립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 사업 연속성 계획 수정
- 신제품/신시장 개발
- 사업장별 세부 목표 설정
- 자연기반솔루션 실행
- 유역 환경 복원 및 수질 크레딧 구매
- 기술적 혁신과 시설 개선
- 보험 범위 확대, 공급망 다양화
- 리스크 전이 도구 활용, 시설 이전, 물 공 대안 마련
- 인센티브 및 보고 도구(tool) 강화

대응 비용

기술 및 시설 투자 비용

사업 전략 및 성과 향상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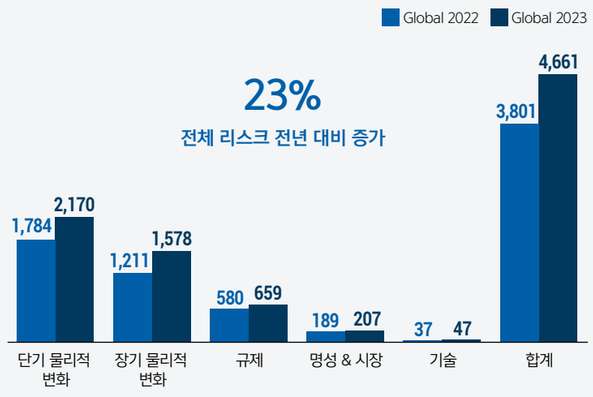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성 비용

인센티브 및 보고 도구 도입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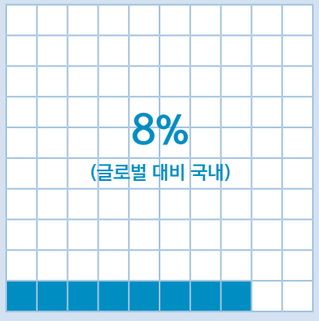
자본 지출 및 리스크 관리 비용

CDP Fact Sheet – Global Water Risk

물 리스크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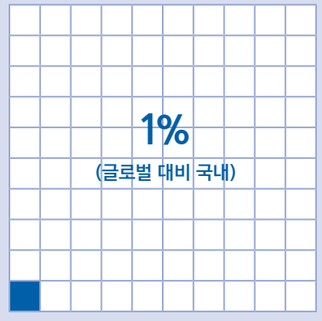
물 리스크 잠재적 재무 영향 모델링



1,470조 830억 원
글로벌 물 리스크 잠재적 재무 영향

118조 5,350억 원
국내 물 리스크 잠재적 재무 영향

물 리스크 대응 비용



227조 7,330억 원
글로벌 물 리스크 대응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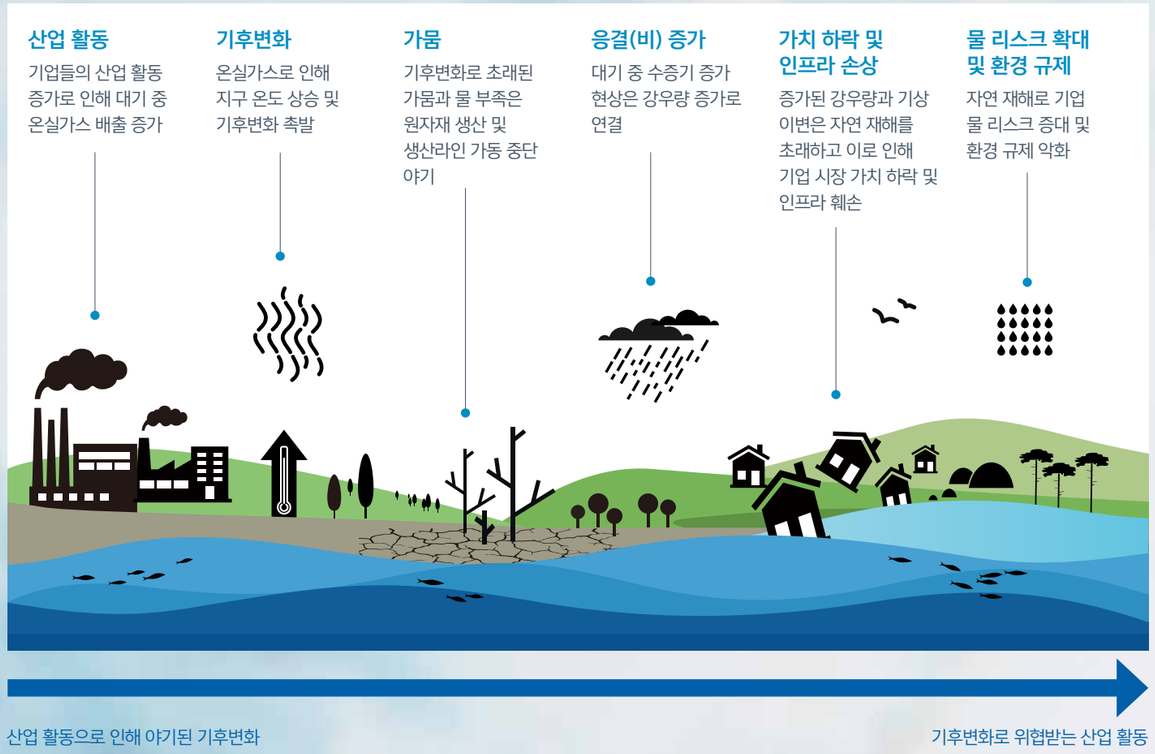
3조 2,305억 원
국내 물 리스크 대응 비용

Climate Change & Water Risk

기후변화 끝은 '가뭄'과 '홍수'

지구의 물은 물 순환 체계에 따라 순환을 반복한다.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할수록 지구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열을 식히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육지의 물을 흡수(증발)하게 되고 이는 육지의 심각한 '가뭄'을 야기시킨다. 이어 하늘로 올라간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해 포화상태에 이르면 대기 압력이 높아져 일부가 응결하여 다시 액체로 변해 많은 양의 '비(홍수와 폭우)'로 내린다. 즉, 산업화 활동으로 인해 더 뜨거워진 지구는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결과 = 가뭄과 홍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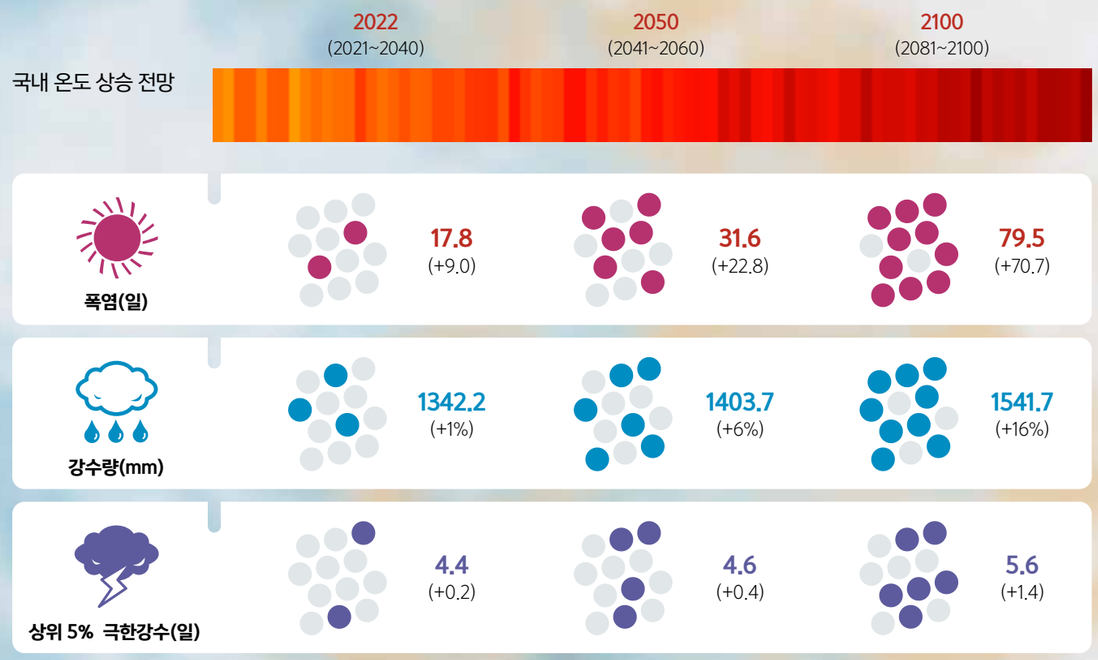
국내 물 리스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 전망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이미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 상승시켰다. 또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최소 1.5℃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1] 이러한 인간 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관측 결과, 내륙 홍수 관련 피해, 홍수/폭풍으로 인한 해안 지역 및 인프라 피해 모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정적 영향이 증가된 것으로 관찰된다.[2]

기후변화에 따라 물과 관련된 재해의 발생 크기와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세부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물 재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될 때 가뭄 2.4배, 강수 1.5배, 열대성 폭풍우는 10% 증가, 2℃ 이상 상승될 때 가뭄 3.1배, 강수 1.8배, 열대성 폭풍우 13% 증가, 4도 이상 상승될 때 가뭄 5.1배, 강수 2.8배, 열대성 폭풍우 30% 증가가 예측된다.[1,2]

국내도 기후변화에 따라 물 리스크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의 SSP5-8.5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재(2000~2019년) 대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국내의 평균기온은 최소 2.3℃에서 최대 6.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강수량은 최소 1%에서 최대 16% 증가, 호우일수는 최소 0.3일에서 최대 1일 증가, 상위 5% 극한강수일은 최소 0.2일에서 최대 1.4일 증가가 전망된다.[3]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물 리스크 전망[3,4]



※ 괄호 안의 숫자는 현재 대비 미래 변화폭을 의미함

1. IPCC, 2023: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ore Writing Team, H. Lee and J. Romero (eds.)]. IPCC, Geneva, Switzerland, pp. 35-115, doi: 10.59327/IPCC/AR6-9789291691647.
2. IPCC, 2022: Summary for Policymakers [H.-O. Pörtner, D.C. Roberts, E.S. Poloczanska, K. Mintenbeck, M. Tignor,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eds.)]. In: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O. Pörtner, D.C. Roberts, M. Tignor, E.S. Poloczanska, K. Mintenbeck, A. Alegría, M. Craig, S. Langsdorf, S. Löschke, V. Möller, A. Okem, B. Rama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pp. 3-33, doi:10.1017/9781009325844.001.
3. 국립기상과학원,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2)
4. 남한 상세 기후전망 SSP5-8.5 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_2021/32_2_user_analysis.php

Water Risk Case Study

주요 물 리스크 보고 예시[1]

물 리스크 유형	물 리스크 세부 유형	리스크 요약 설명	발생 가능성	발생 예상 시기	잠재적 재무영향[2] (KRW 환산)	대응 비용[3] (KRW 환산)	기업명 (국가)
단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홍수(해안, 하천, 큰 비pluvial, 지하수)	과거 호우 재해로 인해 오카야마현의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에서 일부 용해로에 빗물이 침수되어 증기 폭발 사고가 있었으며, 마쓰다는 히로시마에 엔진 부품 등을 제조하는 주조 공장을 두고 있어 유사 사고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조 공장의 일부 지역에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내릴 경우 폐수 배출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확실	1-3년 이내	116조 2,459억	3조 6,497조	마쓰다 (일본)
장기적인 물리적 환경변화	물 부족water scarcity 현상의 증가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므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 및 전략적 측면에서 미래의 물 부족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물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한 수자원 리스크로 인식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동화 및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한 자동차 제조 공정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공장(HMI)은 WRI 평가 툴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물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음(80% 이상)'으로 나타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확실	1-3년 이내	1조 5,320억	7.8억	현대자동차 (한국)
규제	방류 수질/ 수량 규제	국내 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수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의 95%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수질 기본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별 부과금액 * 법적기준 이내 배출량(95%)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수질기본부과금을 수질오염원 지표인 TOC와 SS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TOC 물질은 4억 4,900만 원, SS 물질은 4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 낮음	6년 이후	8.5억	2.8억	삼성전기 (한국)
명성 & 시장	이해관계자의 우려 증가 및 부정적 피드백	기후변화 및 물 관리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와 평판은 투자자 및 고객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광범위한 ESG 이슈에 대한 기타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낮음	1년 이내	8.7억	0.1억	시그나 (미국)
기술	기타; 상수도 인프라 고장	수도 인프라 문제로 인해 물 공급의 질과 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부 시설은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로 인해 수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원활한 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건물 내 스프링쿨러, 소화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압이 낮아지면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건물과 인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있음	1년 이내	6.1억	3.5억	올드 뮤추얼 리미디트 (남아공)

1. 본 데이터는 기업이 식별한 '미래 물 리스크'임
2. 전사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리스크의 내재적 재무영향(리스크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을 고려하기 전)을 의미함
3. 보고한 리스크의 감소, 제어, 이전 또는 수용 등의 대응에 발생되는 비용을 의미함

물 기회: 물 비즈니스 비용 창출

1조 2,605억 원[1]
국내 기업 물 잠재적 이익

59개
물 관련 기회

1. WRI https://www.wri.org/insights/highest-water-stressed-countries

물 기회는 기업의 시장 경쟁 우위와 재무적 이점 가져와

세계 인구의 25%가 물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수준의 지역에 거주하며, 그중 최소 50% 이상은 연중 한 달 이상 극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물 스트레스는 향후에도 지속 또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물 가격이나 관련 규제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개척에 나서는 기업과 내부 물 효율성을 높여 온 기업들에게는 재무적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 글로벌 기업의 물 관련 기회를 통한 재무적 가치는 총 314조 7,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효율성(1,750개), 제품 및 서비스(682개), 회복탄력성(393개), 시장(285개), 기타(137개) 순이었다. 국내 기업은 최대 1조 2,605억 원 가치, 그리고 총 59개의 물 기회를 보고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효율성(43개), 제품 및 서비스(8개), 회복탄력성(4개), 기타(3개), 시장(1개)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과 국내 데이터 분석 결과, 기회 유형별 보고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과 국내 모두 '효율성'과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회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적 재무영향으로는 '제품 및 서비스' 기회로 인한 이익이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이 보고한 기회요소 외에도 물 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은 자본 조달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가 금융권이 투자 기업을 선정하거나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은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 우수 물 경영 비즈니스 모델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 기회를 인식하거나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은 물 기회를 파악하는 것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

물 기회 유형별 잠재적 이익

물 기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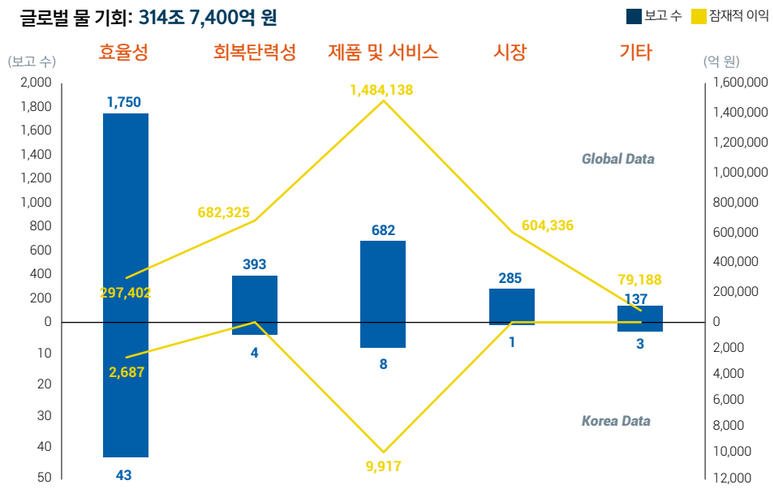
효율성 중대한 비용 절감 및 생산률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

회복탄력성 물 리스크로 인해 발생된 여러 조건 하에서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치. 회복탄력성에 투자함으로 기업은 기후 관련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 및 성장 가능

제품 및 서비스 변화하는 고객 및 소비자의 선호도를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

시장 새롭게 부상하는 물 관련 시장에 접근하고 신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수익 다양화

글로벌 물 기회: 314조 7,400억 원



국내 물 기회: 1조 2,605억 원

Water Opportunity Case Study

주요 물 기회 보고 예시[1]

물 기회 유형	물 기회 세부 유형	기회 요약 설명	발생 예상 시기	잠재적 이익[2] (KRW 환산)	기업명
제품 및 서비스	기존 제품/서비스 판매 증가	LG화학은 해수담수화용 RO 필터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며 'LG 워터 솔루션'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LG화학은 중동 독점 계약과 나노에이치투오(NanoH2O)와의 합병을 통해 수처리 기술력을 강화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군인 G2는 99.89%의 염분 제거율을 자랑하며 더 깨끗한 물과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RO 필터 매출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G화학은 담수화 프로젝트 및 수처리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년 이내	2,000억	LG화학
효율성	사업장 내 물 효율성 증가	삼성전자는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장 최적화, 설비 업그레이드, 제조 공정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수자원을 하수, 초순수 등으로 분류하여 G-EHS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할 때는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물 재이용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16,590메가리터를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1년 이내	932억 7,200만원	삼성전자
효율성	비용 절감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는 국내 시장에서 설계, 건설, 운영 모두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SK실트론, 유관 기관들은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K실트론 구미2공장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공정의 60%를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 국내 1조 원, 글로벌 19조 3천억 원 규모였던 초순수 시장은 2024년 각각 14조 원, 23조 1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년 이내	141억	SK실트론

1. 본 데이터는 기업이 식별한 '미래 물 기회'임
2. 전사적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리스크의 내재적 재무이익(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기 전)을 의미함

글로벌 기업 중심의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움직임을 주목할 만하다. 워터 포지티브란 기업이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수량을 복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 기업이 물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해 폐수처리장을 신규 설치하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냉각시스템의 기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물 관련 사업 및 시장 기회까지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water와 기업이 그리는 Water Positive

Water Positive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자원 관리에 동참하여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물 위기가 해소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물 사용량 절감을 넘어, 소비하는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돌려주는 Water Positive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ater Positive가 기업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국민과 기업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물 위기가 실체적 위험임을 우리는 함께 체감하고 있습니다. Water Positive는 기업이 사용량보다 더 많은 물을 방류 또는 복원하여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실현하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국제사회는 공공의 영역을 넘어 기업들도 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Water Positive 활동이 기업에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전 세계의 물 수요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 제조부문의 물 수요는 2020년 대비 3배 증가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첨단산업의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물 공급 안정성은 크게 떨어지고 기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Water Positive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자원 관리에 동참하여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물 위기가 해소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위기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홍수와 가뭄이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산업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전국적 홍수로 13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2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연평균 강수량의 60% 수준의 적은 비로 50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대규모 용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규 수자원 개발사업의 정체, 수자원시설 노후화, 기후변화에 따른 증발량 증가 등으로 기존 댐의 용수공급 능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세계 최고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인프라 확충, 물 관리 디지털 전환 등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물 관리 플랫폼, 유역 수자원의 최적 활용으로 물재해에 대응하고 있으며 수원 연계, 대체 수자원 개발 등 2030년까지 기존 대비 20% 증가한 Water storage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과 협력하여 물 현안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상시 공급 가능한 수원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구자영 기획부문장

워터 이슈 브리핑

CDP Water Security 신규 문항

수질 관련 문항 추가 (W1.4 & W4.1a 문항)

작년과 달리 CDP Water Security에서는 '**수질**' 관련 문항이 추가되었다. 신규문항은 W1.4와 W1.4a로,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및 관련 인증에 대해 유관 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1.4) 귀사의 제품 가운데 규제 당국에서 유해한 것으로 분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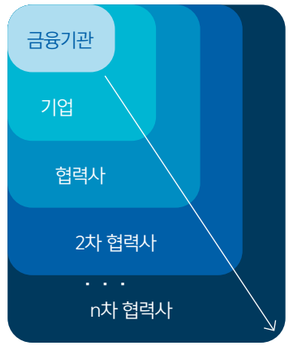
유해 물질 포함 제품	비고
선택항목: 예 아니요 모름	

(W1.4a) 귀사 수익 가운데 규제 당국에서 유해한 것으로 분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유해 물질 관련 규제	유해 물질 포함 제품의 관련 수익 비중(%)	설명
선택항목: Annex XVII of EU REACH Regulation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 above 0.1% by weight (EU Regulation) · · · List of substances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기타, 직접 입력	**선택항목:** 모름 10% 미만 · · · 61–80% 80% 초과	

물 경영 요구 강화와 CDP 정보공개

CDP 정보공개 요청 증가



금융기관 + 고객사 + 협력사 ⇒ 물 정보공시 요구 증가

기업들을 향한 물 관리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CDP Water Security 데이터를 주요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금융기관'은 2023년 746개로, 2010년 156개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 더불어 전사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주요 '고객사'들 또한 협력사에게 CDP Water Security에 응답하도록 요청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주로 대기업만 공시했다면, 이제는 대기업이 고객사로서 주요 협력사들이 물 정보공개를 공시하도록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CDP는 2023년부터 물 인게이지먼트 관련 문항을 신규 추가 및 강화하였다. 기업이 공급망 이해관계자(협력사, 기타 가치사슬 파트너)를 대상으로 물 관련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인게이지먼트에는 구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협력사가 물 관련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업이 CDP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작동한다.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CDP 응답 요청을 받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로는 Intel Corporation, HP Inc, Fujitsu Limited, Dell Technologies, Alphabet, Nokia 등이 있다.

CDP를 통한 기업 물 경쟁력 강화

전 세계적으로 물 관련 재해 및 리스크가 뉴스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자원 불안정성으로 인한 기업의 실질적 가치 하락, 생산 중단, 물 관련 분쟁으로 인한 시장 평판 저하 등의 리스크는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CDP를 통한 정보공개로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CDP 데이터는 금융 기관, 고객사,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소비자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기업이 자체적 물 관리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물 의존도를 줄이고, 물 리스크를 완화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CDP에 대응하여 정확한 물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자원 안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DP 물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은 물 관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의 통합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다.

플라스틱 리스크

20세기에 들어 생산량이 급증한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라스틱은 의류, 전자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소재로 자리 잡았다. 저렴한 비용, 가벼운 무게, 내구성, 다양한 성형 가능성 등의 장점은 현대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대량 사용은 환경 오염, 인체 건강 위협,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리스크를 야기하며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국제 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2월 28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총회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 제5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률 증대, 플라스틱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 마련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2024년 11월 부산 회담을 마지막으로 국제 플라스틱 조약 문안 타결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 규제는 이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며, 석유화학, 플라스틱 이용 산업 등 다양한 기업들에게는 리스크이자 기회다. 생산 비용 증가, 소비자의 수용성 변화, 기술 개발 및 투자 부담, 정부 정책 및 규제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어려움이 기업들 앞에 존재한다. 또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비자 인식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CDP 플라스틱 데이터

CDP는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한 플라스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플라스틱 모듈을 도입했다. 이는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2023년 전 세계 3,162개 기업이 CDP를 통해 플라스틱 데이터를 공개했다.

CDP 플라스틱 모듈은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 정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 위치 파악,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 리스크 식별, 목표 수립, 그리고 기업에서 다루는 플라스틱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플라스틱 사용 위치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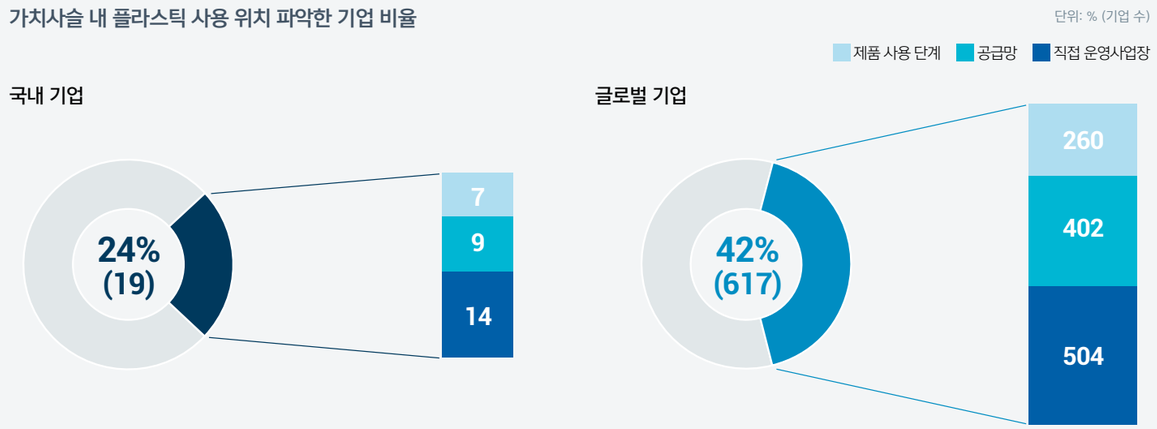
플라스틱 사용 위치 파악은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첫 단계이다. 사업장별 플라스틱 사용, 생산 및 유통 위치와 방법을 식별하고 이해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국내 78개 기업 중 19개 기업이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 직접 운영사업장Direct Operations, 공급망Supply Chain, 제품 사용 단계Product use phase, 기타로 나누어 플라스틱 사용 위치를 파악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1,465개 기업 가운데 42%(617개)가 파악했다.

국내와 글로벌 모두 직접 운영사업장에 대한 플라스틱 발생을 식별한 기업이 각각 74%(14개), 82%(50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폐기하는 시점을 말하는 제품 사용 단계에서는 국내 7개, 글로벌 260개 기업이 플라스틱 발생을 식별했다.

가치사슬 내 플라스틱 사용 위치 파악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 플라스틱 발생 사업장: 중복 응답 포함됨 (기업 수)

플라스틱 소비의 영향 평가 진행 현황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은 환경과 인체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CDP 플라스틱 모듈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한다.

2023년 CDP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10개 기업과 글로벌 465개 기업이 플라스틱 소비의 영향 평가를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업들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영향 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국제 규제 및 기준(고위험군 우려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EU 유해물질 제한 지침EU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등)에 따른 인증, 물 발자국Water footprint과 같은 지표 활용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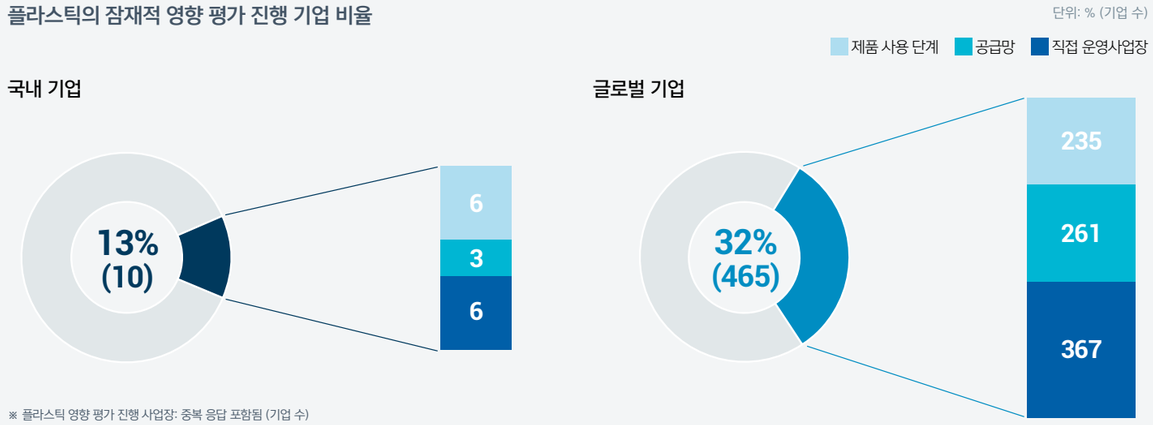
영향 평가를 진행한 국내 기업 중 공급망 사업장을 평가했다는 기업은 30%(3개)에 불과했다. 반면, 글로벌 기업은 56%(261개)의 기업이 평가를 진행해 국내 기업보다 비중이 높았다. 이는 플라스틱 소비의 영향 평가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기업들 또한 적극적인 영향 평가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플라스틱 리스크 식별

국내 응답기업의 12%(9개 기업), 글로벌 응답기업의 23%(341개 기업)는 플라스틱 관련 리스크를 유형별로 식별했다. 그 결과,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관련 규제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의 직접 운영사업장과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규제, 평판, 물리적, 기술 순으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직접 운영사업장과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규제, 기타, 물리적, 기술 순이었다. 기업들은 운영 비용, 경쟁 환경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의 잠재적 영향 평가 진행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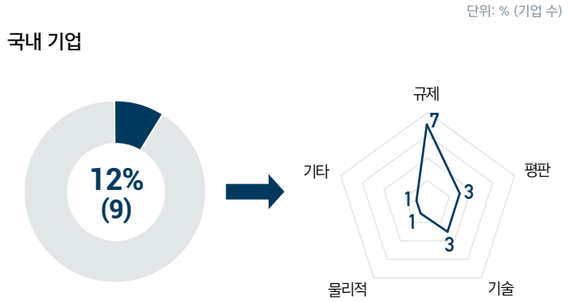
단위: % (기업 수)



※ 플라스틱 영향 평가 진행 사업장: 중복 응답 포함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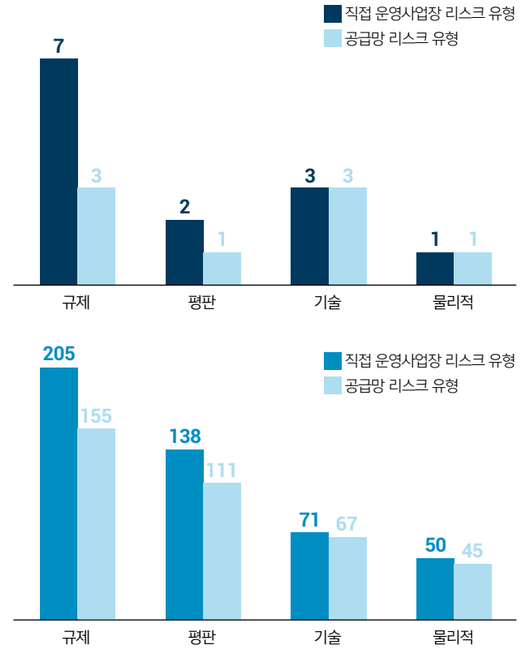
가치사슬 내 잠재적 플라스틱 리스크 식별 여부 및 리스크 유형 분포

단위: % (기업 수)



직접 운영사업장 / 공급망 사업장 리스크 유형 분석

단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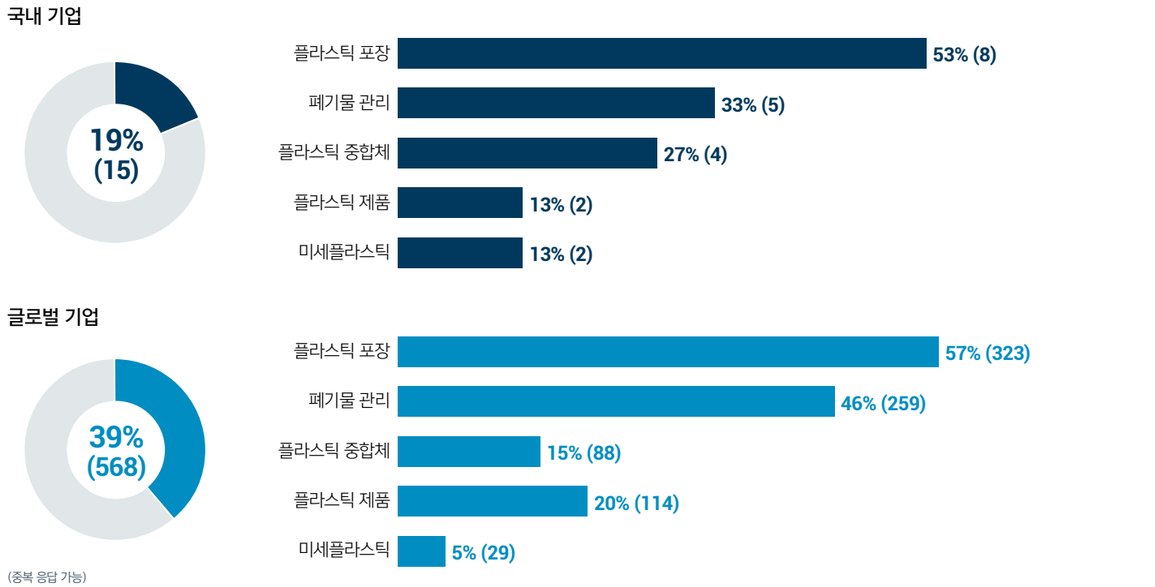


플라스틱 목표 수립

국내 응답기업의 19%(15개 기업)는 플라스틱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목표 수립률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목표 유형별로는 플라스틱 포장의 목표 수립률이 국내 53%(8개), 글로벌 57%(323개)이며, 폐기물 관리는 국내 33%(5개), 글로벌 46%(259개)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 모두 플라스틱 포장 및 폐기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수립한 플라스틱 관련 목표 유형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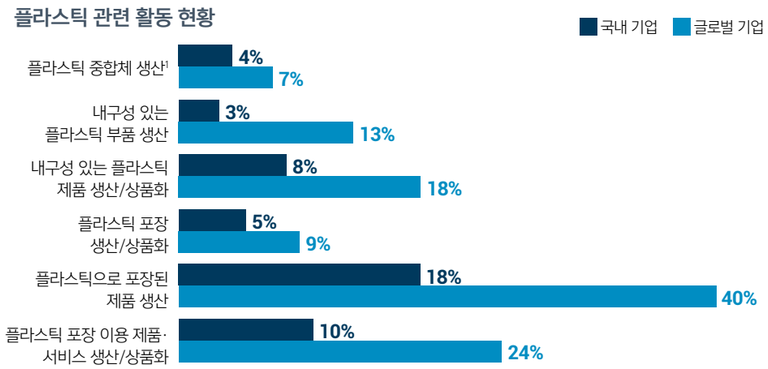


(중복 응답 가능)

Korea Leader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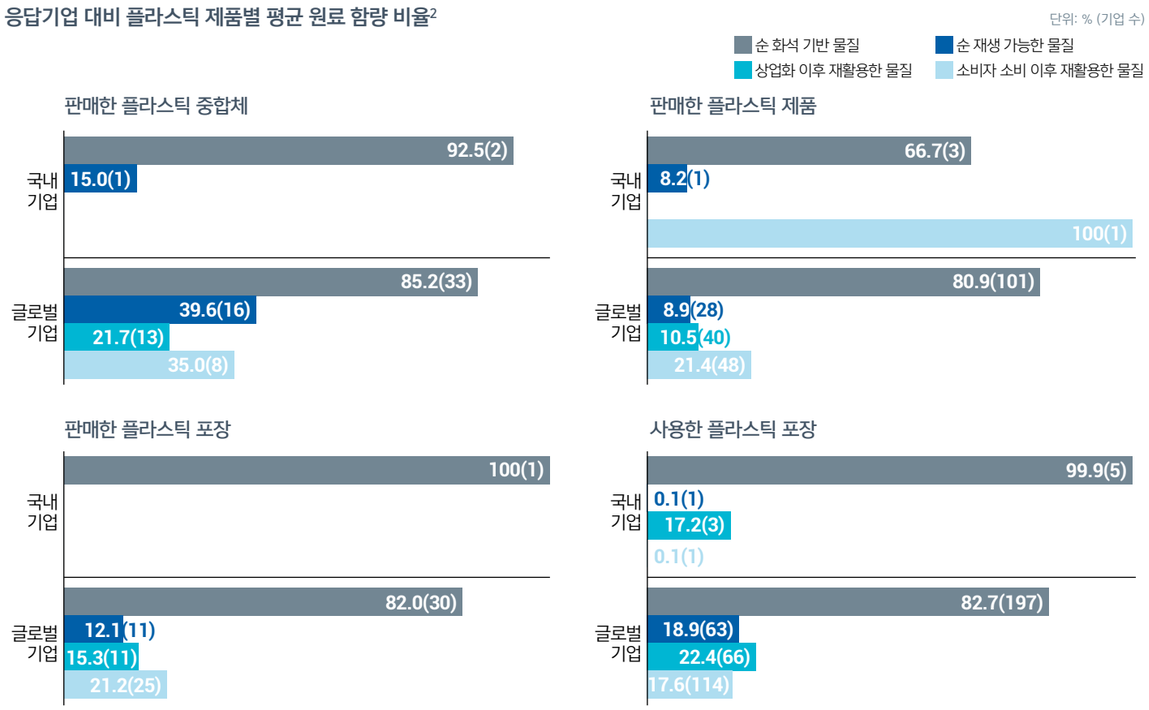
플라스틱 관련 활동 현황



CDP 플라스틱 모듈에 응답한 기업들은 플라스틱 사용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재료 함량 비율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생산 과정 특성상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에서 화석연료 함량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한 기업 가운데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한 국내 기업은 22%(17개)였으며, 글로벌은 28%(408개)이다. 이를 제외하고 판매한 플라스틱 중합체, 판매한 플라스틱 포장 등은 전체 4%에서 11% 수준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한편 플라스틱 재료 함량 비율을 산정한 기업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재생 가능한 물질의 사용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응답했다.

1. 셀룰로오스, 석탄, 천연 가스, 소금, 원유와 같은 원료의 중합 또는 중축합 공정을 통해 생산한 것
2. 응답 기업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군 선택항목(중복 응답)의 평균 원료 함량 비율

응답기업 대비 플라스틱 제품별 평균 원료 함량 비율[2]



2023 Korea Leaders

Climate Change

The Climate Change A List[1]

아모레퍼시픽
신한금융그룹
카카오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LG이노텍
SK가스
SK네트웍스
SK실트론
SK텔레콤

1. A-list 가나다 순
2. 명예의 전당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 단, 유예 기업은 당해 연도 모든 시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연도에 기준을 충족할 시 명예의 전당을 회복할 수 있음
3. 헌액연도 및 가나다 순
4. 등급 및 가나다 순

CDP Korea 명예의 전당[2]

시상명	수상기업명[3]	헌액연도
Platinum Club	삼성전기	2014
	삼성물산	2016
	신한금융그룹	2018
	현대건설	2018

CDP Korea Awards Climate Change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4]	밴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LG이노텍	Leadership	A
		SK텔레콤	Leadership	A
		하나금융그룹	Leadership	A-
		한화솔루션	Leadership	A-
		KB금융그룹	Leadership	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금융	하나금융그룹	Leadership	A-
		IBK기업은행	Leadership	A-
		KB금융그룹	Leadership	A-
	산업재	SK네트웍스	Leadership	A
		(주)한화	Leadership	A-
		포스코이앤씨	Leadership	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eadership	A-
		현대글로비스	Leadership	A-
	선택소비재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기아	Leadership	A-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Leadership	A-
		현대위아	Leadership	A-
	에너지&유틸리티	SK가스	Leadership	A
		한국전력공사	Leadership	A-
		한국지역난방공사	Leadership	A-
	원자재	한화솔루션	Leadership	A-
		효성화학	Leadership	A-
		SK아이이테크놀로지	Leadership	A-
		SK케미칼	Leadership	A-
	제약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Leadership	A-
		SK바이오팜	Management	B
	통신	카카오	Leadership	A
		SK텔레콤	Leadership	A
		LG유플러스	Leadership	A-
		SK브로드밴드	Leadership	A-
	필수소비재	아모레퍼시픽	Leadership	A
		KT&G	Leadership	A-
		LG생활건강	Leadership	A-
	IT	LG이노텍	Leadership	A
		SK실트론	Leadership	A
		삼성전자	Leadership	A-
		삼성SDI	Management	B
		LG디스플레이	Management	B
탄소경영 특별상	신규참여	이마트	Management	B
		포스코퓨처엠	Management	B
		NHN	Management	B
	자발적참여	SK실트론	Leadership	A
		포스코이앤씨	Leadership	A-
		SK브로드밴드	Leadership	A-

1. CDP Korea Awards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시상제도임
2. CDP Korea Awards의 수상기업은 CDP한국자문위원회(명단: 보고서 후면 참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됨
3. CDP를 통해 보고한 전체 응답내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받은 기업은 수상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 (10%) 부여됨
4. 명예의 전당에 편입 후 유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그 다음 해에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명예의 전당을 유지할 수 있음
5. 자발적참여 기업이 위 기준 충족 시 섹터아너스에 포함하여 추가 시상
6. 2023년 자발적참여 수상기업이 섹터아너스 기준에 충족하여 섹터아너스에 포함하여 시상됨

CDP Korea Awards 수상기업 선정기준[1,2]

Climate Change[3]

명예의 전당[4]

- Leadership A- 이상 획득
- CDP 제3자 검증받은 기업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기업
  - Platinum Club: 명예의 전당 4년 이상 유지 기업
  - Gold Club: 명예의 전당 1~3년차 기업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Leadership A- 이상 획득하고 CDP 제3자 검증받은 기업 중 상위 5개 기업 (동점 시 공동 수상)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5]

- 섹터별 Management B 이상 획득 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단, 응답기업 5개 미만 섹터 상위 2개, 15개 이상 섹터 상위 4개)

탄소경영 특별상

◥ 신규참여 부문

- 대상: CDP Korea 300 샘플 기업 내에서 CDP 응답 이력이 없는 기업
- 기준: Management B이상 획득 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 자발적 참여 부문[6]

- 대상: CDP Korea 300 샘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CDP를 통해 정보 공개에 참여한 기업
- 기준: Management B 이상 획득 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2023 Korea Leaders

Water Security

The Water Security A list[1]

KT&G
SK실트론
SK하이닉스

CDP Korea Awards Water Security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2]	밴드	
대 상		SK실트론	Leadership	A
최우수		KT&G	Leadership	A
		SK하이닉스	Leadership	A
우 수		삼성디스플레이	Leadership	A-
		삼성전기	Leadership	A-
		풀무원	Leadership	A-
		한국중부발전	Leadership	A-
		한화솔루션	Leadership	A-
		현대로템	Leadership	A-
		SK스페셜티	Leadership	A-
특별상	신규참여	롯데칠성음료	Management	B
		한국남동발전	Management	B
		효성첨단소재	Management	B

CDP Korea Awards 수상기업 선정기준[3,4]

Water Security

대상
- Leadership A 획득 기업 중 상위 1개 기업
- 단, 동점일 경우 하위 밴드 점수의 최고 순위 획득 기업으로 선정
  (Leadership → Management → Awareness → Disclosure 밴드 점수순)

최우수
- Leadership A 획득 기업 중 Leadership 점수 상위 2개 기업
  (대상 수상기업 제외)

우수
- Leadership A- 이상 획득 기업 중 Leadership 점수 상위 7개 기업
  (대상, 최우수 수상기업 제외)

특별상

◥ **신규참여 부문**
- 대상: CDP 신규 참여 기업
- 기준: Management B 이상 획득 기업 중 Management 점수 상위 3개 기업
  (대상, 최우수, 우수 수상기업 제외)
  단, 동점일 경우 하위 밴드 점수의 최고 순위 획득 기업으로
  (Leadership → Management → Awareness → Disclosure 밴드 점수순)

1. A-list 가나다 순
2. 등급 및 가나다 순
3. CDP Korea Awards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된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시상제도임
4. CDP Korea Awards의 수상기업은 CDP한국자문위원회 (명단: 보고서 후면 참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됨

CDP 평가시스템

CDP 평가시스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업은 CDP평가를 경쟁사 혹은 동일 섹터 내 우수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지속가능성 로드맵 수립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CDP 평가방법론은 기업의 환경 성과 향상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개선되어 왔다.

CDP 질의서는 3가지 테마-기후변화Climate Change, 수자원Water Security, 산림Forest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 질문을 포함해 CDP-ACSActivity Classification System에 의해 분류된 섹터에 따라 섹터별 추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CDP-ACS는 CDP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낸 산업분류시스템으로서, 활동/활동그룹/산업 세 단계를 기반으로 분류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의 매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 사업영역과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 수자원 안정성, 산림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기업을 가장 적절한 섹터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데이터의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다.

CDP의 기본적인 평가 체계는 모든 섹터 및 질의서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문항별 구체적 평가 방법은 섹터별 질의서에 맞게 일부 수정되어 적용된다.

CDP는 기업의 환경책임을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기업의 응답을 평가한다.
Disclosure: 기업 응답의 완성도 평가
Awareness: 환경 이슈, 리스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평가
Management: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기업의 활동, 정책, 전략 평가
Leadership: 환경경영 관련 우수사례 Best Practice 및 리더십 평가

CDP 평가는 내부 검증을 거친 평가파트너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파트너 간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

1. 모든 기업이 CDP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지는 않음.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F가 부여됨. 다만, F가 반드시 해당기업이 환경경영 또는 환경책무 이행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내지는 않음

CDP 평가시스템 최종밴드

Climate Change	Water Security	
70-100%		A
1-69% 이하		A- Leadership
45-75% 이하		B
1-44% 이하		B- Management
45-79% 이하		C
1-44% 이하		C- Awareness
45-79% 이하		D
1-44% 이하		D- Disclosure

F: 기후변화대응 수준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 부여[1]

CDP 평가 최종밴드 예시

기업명	Disclosure 점수	Awareness 점수	Management 점수	Leadership 점수	최종밴드
A 기업	90	90	80	75	A (Leadership)
B 기업	95	95	80	60	A- (Leadership)
C 기업	85	85	70	50*	B (Management)
D 기업	90	85	40	30*	B- (Management)
E 기업	95	75	70*	50*	C (Awareness)
F 기업	85	40	35*	20*	C- (Awareness)
G 기업	50	45*	30*	5*	D (Disclosure)
H 기업	40	35*	20*	5*	D- (Disclosure)

* 이전 단계 점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기준 미달

평가 과정을 거쳐 부여되는 최종밴드는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Disclosure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최소 점수(80% 이상)를 획득하지 못하면, Disclosure 이후 단계인 Awareness, Management, Leadership 단계는 평가되지 않고 최종밴드는 Disclosure 단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단, 평가 최종밴드에서 A- 또는 A를 받기 위해서는 Management 단계에서 Leadership 단계로 넘어 가기 위한 최소 기준 점수 획득 외에 추가 조건[1]을 만족해야 한다.

Disclosure와 Awareness 단계는 기업이 획득 가능한 최대 점수 대비 기업이 질의서에 응답하여 획득한 실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반면, Management와 Leadership 단계는 기업이 획득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 후 추가로 카테고리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CDP는 세분화된 기업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 문항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한다. 동일한 환경 이슈라 하더라도 섹터별로 미치는 영향과 관리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섹터에 따라 카테고리의 가중치는 다르게 적용된다.

CDP점수는 CDP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www.cdp.net/en).

기후변화 테마 공통General Sector 카테고리별 가중치[2]

카테고리	Management 가중치	Leadership 가중치
가치 사슬 인게이지먼트	5.0%	5.0%
목표	14.0%	14.0%
Sign Off	2.0%	1.0%
Scope 3 배출량(검증 포함)	5.0%	5.0%
Scope 1 & Scope 2 배출량(검증 포함)	12.0%	13.0%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10.0%	10.0%
리스크 공개	8.0%	8.0%
공공 정책 인게이지먼트 및 업계 협력	1.0%	4.0%
기회 공개	6.0%	5.0%
지배구조	11.0%	8.5%
에너지	7.0%	8.0%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저탄소 제품	5.0%	5.0%
커뮤니케이션	1.0%	0.5%
탄소가격	2.0%	0.0%
사업영향평가, 재무계회경가 & 시나리오 분석	10.0%	11.0%
기타 기후관련 지표(검증 포함)	1.0%	0.0%
100% Disclosure 점수 획득	0.0%	2.0%
합계	**100%**	**100%**

1. 추가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CDP Scoring-Introduction 참조
2. 이 표는 공통General 평가방법론에 적용된 카테고리별 가중치 예시임. 섹터별 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는 CDP scoring categories and weighting documents 참조

Fact Sheet

Climate Change 주요 통계
Water Security 주요 통계
2023 CDP Climate Change 한국 기업별 현황
2023 CDP Water Security 한국 기업별 현황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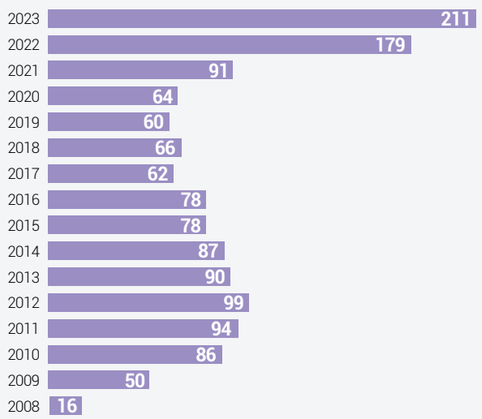
Climate Change

KS1과 KS2은 2023 CDP에서 투자자의 정보 공개에 요청에 응답한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KS1과 KS2를 제외한 모든 분석은 그 중에서 응답내역을 공개하고 Full version에 응답한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섹터 특화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배출량 분석에서는 Scope 1 또는 Scope 2 배출량을 0(Zero)으로 입력한 기업은 포함하지 않았다. 본 통계는 3개의 주요항목인 정보공개(KS1~4), 배출량(KS5~12), 기후변화성과(KS13~23)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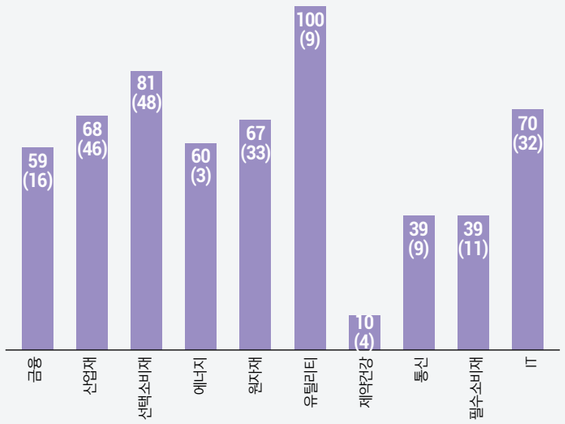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는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재무보고서에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조직이다. CDP의 특별 프로젝트인 CDSB의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는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결합하고, 기후변화 보고에 통합보고 원리를 적용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CDSB는 2021년 11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에 통합되어 새로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기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SSB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채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DP와 IFRS 재단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www.ifr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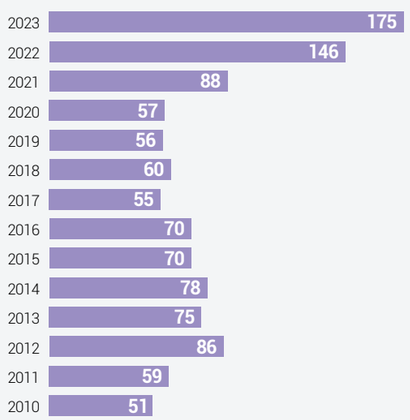
KS 1 응답 현황 단위: 기업 수



KS 2 섹터별 응답률 단위: % (기업 수)



KS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업 (Scope 1 또는 Scope 2) 단위: 기업 수



KS 4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비율 (Scope 1 또는 Scop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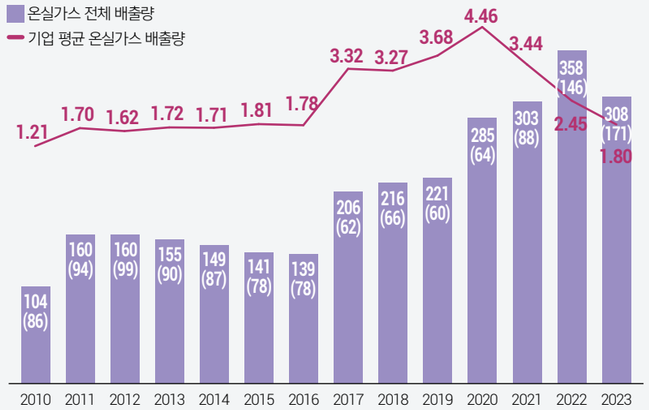
단위: % (기업 수)

Scope 1, 2 배출량은 보고기업 범위 및 응답 기업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이다. KS 5 ~ KS 8 분석은 보고연도에 응답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Scope 2 배출량은 지역기반Location-based 배출량으로 진행하였다. Scope 1 배출량이 전년 대비 낮게 나타난 이유는 작년에 응답한 유틸리티 산업 기업이 올해 응답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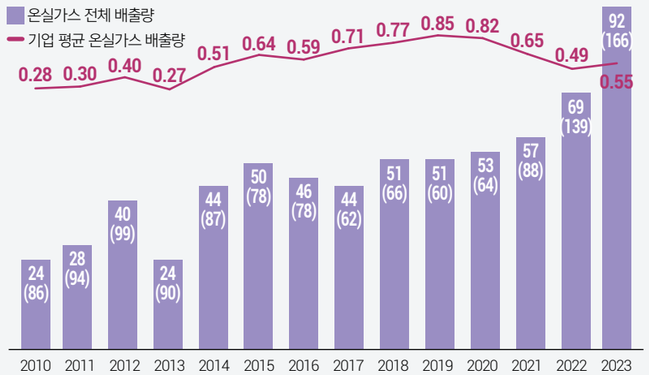
KS 9와 KS 10은 Scope 3 배출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Green 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의 15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기업 가운데 배출량 수치가 0(zero) 이상이며, 해당 Scope 3 카테고리가 "관련 있음, 산정함 Relevant, calculated"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분석에 포함했으며, "기타 업스트림" 또는 "기타 다운스트림" 항목은 데이터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KS 10 분석에서는 직접/간접 배출량의 중복 산정을 나타낼 수 있는 유틸리티 산업의 Scope 3 배출량 데이터는 제외했다. '투자' 카테고리에는 금융 섹터의 Scope 3 배출량도 포함되어 있다.

본 섹션의 검증관련 통계는 기업이 첨부한 검증의견서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KS 11과 KS12 분석은 Scope 1, 2, 3 배출량을 "검증" 또는 "검증 진행 중" 이라고 응답했으나 해당 자료(또는 작년 검증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집계에서 제외했다. Scope 1 or 2의 경우, 해당 기업이 하나 이상의 Scope를 검증받은 경우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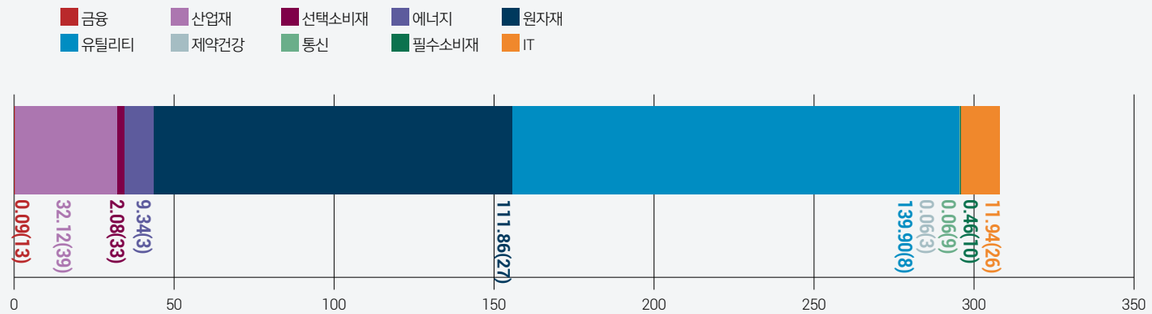
KS 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tCO2e (기업 수)



KS 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tCO2e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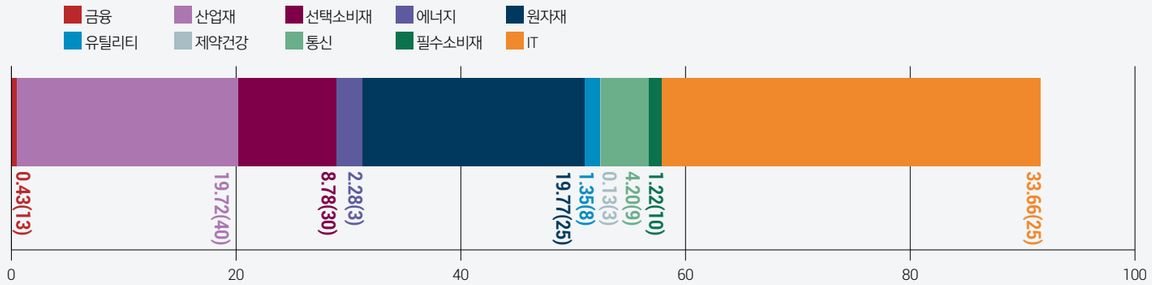


KS 7 섹터별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tCO2e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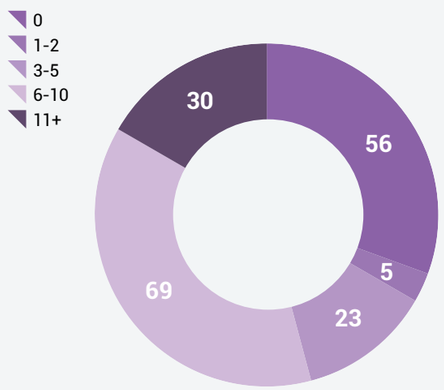
KS 8 섹터별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tCO2e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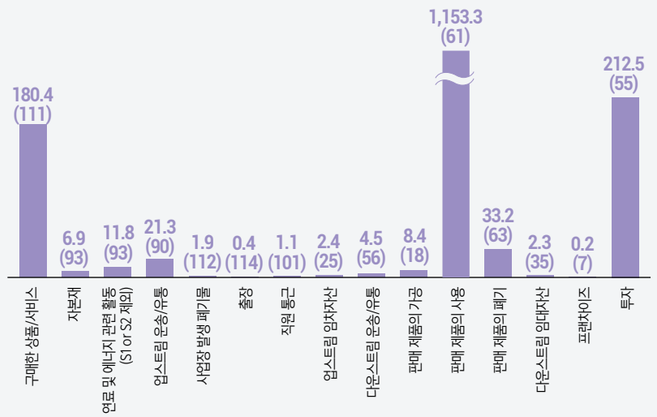
KS 9 Scope 3 배출원 및 배출량 공개기업

단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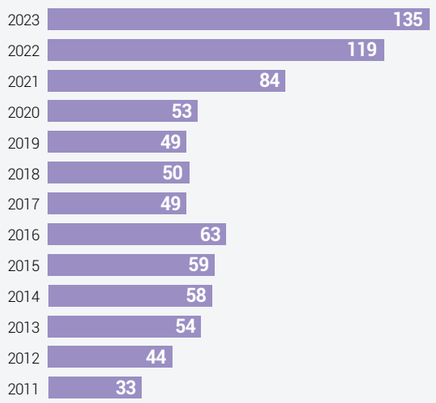
KS 10 Scope 3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tCO2e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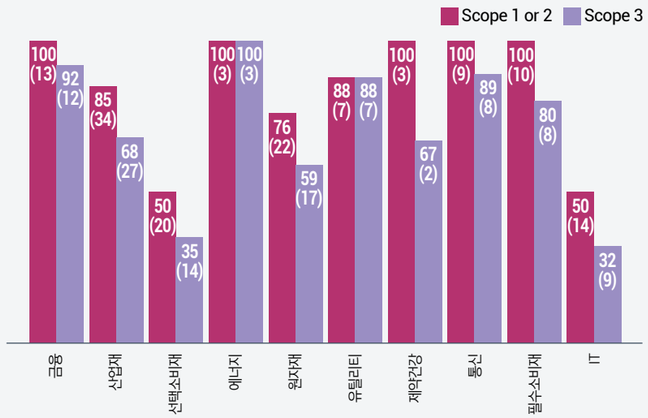
KS 1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

단위: 기업 수



KS 12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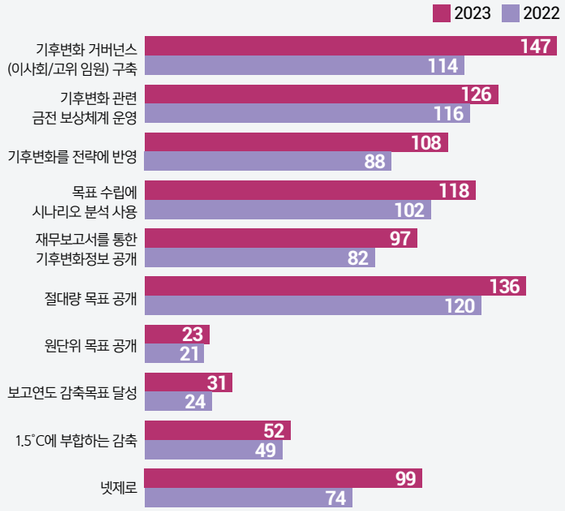
KS 13 ~ KS 23은 기후변화 성과에 대한 주요 통계로, 온실가스 감축(절대량, 원단위) 목표 관련 통계는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 비율, 목표설정 단위(원단위 목표의 경우)를 모두 입력한 기업만 포함한다.

감축활동, 감축목표 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입력한 기업은 각각 입력한 활동, 목표, 인센티브 수와 관계없이 하나로 집계하여 반영했다. 단, "절대량 감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영했다.

KS 18은 재무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공개 여부 관련 통계로, 해당 보고서에 관련 문서의 실제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한 모든 기업 통계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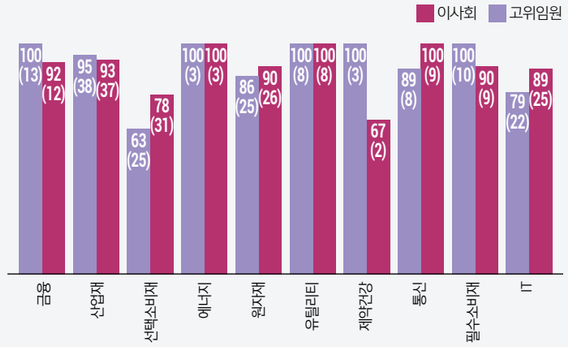
KS 13 CDP Korea 주요 지표

단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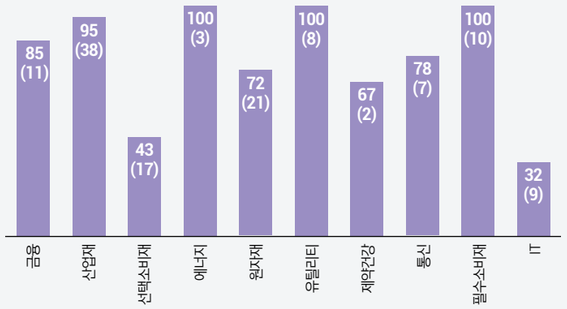
KS 14 섹터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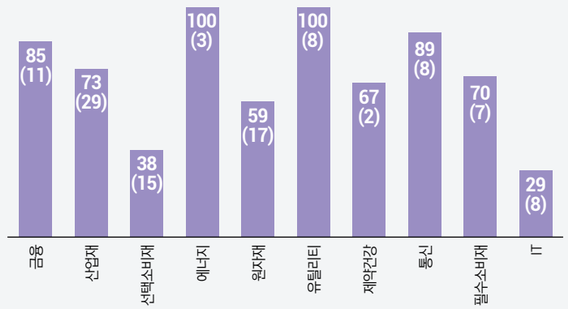
KS 15 섹터별 기후변화 관련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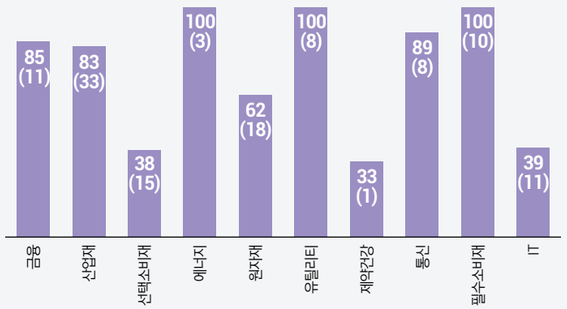
KS 16 섹터별 기후변화 전략 반영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KS 17 섹터별 목표 수립 시 시나리오 분석 사용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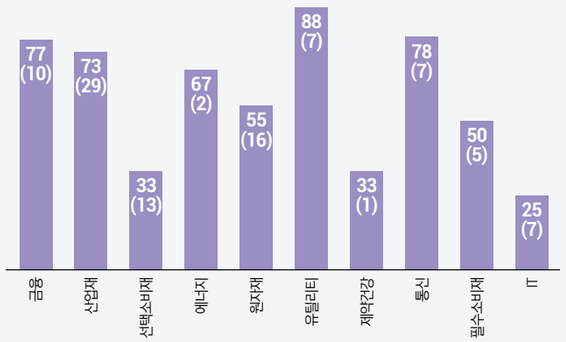
주요 통계

Water Security

KSW 1은 2023 CDP에서 투자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한 1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CDP 투자자Investor 요청에 응답, 자발적 신청Self-selected company을 통한 응답, 고객사Customer 요청에 응답한 기업을 구분하였다. KSW 1을 제외한 모든 분석은 그 중에서 Full version이면서 투자자 요청 대상기업 또는 자발적 신청 기업에 한정해 응답내역을 공개한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섹터 특화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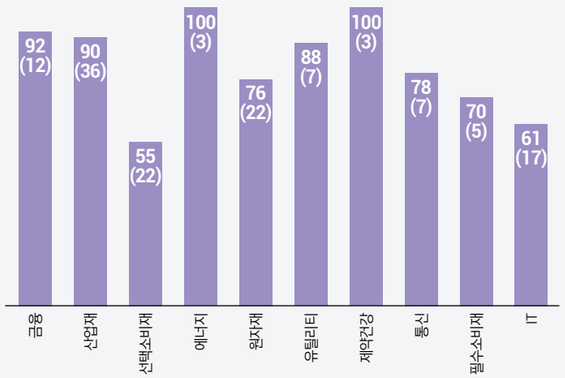
KS 18 섹터별 재무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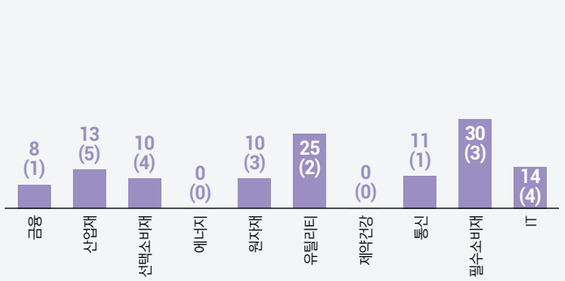
KS 19 섹터별 절대량 목표 공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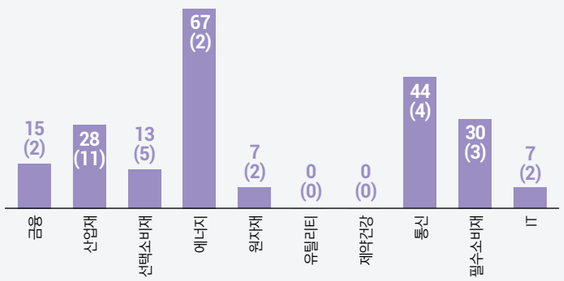
KS 20 섹터별 원단위 목표 공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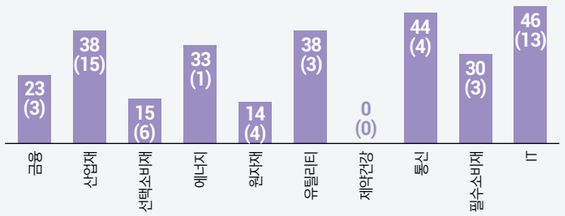
KS 21 섹터별 전체 대비 보고연도 감축목표 달성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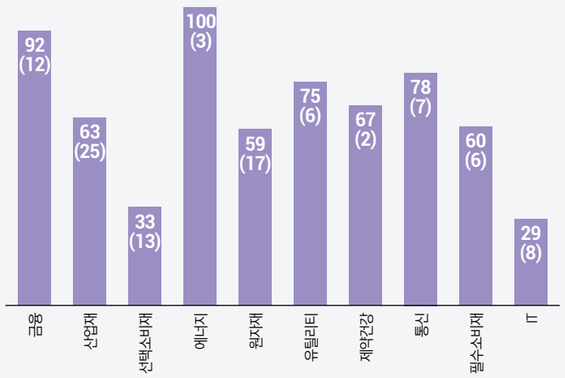
KS 22 섹터별 1.5˚C에 부합하는 감축률(전년대비 4% 이상) 달성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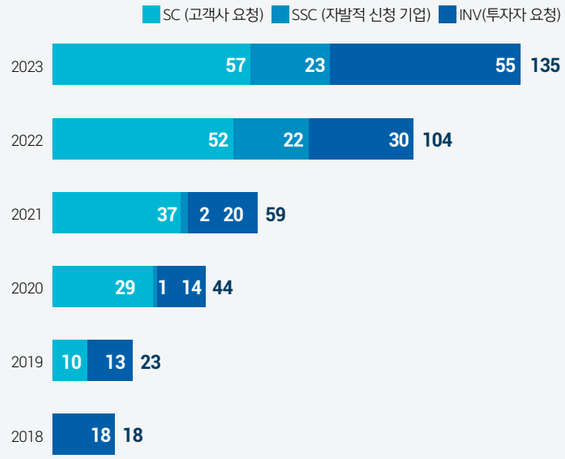
KS 23 섹터별 넷제로 목표 적용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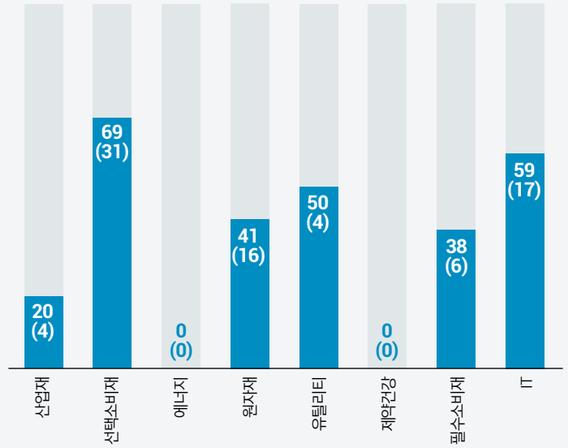
KSW 1 응답 현황

단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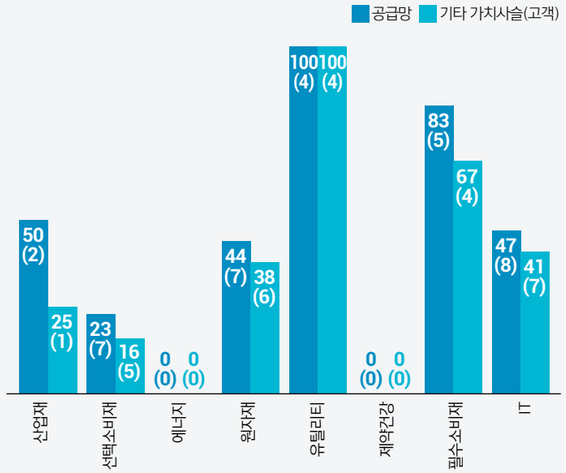
KSW 2 섹터별 응답률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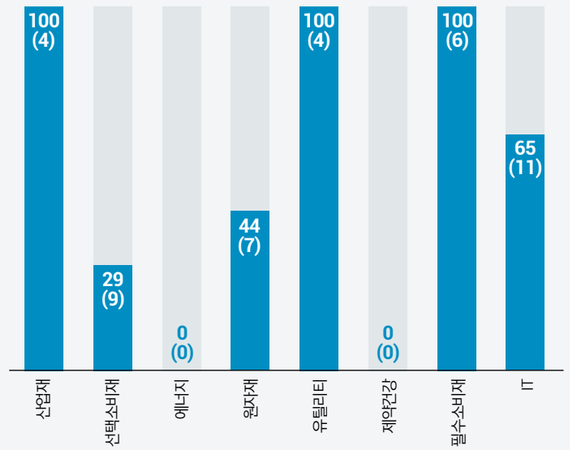
KSW 3 섹터별 물 이슈 관련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활동 비율

단위: % (기업 수)



KSW 4 섹터별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 취수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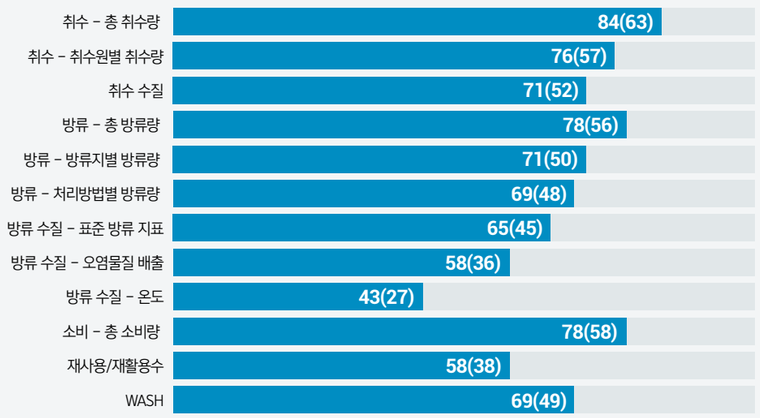


KSW 5는 기업 내 물 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했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이다. 각 항목에 대해 76% 이상 모니터링한 기업들을 집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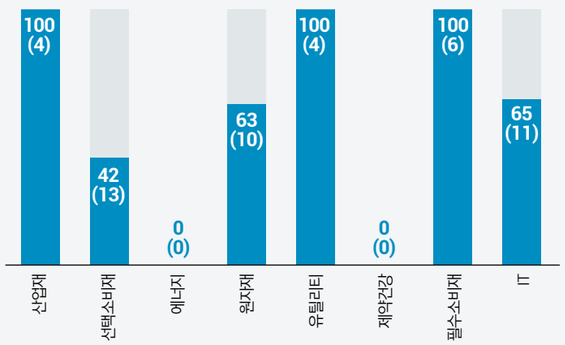
KSW 6는 기업 내에서 물 관련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통계이며, KSW 7은 사업 내에 중대한 재정적 또는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물 관련 내재적 리스크를 가치사슬 단계에서 식별했는지에 대해 집계하였다.

KSW 8 ~ KSW 9는 CDP에 보고한 모든 시설의 물 정보 가운데 제3자 검증을 받은 정보 비율이 76%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KSW 5 물 관련 지표별 모니터링 진행하는 기업 비율 (76% 이상 모니터링)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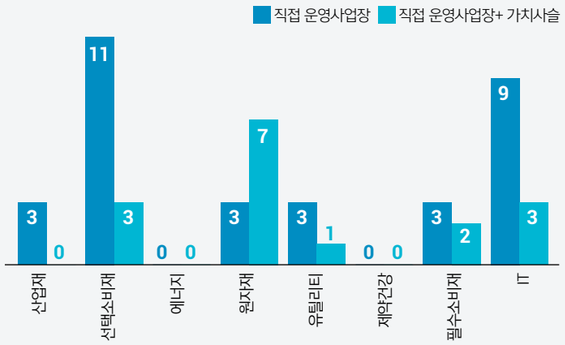


KSW 6 섹터별 물 관련 리스크 평가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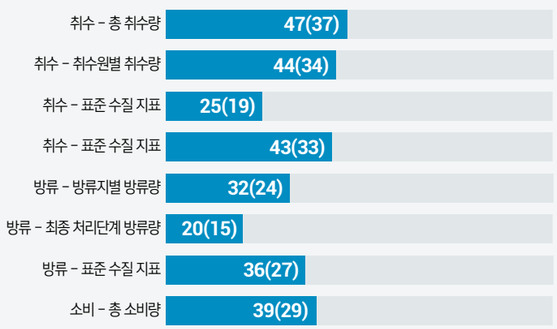
KSW 7 섹터별 가치사슬 내 물 관련 내재적 리스크 식별 현황

단위: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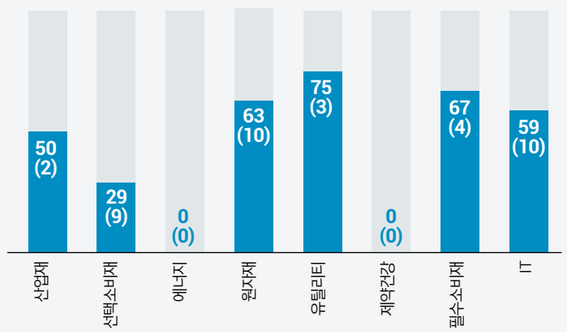
KSW 8 물 관련 데이터별 제3자 검증(76% 이상)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KSW 9 섹터별 물 관련 데이터 제3자 검증(76% 이상)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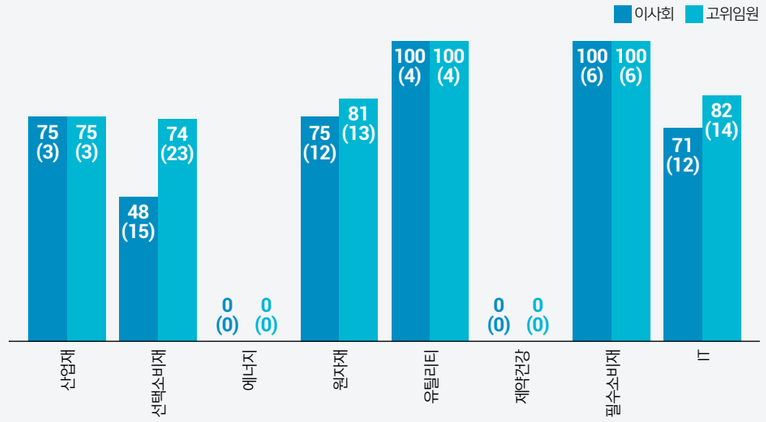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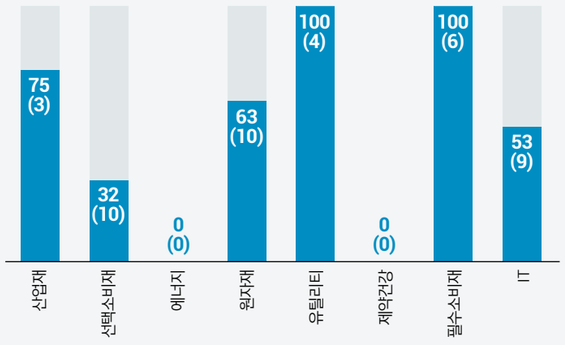
KSW 10 ~ KSW 19는 기업 내 물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주요 통계이다.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및 경영진 수준의 관리 감독 기구, 물 관련 정책, 인센티브, 재무 보고서를 통한 물 정보 공개, 사업 전략에 통합된 물 이슈, 장기 사업 계획 및 목표에 포함된 물 정보에 대해 각각 응답한 내용을 입력한 정보의 활동과 이슈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로 집계하여 반영했다.

KSW 20은 물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고 보고한 모든 목표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업 통계에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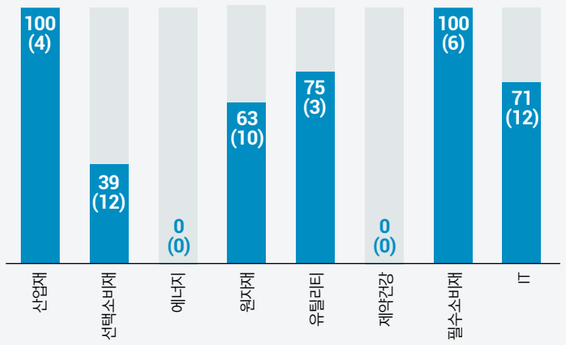
KSW 10 섹터별 물 관련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KSW 11 섹터별 물 관련 기회 파악 및 활용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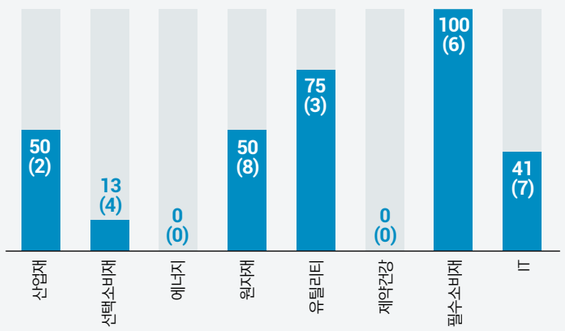


KSW 12 섹터별 물 관련 정책 수립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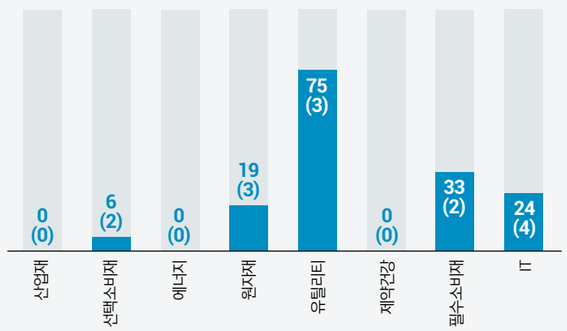
KSW 13 섹터별 물 관련 금전적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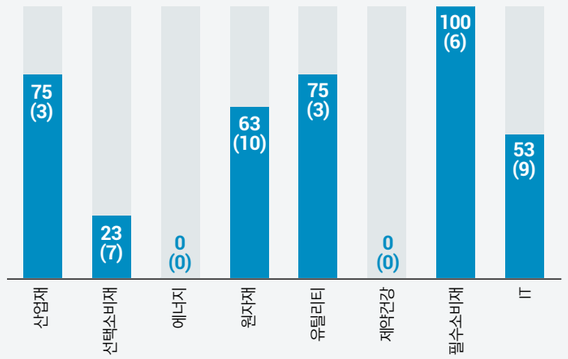
KSW 14 섹터별 재무 보고서를 통한 물 정보 공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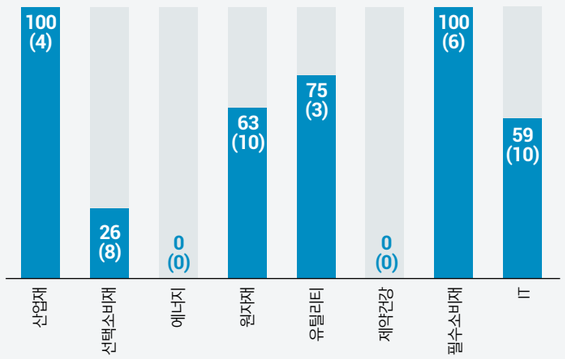
KSW 15 섹터별 사업 전략에 물 관련 이슈를 장기사업 목표로 통합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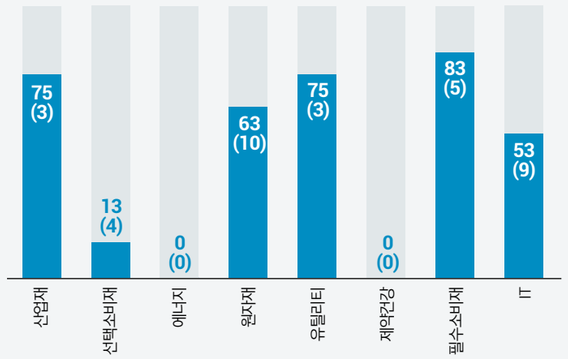
KSW 16 섹터별 사업 전략에 물 관련 이슈를 장기목표 달성으로 통합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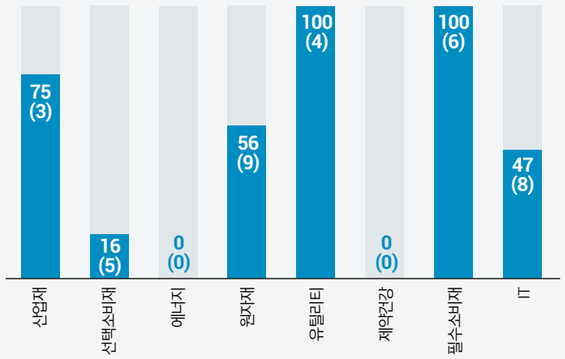
KSW 17 섹터별 사업 전략에 물 관련 이슈를 재정계획으로 통합한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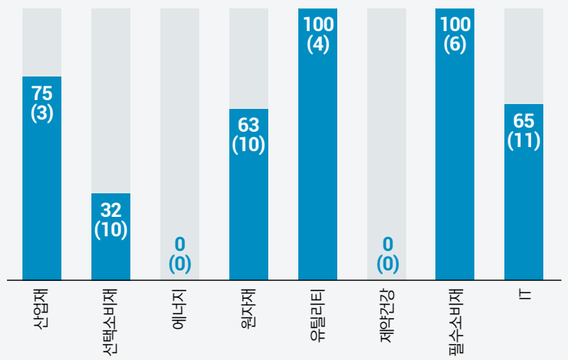
KSW 18 섹터별 물 관련 전략 수립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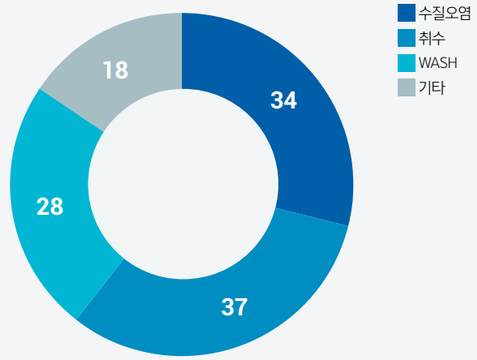
KSW 19 섹터별 물 관련 목표 수립 기업 비율

단위: % (기업 수)



KSW 20 물 관련 목표 유형별 수립 기업

단위: 기업 수



2023 CDP Climate Change 한국 기업별 현황

2년 이상 연속 미응답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300 제외 기업
응답: 응답 지연 등으로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Supply Chain 응답기업
F(무응답):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sCO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금융											
신한금융그룹	명예의 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00,080	10	○	2050	
하나금융그룹	아너스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67,570	9	○	2050	
KB금융그룹	아너스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28,987	8	○	2050	
기업은행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55,838	9	○	2040	
다날			F(무응답)		–						
메리츠금융그룹			F(무응답)		F(무응답)						
메리츠증권			F(무응답)		F(무응답)						
메리츠화재			F(무응답)		F(무응답)						
미래에셋증권			Leadership	A–	Leadership	A–	11,020	4	○	2040	○
삼성생명			Awareness	C	Awareness	C	64,637	5	○	2050	
삼성증권			Management	B	Management	B					
삼성카드			Management	B	Management	B	1,614	3	○	2050	○
삼성화재			Management	B	Management	B	14,757	8	○	2050	○
우리금융그룹			F(무응답)		F(무응답)						
카카오뱅크			Awareness	C	F(무응답)		3,913	5			
카카오페이			F(무응답)		–						
키움증권			F(무응답)		F(무응답)						
한국투자금융그룹			F(무응답)		F(무응답)						
한화생명			F(무응답)		F(무응답)						
현대해상			F(무응답)		F(무응답)						
BNK금융그룹			Leadership	A–	Management	B	29,571	5	○	2050	
DB손해보험			Disclosure	D	F(무응답)						
DGB금융그룹		검증	Management	B	Management	B	20,311	10	○	2050	
JB금융그룹			Leadership	A–	Leadership	A–	15,939	6	○	2035	
NHN한국사이버결제			F(무응답)		–						
NH투자증권			Management	B	Awareness	C	7,381	3	○	2020	
SK증권		자발적	응답		–						
산업재											
삼성물산	명예의 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85,488	3	○	2050	○
현대건설	명예의 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384,836	10	○	2045	
(주)한화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Management	B	64,263	12	○	2040	
포스코이앤씨[1]	섹터아너스	검증/자발적	Leadership	A–	Leadership	A–	55,438	8	○	2050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F(무응답)		90,928	12	○	2050	
현대글로비스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3,935,282	7			
SK네트웍스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Management	B	45,598	14	○	2050	○
포스코퓨처엠[2]	특별상		Management	B	F(무응답)		2,232,312	12	○	2050	
경동나비엔		자발적	Management	B–	F(무응답)		13,059	2			
나이스평가정보			F(무응답)		–						
대우건설			Leadership	A–	Management	B	59,234	8	○	2050	
대우조선해양			Management	B	Management	B	317,729	10	○	2045	

1. 구 포스코건설
2. 구 포스코켐텍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CO_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대한전선			Disclosure D	Disclosure D	39,323	0			
대한한공			Management B	Awareness C	8,674,458	6			
두산밥캣			F(무응답)	F(무응답)					
두산에너빌리티			F(무응답)	Disclosure D					
두산퓨얼셀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지주			F(무응답)	F(무응답)					
삼성엔지니어링		검증	Management B	Management B	54,466	6	○	2050	
삼성중공업			Management B	Management B-	364,085	9	○	2050	
씨에스윈드			F(무응답)	F(무응답)					
아시아나항공			F(무응답)	F(무응답)					
아이에스동서			F(무응답)	F(무응답)					
에스원			F(무응답)	F(무응답)					
영화테크		자발적	Disclosure D	Disclosure D-	1,620	0			
일진전기		검증/자발적	Awareness C	-					
팬오션		검증	Management B	Management B	2,669,563	5	○	2050	
포스코인터내셔널			F(무응답)	F(무응답)					
피엔티			F(무응답)	-					
한국조선해양			Management B	Management B	958,577	10	○	2050	
한국항공우주			Disclosure D	응답					
한전KPS		검증	Management B	Awareness C	5,751	0			
한전기술			응답	F(무응답)					
한화시스템			F(무응답)	F(무응답)					
현대건설기계			Management B	Management B	35,563	7	○	2050	○
현대그린푸드			F(무응답)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Leadership A-	Management B	120,040	9	○	2050	○
현대로템		검증	Management B	Management B	27,152	10	○	2050	
현대미포조선			Awareness C	Awareness C	160,957	9	○	2050	
현대엔지니어링		자발적	Management B	Management B	57,650	8	○	2045	
현대엘리베이터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중공업			Management B	-	553,999	9	○	2050	
효성			Management B-	Management B	31,854	9			
효성중공업			Leadership A-	Leadership A-	51,839	11			
(주)GS			F(무응답)	F(무응답)					
(주)LG			Leadership A-	Management B	22,000,033	15	○	2050	
(주)LS			F(무응답)	F(무응답)					
(주)두산			Management B	F(무응답)	80,720	4			
BGF			F(무응답)	-					
CJ대한통운			Management B	Awareness C					
CJ(주)			F(무응답)	-					
DL이앤씨			Management B	Leadership A-	64,528	8	○	2050	
GS건설			Leadership A-	Management B	120,581	10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CO_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HDC현대산업개발			F(무응답)	F(무응답)					
HD현대일렉트릭[3]			Awareness C	응답	97,432	11	○	2050	
HMM			Leadership A-	Management B	5,381,103	3	○	2050	
KCC글라스			Management B	Management B	730,243	6			
LG에너지솔루션			Leadership A-	Management B	2,489,896	8			○
LIG넥스원			F(무응답)	F(무응답)					
LS산전			Management B-	Awareness C	33,749	4			
LX인터내셔널			F(무응답)	F(무응답)					
LX판토스		자발적	응답	-					
LX하우시스			Management B-	Management B	164,576	4			
SFA			Disclosure D	Disclosure D	73,813	0			
SK스퀘어			Awareness C	-					
SK에코플랜트		자발적	Leadership A-	Leadership A-	26,175	5	○	2040	
SK(주)			Leadership A-	Leadership A-	109,213	10	○	2050	○
선택소비재									
현대자동차	아너스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2,558,538	11	○	2045	○
기아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194,341	10	○	2045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Management B	1,162,609	8	○	2050	
현대위아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311,820	12	○	2045	○
강원랜드			F(무응답)	F(무응답)					
금호타이어			Management B	응답	535,253	12	○	2045	
넥센타이어			Management B	Awareness C	364,718	6	○	2045	
다성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1,496	0			
더블유게임즈			F(무응답)	-					
동보		자발적	Awareness C-	-	38,010	0			
동양피스톤		자발적	Awareness C	Awareness C	25,968	0			
롯데쇼핑			F(무응답)	F(무응답)					
매그나칩반도체			Disclosure D	응답					
명신산업			F(무응답)	F(무응답)					
벤다선광공업		자발적	응답	-	-	1			
서울정밀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세방전지			Management B-	Disclosure D	128,353	0			
세화자동차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10,000	0			
신대림정밀공업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	0			
신세계			F(무응답)	F(무응답)					
신세계인터내셔날			F(무응답)	F(무응답)					
신일전자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2,050	0			
신흥정공		자발적	Awareness C-	Awareness C-	472	0			
에스엘			Management B	Management B	55,299	11	○	2050	
엔에스오토텍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엠에이테크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	0			

3. 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sCO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엠텍오토		자발적	Disclosure D	–	1,002	0			
영원무역			F(무응답)	F(무응답)					
우일정밀공업		자발적	Disclosure D	Awareness C	1,254	1			
유니온머티리얼			Disclosure D–	–	34,555	0			
이원머티리얼즈		자발적	Disclosure D	–	7,445	0			
이원솔루텍		자발적	Disclosure D	–	2,259,013	0			
인팩		자발적	Awareness C	Awareness C	7,225	3			
일진하이솔루스			Awareness C	–	2,178	0	○	2050	
정아정밀		자발적	Awareness C–	Awareness C–	–	0			
지누스			F(무응답)	F(무응답)					
창원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	0			
코웨이			Management B	Management B–	6,827	6	○	2050	
평화홀딩스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한국앤컴퍼니			Awareness C	F(무응답)	79,485	0			
한샘			Management B	Management B					
한섬			F(무응답)	F(무응답)					
한세실업			Awareness C	Awareness C					
한온시스템			Management B	Awareness C					
한일정밀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599	7			
한주금속		자발적	Disclosure D	–	6,950	0			
현대모비스			Leadership A–	Management B	401,924	9	○	2045	○
현대백화점			Leadership A–	Awareness C–	235,933	4	○	2050	
현대홈쇼핑			Awareness C	Awareness C	713	2			
호텔신라			F(무응답)	F(무응답)					
화성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화승엔터프라이즈			Management B	Management B	190,721	9			
휠라홀딩스			Awareness C	Awareness C	5,143	3			
DMC모터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843	0			
F&F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HL만도			Management B	Management B	239,939	6	○	2045	
LG전자			Leadership A–	Leadership A–	961,181	13			
SK트리켐		자발적	Management B	–	4,121	8	○	2026	○
SNT모티브			Disclosure D	응답	21,724	0			
에너지									
SK가스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34,919	13	○	2030	○
HD현대			F(무응답)	F(무응답)					
SK이노베이션			Leadership A–	Leadership A–	11,264,741	9	○	2050	
SK디스커버리			Management B	Management B	315,948	14	○	2040	
S-Oil			F(무응답)	F(무응답)					
원자재									
한화솔루션	아너스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3,107,230	12	○	2050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sCO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효성화학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Management B	892,064	9			
SK아이이테크놀로지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289,987	11	○	2035	○
SK케미칼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266,897	10	○	2050	
고려아연			Management B	Management B	3,450,417	10	○	2050	
금호석유화학			Management B	Management B	3,473,218	10	○	2050	
남양금속		자발적	응답	–					
대한솔루션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대한유화			F(무응답)	F(무응답)					
동국제강			F(무응답)	F(무응답)					
동원시스템즈			F(무응답)	–					
동진쎄미켐			Awareness C	Awareness C	36,826	0			
동화기업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정밀화학			Management B	Management B	643,203	12	○	2050	○
롯데케미칼			Management B	Leadership A–	6,214,759	12	○	2050	
미원스페셜케미칼			Disclosure D	Disclosure D					
솔브레인			Awareness C	F(무응답)					
신진화학		자발적	응답	응답	–	0			
에코프로			응답	F(무응답)					
영풍			F(무응답)	–					
지에스테크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5,416	0			
천보			응답	F(무응답)					
케이디에스		자발적	응답	–					
코스모이엔지		자발적	Awareness C	–	2,709	0			
코오롱인더스트리			Management B	Management B	718,144	9	○	2047	
태광산업			F(무응답)	F(무응답)					
포스코			Leadership A–	Management B	70,185,623	11	○	2050	
풍산			F(무응답)	F(무응답)					
한솔제지			Disclosure D	Disclosure D–					
한솔케미칼			Awareness C	F(무응답)	138,652	0			
한일시멘트			F(무응답)	F(무응답)					
한화첨단소재		자발적	Management B–	–	125,395	10	○	2050	
현대제철		검증	응답	Management B	28,500,750	8	○	2050	
효성첨단소재			Management B	Management B	1,224,620	12			
효성티앤씨			Leadership A–	Management B	297,691	8			
후성			Awareness C	응답	221,065	0			
DL			F(무응답)	F(무응답)					
HDC홀딩스[4]			F(무응답)	F(무응답)					
KCC			F(무응답)	F(무응답)					
KG스틸			F(무응답)	F(무응답)					
LG화학			Leadership A–	Leadership A–	10,043,267	8	○	2050	
OCI(주)			F(무응답)	F(무응답)					

4. 구 HDC현대산업개발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 CO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PI첨단소재			F(무응답)	F(무응답)					
SKC			Management B	Management B	938,112	8	○	2040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자발적	응답	-	286,210	8	○	2045	○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자발적	응답	-	2,237	8	○	2026	○
SK스페셜티			Leadership A-	Leadership A-	311,630	10	○	2030	○
TKG휴켐스			F(무응답)	F(무응답)					
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Management B	927,936	6			
한국지역난방공사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Management B	6,230,625	7			
한국가스공사		검증	Management B	Management B	752,041	10	○	2045	
한국남동발전		검증/자발적	Management B	Management B	35,384,924	8	○	2050	
한국동서발전		자발적	Management B	Management B	29,155,616	10	○	2050	
한국서부발전		검증/자발적	Leadership A-	Management B	30,159,233	9	○	2050	
한국수자원공사			응답	응답					
한국중부발전		검증/자발적	Management B	Management B	31,875,205	8	○	2050	
SK E&S		자발적	Awareness C	Management B	6,770,195	5	○	2040	
제약건강									
삼성바이오로직스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Management B	170,087	10	○	2050	○
SK바이오팜	섹터아너스		Management B	Management B-	1,361	4	○	2040	
녹십자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대웅			F(무응답)	F(무응답)					
대웅제약			F(무응답)	F(무응답)					
동국제약			F(무응답)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F(무응답)	-					
메드팩토			F(무응답)	-					
메디톡스			F(무응답)	-					
메지온			F(무응답)	F(무응답)					
바이오니아			F(무응답)	F(무응답)					
보령[5]			F(무응답)	F(무응답)					
삼천당제약			F(무응답)	-					
셀트리온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제약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헬스케어			F(무응답)	F(무응답)					
신풍제약			F(무응답)	F(무응답)					
씨젠			F(무응답)	F(무응답)					
알테오젠			F(무응답)	F(무응답)					
에스디바이오센서			F(무응답)	F(무응답)					
에스티팜			F(무응답)	F(무응답)					
에이비엘바이오			F(무응답)	-					
에이치엘비			응답	F(무응답)					
엔케이맥스			F(무응답)	-					

5. 구 보령제약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 CO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유바이오로직스			F(무응답)	-					
유한양행			F(무응답)	F(무응답)					
제넥신			F(무응답)	F(무응답)					
종근당			Awareness C	Disclosure D	17,350	0			
지씨셀			F(무응답)	F(무응답)					
차바이오텍			F(무응답)	-					
파마리서치			F(무응답)	-					
한국비엔씨			F(무응답)	F(무응답)					
한미사이언스			F(무응답)	F(무응답)					
한미약품			F(무응답)	F(무응답)					
한올바이오파마			F(무응답)	-					
헬릭스미스			F(무응답)	F(무응답)					
휴젤			F(무응답)	F(무응답)					
GC녹십자			F(무응답)	F(무응답)					
HK이노엔			F(무응답)	F(무응답)					
SK바이오사이언스			F(무응답)	F(무응답)					
통신									
SK텔레콤	아너스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101,361	9	○	2050	○
카카오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Awareness C	68,264	13	○	2040	
LG유플러스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453,549	11	○	2050	○
SK브로드밴드	섹터아너스	자발적	Leadership A-	Management B	394,439	10	○	2045	○
NHN	특별상		Management B	F(무응답)	14,525	9			
네이버			Leadership A-	Management B	86,991	13	○	2040	
넥슨게임즈			F(무응답)	-					
넷마블			F(무응답)	F(무응답)					
스튜디오드래곤			F(무응답)	F(무응답)					
에스엠			F(무응답)	F(무응답)					
위메이드			F(무응답)	F(무응답)					
위지윅스튜디오			F(무응답)	-					
제일기획			F(무응답)	F(무응답)					
카카오게임즈			F(무응답)	F(무응답)					
컴투스			F(무응답)	F(무응답)					
크래프톤			F(무응답)	F(무응답)					
펄어비스			F(무응답)	F(무응답)					
하이브			F(무응답)	F(무응답)					
CJ ENM			F(무응답)	F(무응답)					
JYP Ent.			Management B	-	1,026	0	○	2050	
KT		검증	Management B	Leadership A-	1,108,658	9	○	2050	○
NC소프트			Awareness C	응답	26,909	5			
YG엔터테인먼트			F(무응답)	-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CO_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필수소비재									
아모레퍼시픽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51,475	11	○	2050	○
KT&G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31,689	10	○	2050	○
LG생활건강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Awareness C	136,434	4	○	2050	
이마트	특별상	검증	Management B	F(무응답)	541,669	11	○	2050	
농심			F(무응답)	F(무응답)					
대상			F(무응답)	F(무응답)					
동서			F(무응답)	F(무응답)					
동원F&B			F(무응답)	F(무응답)					
동원산업			F(무응답)	F(무응답)					
롯데웰푸드[6]			Management B	F(무응답)	217,041	0	○	2040	○
롯데칠성		검증	Leadership A-	Management B	159,375	9	○	2040	○
빙그레			F(무응답)	-					
삼양사			Awareness C	F(무응답)	270,124	0			
삼양홀딩스			F(무응답)	-					
아모레퍼시픽그룹			F(무응답)	F(무응답)					
오뚜기			F(무응답)	F(무응답)					
오리온 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코스맥스			Leadership A-	Management B	10,742	7			
콜마비앤에이치			F(무응답)	F(무응답)					
풀무원			Management B	F(무응답)	157,097	6			
하림			F(무응답)	F(무응답)					
하이트진로			F(무응답)	F(무응답)					
한국콜마			Management B	Awareness C	7,845	3			
현대바이오사이언스			F(무응답)	-					
BGF 리테일			F(무응답)	Disclosure D					
CJ제일제당			Management B	Management B					
GS리테일			F(무응답)	F(무응답)					
SPC삼립			F(무응답)	F(무응답)					
IT									
삼성전기	명예의 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345,879	12	○	2050	
LG이노텍	아너스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453,258	6	○	2040	○
삼성전자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19,892,000	14	○	2050	○
삼성SDI	섹터아너스	검증	Management B	Leadership A-	1,749,615	12	○	2050	○
LG디스플레이	섹터아너스	검증	Management B	Leadership A-	6,311,036	4	○	2050	
SK실트론	섹터아너스	자발적	Leadership A	Leadership A	413,412	11	○	2040	○
고영			Disclosure D	Awareness C	3,057	0			
대덕전자			Management B-	Management B-					
덕산네오룩스			Awareness C	F(무응답)	13,089	0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7]			응답	F(무응답)	137				
비에이치			응답	응답	24,562				

6. 구 롯데제과
7. 구 일진머티리얼즈

기업명	수상	응답내용 전체검증 / 자발적참여	2023 CDP 밴드	2022 CDP 밴드	S1+S2배출량합 (metrictonCO_2e)	Scope 3 배출원 보고수	넷제로 목표여부	넷제로 목표연도	재생에너지목표 수립여부
삼성SDS			Management B	Management B	122,817	9			
삼성디스플레이			응답	응답					
상아프론테크			F(무응답)	F(무응답)					
서울반도체			F(무응답)	F(무응답)					
서진시스템			Disclosure D	응답	1,900	0			
솔루스첨단소재			F(무응답)	F(무응답)					
심텍			Disclosure D	Disclosure D	101,506	0			
아이티엠반도체			F(무응답)	F(무응답)					
안랩			F(무응답)	F(무응답)					
에이스테크놀로지			F(무응답)	Disclosure D-					
에치에프알			Disclosure D	응답	483	0			
엘앤에프			Awareness C-	F(무응답)	584,421	1			
오이솔루션			Awareness C	Awareness C-	2,539	0			
원익IPS			Awareness C	Awareness C	2,935	0			
원익쿼츠			Awareness C	Disclosure D	37,332	0			
유진테크			Disclosure D	응답	12,054	0			
이노피아테크		자발적	Management B-	-	157	4			
이녹스첨단소재			Disclosure D	Awareness C	27,555	0			
이오테크닉스			Awareness C	응답	4,280	0			
인탑스			Awareness C	Awareness C	26,940	0			
인텔리안테크			F(무응답)	-					
주성엔지니어링			F(무응답)	-					
케이엠더블유			Awareness C	Awareness C					
티씨케이			F(무응답)	F(무응답)					
티에스이			F(무응답)	응답					
파트론			Disclosure D	Disclosure D	-	0			
포스코DX[8]			F(무응답)	-					
하나마이크론			Disclosure D	응답					
하나머티리얼즈			F(무응답)	-					
해성디에스			Management B-	응답	66,854	0	○	2050	
현대오토에버			Disclosure D	응답	34,349	0			
DB하이텍			F(무응답)	F(무응답)					
LX세미콘			F(무응답)	F(무응답)					
SFA반도체			Disclosure D	응답					
SK하이닉스		검증	Management B	Leadership A-	9,098,873	7	○	2050	○

8. 구 포스코ICT

2023 CDP Water Security
한국 기업별 현황

(–): 해당연도 CDP Korea 150 샘플에 미해당
응답: 응답 지연 등으로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점수 비공개 기업, Supply Chain 응답기업
F(무응답):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기업명	수상	자발적 참여	2023 밴드	2022 밴드	2021 밴드	물 관련 리스크 진행 여부	물 관련 리스크 파악 여부	물 관련 수립 여부	물 목표 수립 여부	플라스틱 관련 목표 수립 여부
산업재										
현대로템	우수상		Leadership A–	–	–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주)두산			F(무응답)	F(무응답)	–					
대우조선해양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두산에너빌리티			F(무응답)	F(무응답)	–					
롯데지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강엠앤티			F(무응답)	–	–					
삼성물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성중공업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포스코인터내셔널			F(무응답)	–	–					
포스코퓨처엠[a]			F(무응답)	–	–					
한국조선해양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건설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효성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CJ(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KCC글라스			Management B	–	–					
LS산전			F(무응답)	–	–					
LX판토스		자발적	응답	–	–	진행	미파악	수립, 자료 공개	미수립	수립
SK네트웍스			F(무응답)	–	–					
SK(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선택소비재										
금호타이어			Management B	F(무응답)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기아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넥센타이어			Awareness C	응답	–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비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다성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수립	미수립
동양피스톤		자발적	Disclosure D–	Disclosure D	–	진행	미파악	수립, 자료 비공개	미수립	미수립
명신산업			F(무응답)	–	–					
서진오토모티브			Disclosure D	응답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세방전지			Awareness C	응답	–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비공개	미수립	미수립
세흥		자발적	Awareness C	–	–					
신대림정밀공업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신세계인터내셔날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신일전자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신흥정공		자발적	Disclosure D	Awareness C–	–	미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미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a. 구 포스코켐텍

기업명	수상	자발적 참여	2023 밴드	2022 밴드	2021 밴드	물 관련 리스크 진행 여부	물 관련 리스크 파악 여부	물 관련 수립 여부	물 목표 수립 여부	플라스틱 관련 목표 수립 여부
에스엘			F(무응답)	–	–					
엔에스오토텍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					
엠에이테크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엠텍오토		자발적	Awareness C–	–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영원무역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우일정밀공업		자발적	Disclosure D	Disclosure D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이원솔루텍		자발적	Awareness C	–	–	진행	미파악	수립, 자료 비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인팩		자발적	Awareness C	Awareness C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일진하이솔루스			Awareness C	–	–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비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정아정밀		자발적	Awareness C	Awareness C	–	미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창원		자발적	Disclosure D–	–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코웨이			Management B–	Awareness C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수립
코웰패션			F(무응답)	–	–					
태평양물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평화홀딩스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한국앤컴퍼니			F(무응답)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한섬			F(무응답)	–	–					
한세실업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온시스템			Awareness C	–	–					
한일정밀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현대모비스			F(무응답)	–	–					
현대위아			F(무응답)	–	–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화성		자발적	Disclosure D	응답	–					
화승엔터프라이즈			F(무응답)	–	–					
휠라홀딩스			Awareness C	응답	F(무응답)	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수립	수립
DMC모터		자발적	Awareness C	–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미수립
F&F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					
HL만도			F(무응답)	–	–					
LG전자			Disclosure D	Disclosure D	F(무응답)	미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SNT모티브			Disclosure D	–	Disclosure D	미진행	미파악	수립, 자료 공개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기업명	수상	자발적 참여	2023 밴드	2022 밴드	2021 밴드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 여부	물 관련 리스크 파악 여부	물 관련 정책 수립 여부	물 관련 목표 수립 여부	플라스틱 관련 목표 수립 여부
에너지										
HD현대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가스			F(무응답)	–	–					
SK이노베이션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Oil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원자재										
한화솔루션	우수상		Leadership A–	F(무응답)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SK스페셜티	우수상		Leadership A–	Leadership A–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효성첨단소재	특별상		Management B	F(무응답)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고려아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금호석유화학			Disclosure D	Awareness C	응답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남양금속		자발적	응답	–	–	미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미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대림텍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한유화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국제강			F(무응답)	–	–					
동진쎄미켐			Awareness C–	F(무응답)	F(무응답)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동화기업			F(무응답)	–	–					
롯데정밀화학			Management B	Management B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롯데케미칼			Leadership A–	Management B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미원스페셜케미칼			F(무응답)	–	–					
솔브레인			F(무응답)	F(무응답)	–					
신진화학		자발적	응답	–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에코프로			F(무응답)	–	–					
영풍			F(무응답)	–	–					
지에스테크		자발적	Awareness C	응답	–	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천보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케이디에스		자발적	응답	–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코오롱인더스트리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태광산업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포스코			Leadership A–	Management B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풍산			F(무응답)	–	–					
한솔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현대제철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효성티앤씨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기업명	수상	자발적 참여	2023 밴드	2022 밴드	2021 밴드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 여부	물 관련 리스크 파악 여부	물 관련 정책 수립 여부	물 관련 목표 수립 여부	플라스틱 관련 목표 수립 여부
효성화학			F(무응답)	–	–					
후성			Disclosure D	–	–	미진행	미파악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DL			F(무응답)	F(무응답)	–					
HDC홀딩스[b]			F(무응답)	F(무응답)	–					
KCC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KG스틸			F(무응답)	–	–					
LG화학			Leadership A–	Management B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OCI(주)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SKC			응답	Management B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SK케미칼			Leadership A–	Management B–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TKG휴켐스			F(무응답)	F(무응답)	–					
유틸리티										
한국중부발전	우수상		Leadership A–	Management B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한국남동발전	특별상		Management B	F(무응답)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한국가스공사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남부발전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동서발전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한국서부발전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한국수력원자력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국전력공사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제약건강										
녹십자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웅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대웅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국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보령[c]			F(무응답)	–	–					
부광약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삼천당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셀트리온헬스케어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신풍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영진약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유나이티드제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유한양행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일양약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b. 구 HDC현대산업개발
c. 구 보령제약

기업명	수상	자발적 참여	2023 밴드	2022 밴드	2021 밴드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 여부	물 관련 리스크 파악 여부	물 관련 정책 수립 여부	물 관련 목표 수립 여부	플라스틱 관련 목표 수립 여부
종근당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미사이언스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한미약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GC녹십자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HK이노엔			F(무응답)	–	–					
JW중외제약			F(무응답)	–	–					
필수소비재										
KT&G	최우수상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풀무원	우수상		Leadership A–	F(무응답)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롯데칠성	특별상		Management B	F(무응답)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대상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동원F&B			F(무응답)	–	–					
동원산업			F(무응답)	–	–					
삼양홀딩스			F(무응답)	–	–					
아모레퍼시픽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아모레퍼시픽그룹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오뚜기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코스맥스			Management B	Management B–	F(무응답)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콜마비앤에이치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하림			F(무응답)	–	–					
한국콜마			F(무응답)	F(무응답)	F(무응답)					
CJ제일제당			Management B	Management B–	Awareness C					
LG생활건강			Management B	Management B	Management B	진행	미파악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IT										
SK실트론	대상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SK하이닉스	최우수상		Leadership A	Leadership A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삼성디스플레이	우수상		Leadership A–	Management B	Management B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삼성전기	우수상		Leadership A–	Leadership A–	Awareness C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 가치 사슬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대덕전자			Awareness C	–	–					
비에이치			F(무응답)	–	–					
삼성SDI			Management B	Disclosure D–	응답 F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삼성전자			Management B	Management B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서울반도체			F(무응답)	–	–					

기업명	수상	자발적 참여	2023 밴드	2022 밴드	2021 밴드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 여부	물 관련 리스크 파악 여부	물 관련 정책 수립 여부	물 관련 목표 수립 여부	플라스틱 관련 목표 수립 여부
서진시스템			F(무응답)	–	–					
심텍			Disclosure D	응답	–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미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아이티엠반도체			F(무응답)	–	–					
에이스테크놀로지			F(무응답)	–	–					
에치에프알			Awareness C–	응답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엘앤에프			Awareness C	–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미수립
오이솔루션			Awareness C	응답	응답	미진행	미파악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원익IPS			F(무응답)	–	–					
유진테크			F(무응답)	–	–					
이녹스첨단소재			Awareness C	–	–	미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비공개	수립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인탑스			F(무응답)	–	–					
케이엠더블유			응답	–	–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비공개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파트론			Disclosure D–	응답	응답	진행	미파악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미수립, 2년 이내 예정
해성디에스			F(무응답)	–	–					
현대오토에버			Disclosure D	–	–	미진행	미파악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DB하이텍			F(무응답)	F(무응답)	–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Leadership A–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미수립
LG이노텍			Management B	Management B	Leadership A	진행	직접 운영 사업장	수립, 자료 공개	수립	수립
LX세미콘			F(무응답)	–	–					
SFA반도체			F(무응답)	–	–					

CDP Contacts

Sherry Madera
Chief Executive Officer

CDP Worldwide
4th Floor
60 Great Tower Street
London
EC3R 5AZ

Tel: +44 (0)20 3818 3900
www.cdp.net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이종오
사무국장

김태한
수석연구원

김정석
책임연구원

이다연
책임연구원

김현정
선임연구원

남나현
선임연구원

정유민
선임연구원

서승연
연구원

정병하
연구원

KoSIF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70 8821 2289

CDP 한국자문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CDP Climate Change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제철
전 환경부 차관

이병욱
전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CDP Water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길재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CDP 실무위원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